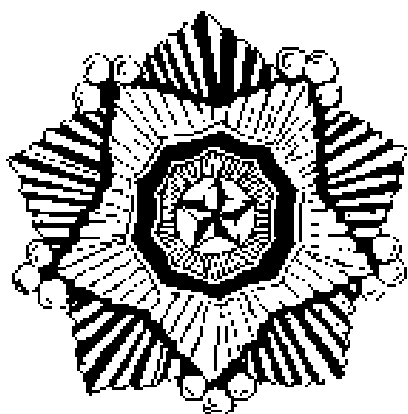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5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0(2011)년 제5호

(루계 제 763 호)

## 차 례

여기에 총대탑이 있다.....	3
장군님품은 봄날이여라 .....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건국의 첫삽우에 .....	4
5 호물동가의 잔디.....	5
어디에나 울리는 산울림 .....	5
주체문학의 대강 .....	6
꽃방 .....	6
조국에 대한 공지와 애착을 간직하게 하는 노래 .....	7
나의 공지.....	8
지름길 .....	9
우등불가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	13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구현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 몇가지 .....	14
조형미가 나는 립체적구성의 매력.....	17
주동 .....	18
천리마를 탄 처녀.....	1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 뉘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32
경구, 격언.....	32
홍남비료시초.....	33
화학지구의 봄하늘 .....	35
전로공들의 출근길 .....	36

CNC 기사 오네 .....	36
시인 백인준의 창작적개성 .....	37
내 나라의 봄풍경 .....	40
계절이 따로 없는 일터에서 .....	41
모관리공처녀와 트랙플총각 .....	42
두봉화 .....	43
영원한 강의 .....	52
청산별의 서정 .....	53
상식 .....	54
봄밤의 메아리 .....	55
봄들판의 하루 .....	55
봄문을 열고 .....	56
하늘아래 첫 동네 .....	57
가을향기 .....	59
경구, 격언 .....	71
애국심이 떠올린 진실한 서정의 세계 .....	72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고 .....	74
의의있는 세부묘사가 안겨주는 형상적여운 .....	75
세계핵에너지산업의 전망 .....	76
농촌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김복원의 시 .....	77
가스켈과 장편소설 《매어리 바톤》 .....	79

# 여기에 총대탑이 있다

리 찬 호

해빛 눈부신 5월의 대홍단  
이깔숲 설레이고  
철쭉꽃 진달래향기 넘치는 대지  
여기에 총대탑이 있다

어제날의 격전장  
지금은 꽃피는 백두고원의 신경이전만  
옛 전장의 총소리를 새겨주느냐  
금시 불을 뿜을듯  
뜨거운 총신 식지 않은 총

저기 철쭉꽃 만발한 언덕엔  
한그루 무성한 나무  
원쭈격멸의 총성을 울리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모습 전하며 설레고

그아래 산골짜엔  
세월의 락엽에도 묻히지 않는 샘  
군모를 쓰시고 총을 메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그 모습 아직도 어려 거울처럼 맑으나

대홍단전투 그날로부터  
일흔두해 세월은 아득히 흘렀건만  
변함없는 과녁을 향해  
서리발 날리며 우뚝 솟아있는 총

가 사

## 장군님 품은 봄날이여 라

류 민 호

눈내린 농장벌에 장군님 오시니  
넓어진 새 땅우에 봄바람 이는가  
다정한 미소를 들판에 보내실 때  
농장원들 가슴속엔 종달새 울었네  
아 장군님 장군님품은 봄날이여라

눈덮인 거름무지 흐뭇이 보실 때  
내가의 눈이 녹고 버들꽃 피는가  
농장원들 품에 안고 들을 걸으실 때

총대탑이여 너  
총대와 함께 흘러온  
백두산위인들의 한생을 말해주느냐  
총대를 떠나 결코 이룰수 없는  
이 땅의 행복을 하늘땅에 새겨주느냐

전야엔 노래소리  
생활엔 웃음소리  
이 땅에 무궁한 행복의 그 모든것을 지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을 총

총권 병사 내 지금  
다시 새겨안노라  
한생토록 놓지 않을 총대의 사명  
영원토록 길이 빛날 총대의 진리

오, 이 하늘아래 원쭈들이 있는 한  
총이여 너는 보습앞에 있어야 하고  
설레이는 오탁백과앞에  
행복의 그 모든 창조물들앞에 있어야 하리

총이 있어  
행복한 오늘이 있고  
강성번영할 래일도 있음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주는  
오, 대홍단벌의 총대탑이여!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 생산과 수리분야뿐만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었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 좌우명을 뼈와 살로 만든 사람은 절해고도에서도 지조를 지키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오를 떠나 변절투항하거나 중도반단의 길을 걸었다.》

《항일전쟁의 폭풍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낯은 오늘날 **김정일**조직비서가 제시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라는 구호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구호속에서 힘차게 살아 고통치고있다.》

## 전국의 첫 삽우에

박 현 철

내 어릴적 아버지에게서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이야기  
그러나 한살두살 나이 먹으며  
그것이 옛말이 아님을 가슴에 새긴 이야기  
나 또한 오늘 보통강기슭을 거닐며  
철부지아들에게 이야기한다

—토성랑 그것은 나라없던 그 세월  
가난과 멸시의 대명사였지만  
오늘은 그 흔적조차 없는 보통강기슭에  
우리 집의 높은 처마가 있고  
행복의 거리들이 펼쳐졌단다...

알겠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아들에  
정말 다 알기나 할가  
그저 봄날의 유보도가 좋아  
꽃배놀이 흥겨운 보통강이 좋아  
행복이 손짓하는 그 어디든 가잔다

눈부신 해빛속에 아들애의 마음은  
더 큰 행복이 무성하게 잎새 펼칠  
끝없는 미래에로 달음쳐가도  
내 마음은 65년전 세월을 거스르며  
저기 저 언덕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우러르나니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잊으랴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수도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우리 수령님  
원한과 재난의 강을  
행복과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 그 업적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  
나 또한 아들에게 이야기한다  
허나 아버지의 이 이야기 잊는다면  
아들아 너 지금 달음쳐가는 이 기슭이  
어제날 나라 없던 그 세월처럼  
원한과 재난의 기슭이 되리니

새기거라 가슴에 심장에  
저 백두에서 항일의 혈전만리 헤치시며  
오늘의 이 조선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보통강 이 기슭에서 뜨신 건국의 그 첫삽우에  
나의 아버지가 받들리우고  
나 또한 받들리우고  
너 또한 받들려있음을

지금은 너 철부지  
아직은 아버지의 이 말의 참뜻을  
다 알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새겨야 하리  
아버지의 이 말이 옛말이 아니라는것을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라

## 5호물동가의 잔디

로 옥 선

뽕죽뽕죽 봄잔디 솟는 언덕  
5호물동 건너선 빨찌산투사들  
봄잔디 파아란 조국땅 첫 기슭에  
두무릎 꿇었네

푸르른 고향별 잔디를 그리안듯  
두손모아  
부드러운 잔디를 어루쓰는  
얼굴엔 뜨거운 눈물의 봄비...

너를 안고 덩구누나  
천만리 싸움길 헤쳐온 자식이  
기다리던 어머니품에 와락 안기듯  
푸른 들판에 덩구는 아이들마냥

밟아도 짓밟아도 꺼꾸러지지 않는  
내 나라의 억센 기상 네 모습에 어려있어  
푸르고푸르러 삼천리를 뒤덮을  
해방의 새 봄빛 잎새마다에 어려있어

아,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님 따라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산천  
조국땅 첫 기슭에 안긴  
이 나라의 장한 아들 빨찌산투사들

너를 안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터쳤구나  
조국을 찾을 굳은 맹세로  
너를 그리안고 조국땅에  
첫 절을 하였구나

## 어디에나 울리는 산울림

리 명 근

공장과 농촌뿐이라  
탄광과 광산뿐이라  
온 나라 그 어디에나 울리는  
창조와 건설의 산울림  
기적과 혁신의 산울림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며  
반세기전에 울린 그 산울림이  
오늘도 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그 어디에나 울리거니

철의 전선에 울린 산울림은  
주체철의 폭포를 안아왔더라  
함흥과 남흥에 터친 산울림은  
비날론폭포 비료폭포를 안아왔더라

저기 조선의 결심을 펼치며  
날바다를 울린 산울림은  
가없이 넓은 새땅을 펼쳐주고  
대동강반 원홍땅에 울린 산울림은  
백리파원의 향기를 풍겨주더라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 선  
련하기계의 산울림은  
온 나라 일터마다 CNC화를 다그쳐주거니  
이제 또 얼마나 큰 산울림이  
공장구내마다에 울려갈것인가

내 나라와 인민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걸음걸음이  
안아오고 불러준 그 산울림  
천만의 군민이 펼쳐나선  
거세찬 총진군의 발걸음에  
비약의 나래가 되고 박차가 된  
힘찬 그 메아리

어제처럼 오늘도 울린다  
오늘처럼 래일도 울리리  
온 나라 일터와 일터마다에  
투쟁과 창조의 메아리로 울리는  
내 조국의 힘찬 교향곡이여

끝없이 울린다  
우리 장군님 울려주신 산울림  
일심단결만이 안아올수 있고  
혼연일체만이 펼칠수 있는  
조선의 산울림이 울린다

아, 그 산울림에서  
우리는 듣는다  
이 땅에 만복이 꽃피날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조선민족모두에게 필요한 재부이며 전체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 가며 계승발전시켜나가는 할 전민족적인 유산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나 민족공동의 재부이라는 의미에서 보나 그것은 반드시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되여야 한다.》

《일체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류레없이 간고한 환경에서 문학예술을 혁명의 무기로, 문학예술창작을 혁명사업의 한 부분으로 삼고 손에 총을 잡은 투사들자신이 노래를 짓고 연극을 창조한 그 전투적인 창작기풍은 오늘 자주적인 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모든 창작가들의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 혁명일화

### 꽃

### 방

아버이장군님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화초연구소의 드넓은 온실은 그대로 꽃의 바다이다.

이 세상의 진귀한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있는 여기 화초온실에도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 깃들어있다.

봄기운이 질어가는 조국의 대지를 누비시며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화초온실을 찾으신것은 지난 3월의 어느날이였다.

해빛밝은 온실에는 향설란, 제라니움, 매화, 다리아, 칼라, 꽃나리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빛깔깔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꽃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연구소에서 좋은 꽃들을 많이 육성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이 꽃들을 꽃방에 차려놓으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화초원을 통채로 꽃방에 옮겨놓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우신듯 소리없이 웃고있는 꽃들을 유정한 시선으로 보고 보고 또 보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속에 치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젖어드는 눈굽을 어찌할수 없었다.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무엇이 하나 생겨도 인민부터 생각하시는 아버지장군님, 꽃방석에 앉혀도 아까울것이 없는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의 세계가 가슴가득 미쳐와서였다.

숙연한 심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시내의 곳곳에 표준화된 꽃방들을 더 많이 차려놓자고,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명절날이나 생일날이면 꽃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 생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부모와 스승, 친우와 련인들에게 축하엽서를 보내는것보다 꽃을 주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꽃방이 많아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꽃들을 보시며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절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마음이 굽이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온실 가득 피어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오직 한마음 당을 믿고 따르며 모진 시련의 언덕을 웃으며 넘어온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아버지장군님의 의지이고 결심이다.

바로 그 용지를 가슴에 새겨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강행군천만리를 웃으며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여서 남새온실에 가시여서는 풍성한 남새를, 꽃이 피는 온실에 들리시여서는 아름다운 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것이였다.

그 사랑에 떠받들리어 시내의 여기저기에 화려한 꽃방들이 무수히 일떠서 인민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워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고마운 은정이 뜨겁게 안겨와 일군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수가 없었다.

봄의 계절에 인민사랑의 전설을 새로이 엮으며 정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질 꽃방은 정녕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의 선물인것이다.

이제 백화만발한 꽃방들을 찾게 될 사람들은 한송이한송이 꽃을 무심히 보지 않으리라.

그 한떨기 꽃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이 뜨겁게, 뜨겁게 어리여있음을 가슴후덥게 느끼게 될것이다.

## 조국에 대한 공지와 애착을 간직하게 하는 노래

지난 시기 90년대초 이전 쏘련이 무너지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도 련이어 넘어졌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했는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에서는 《주체》라는 글발이 여전히 밝은 빛을 뿌리며 온 누리에 빛나고있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길,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성스러운 길을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더 힘차게 나아가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성은 민족문화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성에 의하여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어느날 한 작가가 주체사상탑을 찾으니 거기 공원에는 한그루 소나무가 서있었다. 이것을 바라보니 작가의 머리에는 그 소나무야말로 자본주의 살벌한 바람에도 변함없이 또 끄떡없이 서있는 내 조국의 모습처럼 생각되였다.

작가는 흰눈을 떠이고 역세계 서있는 이 소나무의 모습에서 새로운 창작적충동을 받고 단숨에 가사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써서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하였다.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떠이고서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

후에 이 가사에 곡을 붙여 노래로 형상되게 되었다.

주체83(1994)년 2월 2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들으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며 나는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도 좋아한다고,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최근에 창작하여 형상한 좋은 노래라고,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곡도 좋지만 가사가 더 좋다고, 이 노래가사에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굳센 기상과 모습을 소나무에 비유

하여 잘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사가 좋다고 하신 치하의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작가는 너무 기뻐 어찌 할바를 몰라했다. 자기의 노래가사를 우리 장군님께서 이처럼 높이 평가해주실줄이야! 판록있다는 시인들도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가사의 좋은 점을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찾아내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작가는 장군님의 그 사랑에 목메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가 잘되였다고 하시며 작가에게 크나큰 고무를 안겨주신 후 잘못된 점을 세심히 바로잡아주시였다.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는 1절과 2절은 좋지만 3절이 문학적으로 잘되지 않았다고, 그 노래는 소나무에 비유하여 조국에 대한 공지와 애착을 간직하게 하는 노래인데 3절가사에 인위적으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넣어 예술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가사에서 잘못 형상한 표현을 고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 노래가사 3절의 세번째 줄은 처음에 《우리 당 손길아래 빛나는 사회주의》로 되어있었다. 작가는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모두 무너지고있는 사실과 대비하여 날로 발전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을 형상하는데서 반드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안고서야 작가는 자기가 가사를 잘못 쓴데 대하여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은유법을 리용하여 쓴 가사에서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것이였다. 그후 가사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수정되였다.

...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꽃꽂이 보여주는 역세인 소나무여  
우리 당 손길아래 천만년 길이 빛날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를 완성시켜주신 이후에도 노래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잘 형상해내도록



# 나의 궁지

김 철 혁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피방울과 같아라  
해돋이 바다처럼  
내 가슴에 차넘치는 삶의 이 궁지

조국이어  
내 그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사는 궁지를 한껏 안겨준  
어머니조국이어

한없이 가슴벅차게 하더라  
쇠물폭포 비날론폭포 비료폭포 쏟아지는 소리  
세계의 창공에 어엿이 오를 때면  
뜨거움을 안고 우러르는 그대의 기발  
원췌들 전률하는 그대의 목소리

이 궁지  
이 자부심  
그대의 수려한 산천이 준것이더냐  
반만년력사와 문화가 준것이더냐

조국이어 이 궁지는  
그것만이 아닌  
그대의 높은 존엄에서 오는것이거니  
서슬푸른 칼날의 섬광과도 같아라  
그대 존엄의 눈빛  
그대 자존심의 기상

그 칼날같은 섬광은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풍파사나운 전선길에서 버려졌더라  
애국헌신의 장정에서 빛받았더라

그 섬광속에  
무적필승의 무력이 있고  
그 섬광속에  
그대의 무궁번영과  
우리 생활의 행복한 래일이 숨쉬거니

아, 조국이어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눈물을 삼키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라도  
군력을 다지며 굴함없는 그대  
그 존엄의 높이는 궁지의 높이  
그 존엄은 나의 궁지 나의 생명

그 존엄의 성새가  
내 가슴속에도 억척같이 솟아있어  
나는 강하다!  
이 궁지가 심장에 뿔뿔이  
나는 세계를 굽어보는  
이 나라의 당당한 공민

하기에 누가 감히  
그대의 존엄을 모독하려 든다면  
이 땅의 한그루 나무잎새마저  
서리발 칼날이 되어 무자비하게 후려치리  
온 강산이 활화산으로 터져오르리

아 어머니조국이어  
이 존엄의 만년성벽우에  
위대한 령장이 거연히 서계시는 나의 조국이어  
목숨은 버리어도  
그대 아들이 된 이 궁지  
나는 못 버려  
나는 못 버려!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3(1994)년 5월 어느 날 사람들이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데서는 왕재산경음악단에서 트럼페트로 형상한것을 내보내는것이 더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디에 가거나 깊은 밤에도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한껏 나래치는 이 노래를 들으며 주체조선의 굳센 기상, 선군조선의 강의한 기상을 더 한껏 느

끼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명곡인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돛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세계에 더 높이 떨치기 위해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계 나아가고있다.

리 효 철

# 지 름 길

김 희 남

## 1

눈보라 휘몰아친다  
북방의 눈보라 눈보라  
이 땅을 노리는 오만한 때무리들  
단매에 처갈겨부실듯

맷잔 눈보라속에  
야전차 달린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모시고  
흰눈덮인 북천길따라  
오르면서 몇시간 내리면서 또 몇시간

밤새우시며  
먼길오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장군님 일일이 돌아보신다  
새로 세운 중소형발전소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얼음장밀에서도  
물결은 출렁출렁 기쁨 속삭이니  
장군님 소중히 들어주셨어라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시는듯  
고르로운 발전기의 동음도  
당을 따라 변함없는  
자강도로동계급의 숨결이어서  
가슴 후더이 새겨안으셨거니

장군님 높이 평가하시여라  
떡우개식발전소 토목식언제  
지방자재 쓴것이 흥미있다고  
크나큰 기쁨에 넘치시여라

—내가 이 추운 날에 왜 왔는지 압니까?  
갈수기이고 강이 얼어붙은 겨울에  
발전기가 잘 돌아가는가를 보자는것이였소!

북천의 세찬 바람에 옷자락 날려도  
도당의 책임일군 성목의 마음  
봄날의 꽃구름에 실린듯  
허나 전사의 본분 드림있으라

초조한 눈길 시계바늘에 매인듯...

안타까워라  
끼니때도 퍼그나 지났거니  
그이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려야 하리  
먼길오신 피로도 어서 푸셔야 하리

온갖 시름 다 잊으신듯  
때식도 모르시는듯  
사시장철 분망속에 계시는 그이  
창밖을 살피시며 물으시여라  
—책임비서동무!  
여기 기계공장이 일정계획에 없던가?

—예?! 저... 없습니다...  
성목이 마음 다잡고 아뢰인다  
벌써 많은 시간 지체되었음을  
맞물린 일정도 긴장한데 그냥 가시자며

서운해하시는듯  
장군님 아무 말씀 없으시니  
죄스러워라 성목의 마음  
저도 모르게 머리쳐드는 생각  
(공장일군 광춘이 장군님 아시는 일군  
할수 없어! 실절없는 일군  
그 자리는 빈자리, 빈자리나 같지...)

## 2

거리거리 집집마다 명절이런가  
장군님 만나뵈온 강계사람들  
행복의 이야기로 잠 못드는 이밤  
광춘이 홀로 무거운 발걸음 옮긴다

짙검불에 걸쳐여도 쓰러질듯  
비칠거리며 한걸음  
쓰라린 자책에 잠겨 한걸음  
머뭇거리여도 자석에 쇠불이 이끌리듯  
광춘이 그리움에 타는 마음 절로 이끌리어  
공장사적비 찾아간다

누구보다 장군님 뵙고싶었건만  
그이를 공장에 모시지 못한 자책감 안고  
—휘익!

어디선가 회오리바람 앞을 막는다  
광춘의 옷자락 나꾸어채며  
사정없이 귀전을 후려갈긴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배은망덕한 놈  
엄벌을 받아야 해 엄벌을!...)

가슴을 움켜쥐고  
광춘이 두볼 적신다  
여러 공장들 저저마다  
장군님 모시여 기쁘드리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는 행운 지녔는데  
우리 공장은 나때문에... 나때문에...

그 어디 비길테 있으랴  
쓰리고 아픈 마음 죄송한 마음  
해빛같은 글발들 삼가 우러르니  
흐려진 눈가에 생생히 안겨와라  
장군님 만나뵈던 영광의 그 봄날  
어제런듯 가슴가득 안겨와라

...  
산기슭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북천의 물결우엔 버들개지 춤추는데  
젊은 기술일군 광춘이 가슴설레여라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인사드리는 크나큰 영광 지녔거니

행복한 그 시간은 무아경속에 흘렀다  
생산계획 어김없이 넘쳐수행하는  
전통이 있는 공장이라고  
장군님 환히 웃으시며 치하하시니  
작은 가슴에도 세상을 다 안은듯!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봄날에  
그이께선 얼마나 뜨거이 당부하셨던가  
공장의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말은 계획 넘쳐하라고  
일을 잘하면 다시 오겠도시며...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의 화원을 펼쳐야 했던만

삼가 드린 그날의 맹세 저버렸으니  
내가 어찌 용서받을수 있으랴)

씻지 못할 고뇌와 번민속에  
광춘이 움직일줄 몰라라  
눈보라 헤쳐가실 장군님안녕 바라며  
머리숙여 속죄의 마음 아뢰이노니

구실을 못해 뗏뗏치 못하여도  
혈연의 정 가득한 그 마음  
변함없는 그리움 불타는 전사의 심장  
아, 언제나 어디서나 장군님곁에 있어라!

### 3

눈보라 밀림의 눈보라  
백두의 후손들을 억세게 키워주는가  
고난을 박차고 일떠서는  
선군조선의 기상 세상에 소리치며  
눈보라 하늘땅을 뒤흔든다

장자강 굽이굽이에 후더운 정 남기시고  
높은 령 넘고넘으시여 또 며칠  
빨찌산의 김대장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으로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자강땅 눈보라 달게 맞으시며  
낮과 밤 이으신 강행군길 그 얼마  
끼니도 휴식도 잊으신적은 또 얼마

헤어지기 아쉬워 석별의 정 금치 못해  
전사들 한마음 안녕의 부탁 아뢰이는데  
성목의 손 잡으시고 걸음 멈추신 그이  
깊으신 심중 터놓으시는가  
강계에서 기계공장을 그냥 지나온것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어제 밤에도 그 동무들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

뭉클! 불덩어리 삼키며  
성목이 자초지종 설명드린다  
생산이 시원치 못해 말밥에 오른 사연  
일군들의 책벌문제까지 제기된 사실...

그런 말을 왜 이제야 하는가고  
그렇다면 더우기 가봐야 한도시며  
사랑담아 믿음담아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  
—아무래도 강계로 다시 가야 하겠습니까

아, 마디마디 은정넘치여  
성목이 머리 떨군다  
(내 언제면  
아버이의 고결한 인정의 세계에  
이들것인가!...)

오, 눈보라 눈보라속에  
우리 장군님 되돌아가신다  
차머리 돌리시여 다시 강계로  
차보다 먼저 마음달리신다  
오가산령 넘으신다!

일본새를 보아도 그 손맛이 달고  
소박한 말 한마디에도 정이 폭 드는 사람들  
귀중한 동지 한사람이라도 주저앉을세라  
전사의 마음속 그늘 무거이 안으시고  
장군님 천리 눈보라길 헤쳐가신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위함이라면  
장군님께서 천리만리도 지척이신듯!  
수령님 품들여키우신  
우리 로동계급이 있는 곳이라면  
오, **김정일** 장군님께서  
세상끝이라도 한뜨락처럼 여기신다!

#### 4

꿈이런가 생시런가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어서  
광춘이 믿어지지 않아라  
허둥지둥 옷매무시 바로하며  
공장정문으로 달려가는 광춘이

웬일인가? 주저하는 그 발걸음  
한순간 가슴치는 생각  
(내가 어떻게 감히?!...  
그이앞에 어이 나서랴  
그이께 무슨 말씀을 드리랴!)

송구한 마음 죄스러운 심정  
온몸을 사로잡는가  
불쑥 두눈에 뜨거움 솟구쳐라  
환히 웃으시며 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  
우러러 달음쳐 안기는 전사  
목메여 아뢰여라  
—장군님! 어찌하여 이 추운 날에...

장군님  
전사의 손 따뜻이 잡아주신다  
구내를 깨끗이 잘 꾸렸다시며  
기쁨의 미소 지으시니  
아, 그리움으로 가득찬 그 나날  
10년세월의 공간이 가뭇없이 메꾸어지는듯!

그이 모시여  
구내길 나무가지들  
기쁨의 설레임 끝없는가  
그이품에 달려가 안기는듯  
기대소리 정답게 울리여라

로동자들이 보고싶어  
크고작은 직장들 돌아보시며  
그이께선 걸음걸음 기뻐하신다  
자동흐름선에 넘치는  
자력갱생의 동음소리 소중히 들으시며  
여기 로동자 기술자들에게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없다고

우리 식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시며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것을  
자강도에서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고  
장군님 힘주어 말씀하신다

동냥질 구걸질엔 배부를수 없고  
제것아닌 남의것이 밀천될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 더욱 깊이 깨달으며  
성목이 진정 담아 아뢰인다  
장군님께서 현명하게 이끄신 덕분이라고

정녕 장군님 계시기에  
내 조국이 피눈물의 언덕 넘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백승의 영웅적기상 펼치거니  
하건만 장군님께서 며칠전에도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전설 남기셨던가  
이번에 자강도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큰 힘을 얻으셨다고...

배고픈 고생 추운 고생...  
다 참을수 있어도 장군님 그리움만은  
참기 어려웠던 이 고장 사람들  
오로지 장군님 계시여 승리를 믿고  
고난과 시련 락으로 여겼건만

그이께선 소박한 이 사람들을  
세상에 자랑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고난속에서도 동면하지 않고  
쌀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시며

그이께 드리고싶은 감사의 인사  
고르고 또 골라도 다함있으랴  
성목이 광춘의 손 잡고 한마디 귀뜸해라  
장군님 밤새우시며  
눈보라천리길 되돌아오신 사연

아, 더는 못 참아 광춘이 터놓아라  
—경애하는 장군님  
제가... 제가 일을 잘하지 못해  
지난해 계획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이 추운 날씨에...

귀한 자식 위해 매를 드는 어머니런가  
일군들 정신 번쩍 차리라고  
장군님 엄하게 책망하신다  
인민경제계획은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가의 법이며 당의 지령이라고  
억센 로동계급답게 분발하여  
생산을 팡팡 내밀라고

—결린 문제도 우리 함께 풀어나가자구  
내가 제강소에도 들렀됐는데  
용해공들이 나와 약속을 했소  
강재를 꼭 생산보장하겠다고...

—장군님 고맙습니다! 후!  
그이품에 안기며 얼굴묻는 전사  
들먹이는 어깨 안아주시며  
장군님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확실히 구내를 잘 꾸렸거던  
여기에 빈집이 하나 없소?

뜻밖의 물으심에 어리둥절  
일군들 모두 의아한 눈길  
대답의 말 못 찾아 찢찢매는데  
그이께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셔라

구내록화를 잘해놓으니 공장갈지 않다고  
금강산 칠보산의 휴양소보다 낫다시며  
—빈집이 하나 없으면

이곳에서 하루밤 자고싶소  
허허허...

순간 온 공장이 들썩 웃음폭포 웃음바다  
아, 즐거운 마음의 노래런가  
귀를 강구던 공장추녀도 나래를 펼쳐  
건똥 하늘높이 솟아오르는듯!

창밖엔 눈보라 사나워도  
아, 전사들 마음속엔 따뜻한 봄눈석이!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귀한  
밝은 웃음의 큰집이여라  
우리 안겨사는 정든 집  
장군님의 혈연의 정 넘치는 사랑의 세계

한없이 숭고한 동지애의 한품속에  
험산령도 한결움에 날아넘을 새힘 노도쳐라  
단숨에 고난의 천리넘어 행복의 만리 펼쳐갈  
끝바른 지름길 벅차게 안겨와라

매혹된 심장 한껏 부풀어  
성목이 삼가 아뢰이여라  
—저희들이 공장을 잘 도와주어  
강행군의 기수로 내달리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습니다  
전사들의 손 굳게 잡아주시며  
그이께서도 헤여지기 아쉬우신듯  
아직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걸음 떼지 못하신다

그늘 가셔진 새 모습들 굽어보시며  
장군님 한시름 놓이시는듯  
불철주야의 로고도 다 풀리신듯  
밝은 미소 뿌리시며 따뜻이 이르신다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재무지의 스러져가는 불씨에도  
불길로 솟구치는 소생의 숨결  
뜨겁게 부어주신 위대한 은인  
아, 어버이이시고 태양이신  
장군님 우러러 목청껏 터치여라  
감사의 정에 심장끓이며  
매혹된 한마음 한목소리로  
만세의 환호성 터치여라

## 우등불가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체득하여 뼈와 살로 새기시었을뿐 아니라 언제나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기 위해 불같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파자회의가 끝난 날 밤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받아안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승리의 신심이 가득차올랐다.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안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감격과 걱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어느덧 밤은 깊어 밀림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우등불을 벗삼아 책장을 번지며 열심히 학습하고계시었다.

새겨볼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연설은 자자구구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뜻깊은 사상들로 일관되어있었다.

김정숙동지의 귀전에는 벌써 국경일대와 국내도

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퍼붓는 불벼락을 맞고 적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금시 들리는것만 같으시었다. 그때 숙영지를 돌아보던 한 지휘관이 우등불결에서 한밤을 지새우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윽도록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던 지휘관은 조심히 다가가 잠간이라도 눈을 좀 붙이시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행군이 시작되면 질풍같이 적을 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령관동지의 새 방침으로 인민들을 깨우치고 일떠세워야 하겠는데 이밤을 놓치면 옹근 시간을 얻기가 힘들것 같아서 그런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지휘관의 가슴에서는 크나큰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아, 얼마나 불같은 열정을 지니신분인가.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뼈와 살로, 혁명적신념으로 새겨가시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경건한 자세로 서있는 지휘관을 천막안으로 떠미시고 다시 우등불결에 앉아 손에 책을 드시었다.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서는 오로지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사상의 빛발로 인민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차게 불려일으키실 일념만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그 모습에 감복해서인지 우등불은 주위를 환히 밝히며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만세! 만세! 만세!...

×

아버이의 슬하에 한식술의 모습이여라  
전례없는 기념사진 영광의 기념사진  
그리움의 노래로 고난을 이기고  
강계정신의 불길로 락원의 행군을 안아올린  
아, 뜻깊은 기념사진 행운의 기념사진

가벼이 안아볼수 없어라  
행운의 기념사진

친부모의 고생보다 몇몇곱절 더하시는  
장군님의 선군의 장정 강행군의 로고  
눈물겹게 말해주는 그날의 기념사진

오늘도 래일도 이야기하리  
세세년년 천만가슴에 새겨주리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이  
기적과 위훈의 역센 나래되었다고  
락원의 길 앞당겨온 지름길되었다고...

새기여주리 천만가슴에  
강성대국승리의 지름길 열어가시며  
장군님 불철주야 이으시는 헌신의 로고  
아, 부디 잊지 말라고  
세월의 끝까지 끝까지...

#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구현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 몇가지

—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극작품들을 중심으로 —

럼 창 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작품에서 민족성구현은 문학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화》에 대하여 떠벌이고 있는 오늘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문학작품에서 민족성구현의 방도는 첫째도 둘째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삼는것이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민족성이 풍부하게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정의를 사랑하고 슬기로우며 외유내강한 민족적성격을 비롯한 풍부한 민족생활이 진실하게 형상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는 주인공 리준의 불굴의 반일항거정신과 자결을 통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는 이등박문을 처단하는 안중근의 결단을 통하여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에 굴할줄 모르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의 주인공 어머니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의 성격형상도 외유내강한 조선녀성들의 민족적성격의 본보기로 된다.

한편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주인공의 해학적기지는 조선민족의 락천적성격의 표현이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주인공 갑룡이의 지극한 부모에 대한 효성,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의 눈물겨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사랑과 효성은 우리 민족고유

의 전형적인 미풍량속이다.

특히 이채를 띠는것은 극작품들에 형상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이다.

문학작품에서 인정선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며 따뜻이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이 발현되는 생활과정에 대한 형상이다. 인정선에 대한 진실한 형상문제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인정선은 감정조절을 위한 생활적바탕으로서 독자들을 형상세계에 끌어들여 깊이 감동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인정심리극으로서 20세기의 대결작으로 불리우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풍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명작으로 될수 있는것도 이 명작들에 민족고유의 인정미가 넘쳐나는 형상선이 뚜렷이 구현되어 작품의 높은 사상성을 안받침하였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구현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은 몇가지로 볼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명작들의 인정선이 모성애나 효성과 같은 혈육간의 사랑선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선이 있는것도 있지만 모성애나 효성과 같은 혈육간의 사랑의 형상선이 없는 작품은 거의나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연극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에 형상된 인정선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 꽃분이와 순희의 사랑, 오빠 철룡이의 동생들에 대한 사랑 등 혈육간의 사랑에 기초하여 인정선을 그리고있다.

꽃분이만은 노예의 멍에를 쓰지 않게 하려고 앓는 몸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머슴살이고역을 치

르어가는 어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 앓아누운 어머니를 대신하여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밤마다 거리에 나가 꽃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꽃분이의 뜨거운 마음이 작품의 전반부를 이루고있다. 억울하게 도적의 루명을 쓰면서도 애오라지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고 애쓰는 꽃분이, 그 간절한 소망과 효성에 감동된 의원이 어머니의 약을 지어주는 눈물겨운 인정세계, 날이 밝으면 팔려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서도 오직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눈물속에 약을 달이는 꽃분이의 효성, 꽃분이가 팔려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기가 막혀 죽는 어머니의 모성애에 대한 형상이 그것을 보여준다.

작품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이다.

감옥에 간 오빠를 찾아 700리 길을 걷는 꽃분이, 눈먼 동생을 위해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꽃분이, 지주놈이 동생을 해쳤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연약한 몸으로 달려들어 싸우는 꽃분이의 혈육간의 사랑에 기초한 형상선은 혈육간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형성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은 다음으로 혈육간의 사랑이나 또 우정에 기초한 인정선이 작품의 기본감정선을 이룬것이다.

실제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한 자위 단원의 운명》에서 찾아볼수 있다.

명작에서는 갑룡의 할아버지에 대한 효성선이 기본을 이루며 여기에 만식이, 철삼이와의 우정선, 어린 누이동생 경옥이에 대한 만식이의 사랑, 할어머니에 대한 철삼이의 효성이 보조적인 형상을 이루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피바다》도 마찬가지이다.

작품에는 주인공과 남편, 원남, 갑순, 을남, 유격대공작원 조동춘, 원남의 애인 등이 등장한다.

명작의 기본형상선은 어머니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이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왜 왔는가고 물을 정도로 각성되지 못하고 오로지 남편만을 믿고 살던 주인공, 왜놈들의 《토벌》에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주인공은 아이들이라도 살리려고 살길을 찾아 헤매이다가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아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깨닫고 혁명의 길에 나선다.

명작의 이러한 기본형상선은 주인공과 남편, 어머니와 자식들간의 뜨거운 인정선에 기초한다.

작품에서 나오는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은 모두 어머니와 자식들간의 인정세계에 대한 형상이다.

수수범벅이나마 자식들에게 더 먹이려고 자기 뭇까지 원남이에게 주고 끼니를 건네는 어머니의 모성애, 자기 뭇을 남겼다가 허기져 잠 못드는 어머니의 손에 슬그머니 쥐여드리는 갑순이의 눈물겨운 효성을 보여주는 인정생활, 산중내가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영영 오지 않는가고 원남에게 묻는 갑순이,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우신다고 하는 원남이의 가슴허비는 대답, 그 말들을 다 듣고 혀를 깨물며 눈물짓는 어머니에 대한 형상, 어머니의 생일날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구름속의 해님도 방긋 웃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난다고 노래부르며 효성을 다하는 세 남매, 유격대로 떠나는 원남이를 위해 예로부터 남정들을 전장으로 보낼 때에는 새 군복을 갖추어보내는것이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이라며 밤을 새워 군복을 짓는 어머니의 웅심깊은 사랑, 유격대로 떠나며 어머니를 잘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원남이의 뜨거운 효성은 원남과 애인과의 사랑선보다 열렬하며 이에 대한 형상이 주선을 이룬다.

특히 막내아들 을남이의 희생은 인정선의 절정을 이루면서 원쑤에 대한 어머니의 증오와 분노를 폭발하게 하며 폭동의 선두에 서게 하는 감정폭발의 중요바탕으로 된다.

명작에는 유격대공작원 조동춘의 정치조직선이 설정되었다. 이것은 명작의 후반에서 주인공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 가정울타리안에 머물러있던 주인공의 인정세계를 원쑤 왜놈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오르게 하여 무장폭동의 앞장에 서게 한다. 하지만 이 정치조직선도 인정선 특히 을남의 희생과 그로 인한 어머니의 울분과 적개심에 기초한다.

명작에서는 원남과 그의 애인과의 사랑선도 설정되었다. 이는 피눈물의 길을 함께 걷는 청년들의 인정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더우기 명작에서 유격대공작원 조동춘의 선은 정치조직선으로서 가정울타리안에서 맴돌던 주인공의 인정세계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공작원은 어머니가 혁명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주인공에게 폭동이 앞당겨졌고 유격대가 공격하기 전에 성문을 열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는 또한 왜놈장교가 을남이에게 총을 겨누고 공



작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할 때 숨었던 움속에서 나와 왜놈을 처단한다. 그리고 희생된다.

자기 목숨을 바쳐 혁명동지의 아들을 구원하려는 공작원의 동지애와 인간적의리는 주인공의 인정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것처럼 혁명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 각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게 한다. 하여 주인공은 을남이의 원한과 함께 공작원에 대한 동지적의리와 공작원과 아들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성문을 열어 유격대의 성시공격과 전투승리를 보장한다.

이와같이 명작에 형성된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은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본 감정선을 이룬것이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는 사랑선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보다 모성애나 효성같은 혈육간의 사랑을 기본으로 그린것이 특징적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형성된 인정선의 특성은 다음으로 사랑선을 그리는데서도 민족적특성이 나타나고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설정된 복순이와 만춘이의 사랑선에 대한 형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명작에서는 복순이가 어머니를 위해 군수의 집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다고 마음먹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을 때 만춘이의 내면세계를 그림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복순이의 사랑이 식어졌다거나 배반했다고 생각하는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막을 길 없어 모대기는것으로 그려 복순과 그의 어머니의 애달픈 인정세계를 강조하는 보조적역할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속적삼삼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딸이 어느 한 잘사는 집에 1년만 가있으면 시집가서 과부되는 재앙을 면할수 있으며 갈 때에는 자기 손으로 속적삼을 지어입어야 하며 쌀알을 조금 가지고 가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끝이 듣고 복순이 어머니는 속적삼감을 구해다가 복순에게 준다. 이런 때 복순이는 받지 않는다. 그것을 받는다는것은 군수의 집으로 들어가는것을 승인하는것이니 만춘이와의 사랑을 배반할수 없는것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푸념질한다.

복순 어머니: 정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내가 이 속을 태우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게 낫지.

△복순이 어머니 나가려다.

복순: 어머니(속적삼감을 빼앗는다.)

복순이가 어머니로부터 속적삼감을 빼앗자 이번에는 만춘이가 그것을 빼앗는다. 복순이를 군수에게 빼앗길수 없는것이다.

만춘: 아니, 정말 군수놈집에 갈테야?

복순: 날 보구만 그러면 난 어떻게 해?

△복순 울며 적삼감을 빼앗아가지고 나간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감정이다. 그것이 만춘이에 대한 사랑을 앞선것이다.

복순이의 효성은 남편없이 과부로 홀로 살면서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지내온 불쌍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에 대한 보답인것이다. 자기의 사랑을 희생할지언정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할수 없다는 애달픈 효성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 리준과 안해사이의 사랑선도 우여곡절이 아니라 열렬한 애국심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형성되고있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형성된 인정선들에서는 민족성이 뚜렷이 구현됨으로써 명작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미감에 꼭 맞는 형상이 창조될수 있었다. 바로 그러하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농촌혁명화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우리 인민에게 사대는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개인테로가 아니라 평도자의 두리에 전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인정심리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에 결기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인정선들은 민족적특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주체사실주의문학건설에서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작가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보여준 인정선의 민족적특성에 대하여 잘 알고 더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작품창작에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성, 민족성을 확립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조형미가 나는 립체적구성의 매력

— 단편소설 《12월과 12월》을 보고 —

함 정 남

구성능력은 작가의 중요한 자질이다. 특히 높은 형상력을 요구하는 단편소설창작에 있어서 구성을 잘하는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판건적요인의 하나로 된다.

소설이 단조롭게 되였는가, 깊이있게 그려졌는가 하는 논의는 그의 형태상문제가기 전에 구성문제이며 작가의 구성능력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는 그것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엮는것이 중요하다.》

구성을 깊이있게 조직하자면 그것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그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 경험을 우리는 단편소설 《12월과 12월》 [림봉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9(2010)년 10호]의 창작을 통하여 찾아보게 된다.

소설문단에 갓 등장한 신인작가로서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시작부터 대담하게 수령형상작품을 특색있게 내놓아 일정하게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미 발표된 단편소설 《병사의 어머니》도 그러하였지만 《12월과 12월》에서는 보다 더 재치있는 구성조직과 그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상을 시대와 력사속에서 선명하게 부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어려웠던 전후의 그 시기 6만톤이상은 절대로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분괴압연기로 강선의 로동계급이 9만톤의 강편을 생산할것을 결의하고 12만톤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한것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이 고귀한 전통, 이를 이어 오늘의 온갖 난관을 박차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또 하나의 용단을 안으시고 강선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주체97(2008)년 12월 현지지도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오직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무한대의 정신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신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 계시어 주체101(2012)년으로 향한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천명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을 통하여 구현하고있는 이 소설의 형상과제는 위대한 혁명령도의 전통속에서 그를 빛나게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 다시말하여 오늘의 준엄한 정세와 난관속에서 어떤 결심을 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고계시는가 하는 문제의 해명이다.

얼핏 보기에도 단순한 시대적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위대한 령도의 전통속에서 밝혀져야 하는 형상의 생리로 보아 이보다 큰 형식의 소설의 용적으로도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단편소설에서는 이를 옹게 해결하였다.

그 비결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바로 조형미가 나는 립체적인 구성의 탐구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설은 그 형상의 생리로부터 구성에서 선이 굵은 두 갈래의 이야기가 병행교차되면서 작품의 형상과제해명에 이바지되고있다. 즉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령도선과 아버지수령님의 전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령도선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룬다.

그 형상의 분량에 있어서나 심도의 깊이에 있어서 서로 짝지지 않는 두 이야기선에서도 주선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선이다. 이로부터 소설에서는 평범하면서도 긴장한 분과 초로 시작되고 흐르는 우리 장군님의 이른새벽의 리발모습에 대한 혁명일화를 세부묘사로 펼치고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나날속에 새겨지는 아버지수령님의 전후 12월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나가다가 그것을 작품의 마감에서 강선으로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해명하는데로 끌고나가고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전후 12월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선에 대한 형상이 더 많은감을 주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형상의 초점이 오늘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또 하나의 담보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로 지향된다. 결국 소설에서는 모든 형상세계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풍모를 그리는데로 지향되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 소설의 앞부분—리발세부에서 제시된 이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또 하나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모습만을 보여준다. 혹시 작가가 형상의 초점을 놓친것은 아닌지?

하지만 독자들에게는 보인다.

그 또 하나의 담보는 다른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령도의 전통, 혁명과 건설을 백승애로 이끌어온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력사의 전통속에서 다 찾아볼수 있다. 바로 우리 수령님의 전후 12월에서... 따라서 소설에는 력사의 그날에 대한 완결된 이야기가 필요하였던것이다. 작품의 형상생리는 기본이야기보다 다음이야기의 완결미를 더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소설가가 앞의 이야기를 완결시키는데만 급급하였더라면 소설은 령도의 전통문제를 생경하게 그리거나 기본이야기를 상식적인 논리의 이야기로 꾸미었을것이다.

소설은 또한 다음이야기를 설정하고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끌고나가는데만 급급한것이 아니라 전후의 12월에 대한 체험의 시점을 독특하게 탐구하여 구성의 깊이를 보다 조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힘을 넣은것은 작가가 전후 12월의 이야기를 위대한 장군님의 시점에서 펼치면서도 그것을 굴절시키기 위해 보브첸니꼬브라는 외국인을 제3자로 등장시키고 그의 체험을 통하여 전후 우리 나라의 안팎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돌격로를 열어놓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를 반증하게 한것이다.

소설의 다음이야기가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적이야기를 보브첸니꼬브를 통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보여지게 한데 있다.

소설이 다음의 이야기를 조절시켜 보여주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의 시점으로 직접 형상하였더라면 그 이야기가 완결될수 없는것은 물론

이고 사적이야기를 상식적으로나 말로 강조하였을것이다.

보브첸니꼬브의 설정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노린 소설의 구성적효과는 매우 크다.

소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보고문에 제시된 제1차 5개년계획의 과업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이전 쏘련의 흐루쇼브가 이끄는 당의 수정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우리 당대회에 참가하여서도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의 실현여부를 놓고 우려감을 금치 못하는 보브첸니꼬브의 불안한 심정, 그후 그가 이전 쏘련의 강제납입중단조치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위한 경제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강철의 신념을 받아안게 되는 이야기를 생동하게 펼치였다. 이와 함께 인민의 힘과 정신력을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로 믿으시고 우리 로동계급을 강재증산으로 불려일으키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선을 작품의 마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시점으로 직접 그려보임으로써 사연많은 전후 12월의 의미가 깊은 감회로 새겨지는 동시에 기본이야기에서 보여주어야 할 담보문제를 다음이야기에서 힘있게 확인시켰다.

소설은 이처럼 주체45(1956)년 12월과 주체97(2008)년 12월의 이야기를 병행교차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유기적으로 엮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담보,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인민대중의 무한대의 창조력과 정신력에서 찾아내시는 백두산위인들의 걸출한 천품을 조형미가 나는 리듬체적구성으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수령형상단편소설의 품위를 특색있게 살렸으며 그 형상적견인력을 강화하였다.

여기서 이 소설과 함께 이미 나온 작가의 단편소설들에서 보여준 형상적기량과 구성의 솜씨들은 작가의 높은 형상능력을 시사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작품창작에서 큰 기대를 걸고 주시하게 한다.

단편소설의 매력은 성격과 함께 구성의 매력이기도 하다.

## 조선속담

## 주 동

- 기러기떼에도 길잡이가 있다
- 목수가 많으면 집이 기울어진다
- 벌에도 왕벌이 있다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 소가 좋으면 고기가 모여들고 집이 좋으면

- 사람이 모여든다
- 집안의 용마루
- 한집에 감투쟁이(제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 셋이면 변이 난다
- 우물에도 샘구멍이 따로 있다



# 천리마를 탄 처녀

림 봉 철  
그림 김광석

그 처녀는 지붕우에 있었다.

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들려있는 조선식합각지붕우에 강렬한 집초등빛을 등에 지고 서있는 처녀의 자태를 한참만에야 알아볼수 있었다. 옥류교의 긴 란간마다에는 바자를 두른듯 사람들이 촘촘히 들어붙었는데 이따금 이쪽을 향해 야—야—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새로 건설한 요리전문식당과 겹해서 옥류관전체의 불장식시험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처녀의 신호에 따라 수십수백개의 기둥들이 얼음조각처럼 하얗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이 꺼지니 옥류벽이 통채로 불타오르고 추녀끝이 평갯하자 거기서 돌아난 불줄기들이 하늘을 찌르자고 웅쓰며 날아올랐다. 강물이 내리는지 옥류관이 거슬러오르는지 가을바람이 굶노는 수면우에서는 락팡이 부서지며 불놀이를 했다. 빛과 어둠, 상반되는 두 요소의 어울림이 저렇듯 아름답더라란 말인가!...

어느덧 시험을 끝낸 처녀가 사다리를 타고 중간쯤 짚어내려오자 아래에 있던 건설자들이 와 모아 붙어서 그를 사다리채 받아내리었다. 그가 무어라고 야단을 치는지 하하, 허허 패하게 터치는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구울듯 강변으로 퍼져나갔다. 그곳으로 바삐 걸음을 옮기는 속에서도 나는 며칠전 그 처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울상이 되어 하던 말이 생각나 웃음을 머금지 않을수가 없었다.

《소설을 쓰신다구요?! 참, 이걸 어쩌니... 난 정말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모르긴 하겠지만 소설에 나오는 사람쯤 되자면 뭔가 톱 빠져나오는게

있어야겠지요? 현대 난 성격도 그러루하구 일하는 것도 쓸쓸해요. 봉동무 말따나 콩더미속에 콩알이지요 뭐. 그가 누군가요? 아참, 우리 실의 봉동무라고 일명 〈세바퀴〉라고도 불러요. 봉성용, 보라요, 이름자밑에 모두 동그라미가 붙지 않았나요. 그 동무를 쓰세요. 그럼 내가 다 말해줄수 있어요.》

다시 만나는 순간 처녀는 저으기 놀라운듯 약간 클사한 입을 방긋하니 벌리고 《정말 또 오셨나요?》하고 묻는듯 한 눈길로 나를 한참이나 쳐다보는것이였다.

《그래, 또 왔소. 우리 약속하지 않았던가? 나한테 그 봉동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이요.》

그러자 침을 꼴깍 삼킨 처녀는 《어마나, 참말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하고 손뼉까지 딱 마주치고나서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린듯 신이 나서 조알조알 이야기를 펴놓기 시작했다.

1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귀는 커진답니다. 하지만 난 여태 어느 학급에서 몇명을 뽑았대, 추리구 추려서 누구누구 남았대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인적이 없었어요. 난 남보다 특별한 재간을 가진것도 없었구 하물며 어데 뽑히워 다닌적도 없었거든요. 그러게 우리 동무들이 날보고 《배람속의 꽃》이

라고 했지요. 현대 이번만은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나를 찾고 담화를 하고... 하더니만 나중에 배치된 곳이 뭐 직관불장식지도국이라나요.

《원 세상에, 별난 직업도 다 있구나.》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 부름이 퍼그나 정가고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가만히 불러보세요. 불장식! 얼마나 멋있어요. 정서적이구 또 예술적이구... 참, 졸업식날에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구태여 소식들을 알리느라 하지 마시오. 어느 초소에 가든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쳐 알리시오. 소문을 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알려지는 동무들의 주소를 기억하고 내 먼저 편지를 보내겠소.》

그 말씀이 하도 진지해서 우린 주소교환이요, 기념수표요 하던것을 싹 잊어먹고 과연 누가 제일먼저 선생님앞에, 동무들앞에 자기를 알릴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달아올랐답니다.

며칠후 난 첫 출근을 했어요. 현대 겪어보니 불장식연구사가 된다는게 말처럼 그리 쉬운게 아니었어요. 불장식연구사는 말이지요 일반 건축설계쯤은 책읽듯이 줄줄 보아야 하고 광학, 전자공학은 물론 조형예술에도 밝아야 했어요. 한번은 전기장치실험을 하다가 뺨찌와 나사들개를 흘랑 점심밥곽안에 넣어가지 않았겠어요. 그걸 본 어머니는 마침이라고 어디서 얻어들은 소리까지 잔뜩 보태가지고 아버지 들으란듯이 날 공격하겠지요 뭐.

《어이구, 명색이 컴퓨터전문가라는게 꼴은 똥다. 처녀가 뺨찌나 차고다니구. 나도 두루 알아봤는데 너흰 말이 연구사지 한절반 연공맞잡이라더라. 안 그렇겠니, 처마꼭대기, 나무꼭대기 아무튼 매달아야 비치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냐.》

《그게 무슨 소리요?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는 애한테...》

《판게 아니라 저 애가 견디지 못할가봐 그래요. 아 오죽 힘들면 교예단에서두 공중제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영양제를 따로 줄가?》

그러던 어느날, 마침 식수계절이어서 청사주변에 나무심기를 하고있었는데 모를 나누어주던 동무가 우리 신입생들한테 말을 건네더구만요.

《봉성용이라고 하는데 알게 돼서 기쁘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하고 누군가가 말을 받아주자 그 동무는 내가 무슨 하면서 손을 쓱쓱 내젓는게 첫인상에는 참 싹싹하고 겸손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던지 《참, 동무네 소질시험이 있다는 말 들어봤소?》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모두 호기심이 났었어요. 불장식분야에도 무슨 소질시험이 있다니 덮어놓고 무등 반갑더라니깐요. 우리가 응해나오자 그 동문 잠깐 어딜 갔다오더니 종지와 원주필들을 내놓으면서 무엇이든, 글씨 아무거나 좋으니까 써보라는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데 있겠나요. 누가 말하기를 어느 나라 대학입학시험에 둘 더하기 둘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도 풀지 못했더니 이게 꼭 그 격이 아니겠어요. 옆에서는 한 동무가 《그림이나 도형 같은것도 됩니까?》 하고 묻더구만요. 호호호,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워죽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엉터리없는 시험에 다 말려들었겠는지.

그러나저러나간에 시간이 됐다길래 몇자 읊기려니까 이번엔 원주필이 어디 써져야 말이지요. 당황해서 종이장우에다가 바글바글 펜을 굴려보는데 《똥소, 이젠 그만!》 하고 소리를 치더구만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두 동무도 꼭 그 모양이였어요. 아무것이나 써보라는게 결국은 약이 다 빠진 원주필을 쥐여주고는 그에 반응한 흔적을 찾아보자는것이였지요 뭐. 그러면 사람들은 종이우에다가 제나름대로 원주필을 굴려보지 않아요. 열에 아홉은 교수머리를 그리고 나머지는 출렁출렁 물결을 그릴거예요. 나라고 뭐 다들가요. 현대도 그 동문 제일먼저 내 시험지부터 펼쳐보더니만 《동무도 파마머리를 그렸구만. 이젠 2점에 해당되는데...》 하질 않겠어요. 난 그만 얼굴이 화닥닥 붉어져서 몸둘바를 몰라했어요. 다른 동무들도 모두 코구멍들이 벌렁벌렁해서 세상에 이런 엉터리 시험도 있느냐고 대들더구만요.

《엉터리라니, 자기가 통과되지 못한 시험은 문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평가하면야 안되지. 좀 들어보오. 동무들, 불장식이란 빛의 조화요. 그림 빛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가. 그야 두말할것없이 직선이지. 건축가의 설계, 화가의 붓질... 거기에는 곡선도 있고 빗선도 있지만 우리는 빛, 오직 직선만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새로운 미와 정서를 안겨주오. 이 시험의 원리는 바로 그거요. 무의식적인 조건에서 누가 직선을 긋는가, 누가 빛과 그 천성을 같이하는가.》

다른 동무들은 모두 그의 류창한 언변에 훌쩍 빠졌는가본데 나만은 큰 망신이라도 당한것 같아 다시는 저런 심검둥이한테 걸려들지 않으리라고 웅다짐을 하고있었어요. 후에 알고보니 그 동무

역시 군사복무를 마치고 서너달전에 제작실에 배치된 신입생이더군요. 제작실이 뭘하는데냐구요? 그건 설계에 따르는 기구들의 제작과 설치를 맡아 보는 보장부서, 이를테면 조수격이랄가. 그런 걸 글썽 대단한 선배였지요, 호호...

후에 지내놓고보니 참말 그 동무한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시험때처럼 뭔가 엉뚱한것을 자꾸만 생각해내는가 하면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넣고 울리기도 하구 웃기기도 하구... 일을 하면서까지도 쉴새없이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 난 생각했어요. 저 동무의 입술은 아마 봉합한 수술자리같아서 조금만 꼭 다물고있다가는 무럭무럭 새살이 돋아나 철썩 맞붙어버리게 되는 모양이지? 호호호...

하지만 생활은 그렇게 웃음속에만 흘러가지 않았어요. 언젠가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에 펼쳐나서기 위한 군중집회가 열렸을 때였어요. 넓은 **김일성**광장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는데 우린 키가 큰 봉동무의 꿈무늬에 매달려 간신히 그속을 헤쳐가고있었어요. 헌데 어떡하다 그만 앞대렬을 놓쳐버리지 않았겠나요. 다행 커다란 자리배치도 같은것을 들고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봉동무가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은 얼굴도 들지 않고 몹시 서두르는 말투로 묻더군요.

《어느 단체인가?》

《불장식지도국입니다.》

《불... 뭐라구요?!》

그때에야 그 사람은 머리를 들었는데 그건 도대체 뭘 하는데요 하고 묻는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는것이였어요. 그런것을 봉동무가 웃으며 깨우쳐주자 아하 하면서 두루마리종이를 다시 쪽 펼치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한곳을 손끝으로 꼭 짚으며 《그렇지, 여기 있소. 직판불장식지도국, 허허... 이거 미안하게 됐소. 동무들은 저쪽에 가시오!》 하는것이였어요.

그가 가리킨 곳이 어딘가 하니까 종횡으로 맨 꼬트마리였어요. 물론 대중집합장소에서 차례진 자리표가 어느 기관이나 그 단체성원들의 가치를 규정하는것은 아니지만 《방직공장!》, 《326전선공장!...》 하면서 내결을 획획 스쳐 앞으로 나가는 처녀들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지겠지요.

이때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인혜, 인혜야!》 하고 나를 찾았어요. 방금 우리결을 쪽 빠져서 앞으로 나가던 대렬에서 나와 한책상에 앉던 금희가

반갑다고 막 손을 짚는데... 들려오는 소리에 그 앤 어느 현대화조에 망라되어 곧 강선으로 간다더군요. 내 손을 부여잡고는 놓쳤던 새라도 다시 잡은것처럼 기뻐하며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슬그머니 발부리로 가져가는 나의 눈빛에서 무슨 감촉을 받았던지 한결을 비켜서며 물었어요.

《재미가 어때?》

《재미?... 그저 그렇지 뭐.》

《너 이제라도 우리한테 오지 않으련?》

《너희한테?!》

순간 나는 찢리운듯 흠칫 몸을 떨었어요.

《아니! 여기서도 할일은 많아.》

섬섬한 눈빛으로 그럼 또 만나 하고 돌아서는 금희를 바라보면서야 나는 왜 그리 가탈스럽게 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쓸쓸하고 섬섬한 저녁이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인상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는가싶어 더럭 걱정을 앞세웠던 어머니는 말을 다 듣자 글썽 남자들처럼 허허허 웃으시더니 《선군천리마를 타고 혁신을 일으키자는 회의인데 아무렴 공장청년들이 나서기마련이지. 너희네를 내세울가.》 하고 말하는것이였어요. 듣는 순간엔 약이 올랐지만 그날 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얼마쯤은 옳은 말 같았어요.

(그래, 천리마야 직접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거지 뭐. 헌데 참 모를 일이지? 나야 전문교육을 받고 졸업배치로 여기에 왔다치고... 군사복무를 했다는 봉동무는 뭇때문에 여기에 왔을가?!)

그게 아마 우리가 청년동맹 모범초급단체관정을 받을 때였던지... 하루는 초급단체비서동무가 예술소조공연은 뭐 끝에 찍은 떡이라면서 자기가 펼척나는 지도성원을 모셔왔다더군요. 누구였겠어요, 그 봉동무지. 군대때 군무자예술축전에 두번이나 참가했다나요. 참, 세바퀴라더니 빠치지 않는데가 없구나! 공연순서초안을 책상앞에 놓아주자 무슨 군침이 도는 음식상을 마주한것처럼 손바닥을 썹썹 비비면서 아주 맛나게 읽어갔어요.

《〈우리는 천리마라고 달린다〉, 좋구만. 인혜동무, 동무생각엔 어떻소?》

《글썽... 노래는 좋은데 우리와 잘 붙지 않는것 같아서...》

그러자 그 동무의 눈이 떴그르 굴러떨어질듯이 땡그래졌어요.

《전 무슨 소리요?! 그러니 동무생각엔 이 노래

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거요?》…

종당에는 복제창으로 그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난 정말 농장원이 류벌공의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일이 되는가? 연구사라고?!… 여기서 무슨 세계적인 발명이라도 나오는가? 아니면 생산현장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무슨 문제라도 풀고있는가? 제 잘난듯이 팔을 휘휘 내저으며 표정을 쓰는 봉동무, 그래도 동무는 낮붉히지 않고 그 노래를 지휘하는가요? 동무 생각엔 그 천리마라는게 아무나 쉽게 탈수 있는것 같애요? 원, 천만의 말씀… 바로 그 순간 봉동무의 노한 목소리가 나를 정신차리게 했어요.

《인혜동무! 간주를 하는데 혼자 3절을 부르면 어떡하자는거요, 예?》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이 흘러갔어요. 컴퓨터상에 여러가지 가상적인 건물들을 지어놓고 모의불장식을 해보고 또 해보는것이 하루일의 전부였어요. 때마침 인민대학습당 불장식이 시작되어 중진연구사들이 거의다 동원되다보니 연구소안은 빈 건물처럼 조용했어요. 우리 실에도 나 혼자만 남았는데 너렁청한 사무실의 빈 책상 네개를 도맡구서 전화기까지 곁에 끌어다놓고보니 내가 무슨 내부사업이라도 보는것 같은게 우습더구만요.

(참 조용하구나!) 하고 난 기뻐했어요. 하지만 하루이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왜 그런지 쓸쓸하고 홀로 내버려진듯 한 고독감에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퇴근시간이 가까울무렵 드디어 내 방문을(하도 혼자 있다나니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힘차게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있었소?》

봉동무가 웃으며 들어섰어요.

《어마나, 모두 철수했어요?》

《아니.》

《헌데 여긴 어떻게?…》

《동무를 모셔가자구.》

《나를요?!》

《오늘 밤 중간시험이 있소. 그래 기재들을 실으러 왔는데 손이 팔리거든 인혜를 찾아가라고 동무네 실장동지가 귀뜸하더구만.》

《글쎄… 집에서 걱정하지나 않겠는지…》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보며 말은 비록 뜨아하니 했지만 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마 내

속을 뻥뻥 읽었는지 봉동무가 빙글거리며 들고 있던 보온물통을 나한테 척 안겨주더군요. 난 봉동무와 함께 선통구리며 접속구, 측정계기 같은것들을 실은 차에 올랐어요.

보통문을 지나 인민문화궁전앞을 꺾어들어 달리는데 언덕길위로 갑자기 불붙는듯 한 용마루가 쑥 솟아나더니 조가비속같이 하얀 아치들과 그것을 뻗치고 선 기둥들이 일어서듯 우줄우줄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온갖 조명을 받아안은 대형무대막이 서서히 내려오는것 같았어요. 《아!》하는 탄성소리와 함께 가슴이 들레었어요. 저렇듯 아름다운, 저렇듯 장쾌한 광경을 지금까지 어둠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인가!…

우에서 바줄이 내려오자 나는 약속한대로 안고 있던 보온물병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목도리를 벗어 다시한번 꼼꼼히 감싼 다음 한끝을 톱 채서 신호를 보냈어요. 동안이 지나자 우에서 《고-맵-소!》하는 긴 웨침소리가 꼬리를 끌며 내려왔어요. 그건 바로 봉동무의 목소리였어요. 이어 어느 란간에선가 불쑥 나타난 봉동무가 바줄에 몸을 매고 대형시계가 걸려있는 벽면을 따라 풍선처럼 등등 떠오르는것이 보였어요. 그가 지붕위에 올라섰을 때 마침 그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땡-땡- 울려 퍼지고 뒤에는 휘영 보름달이 걸렸어요. 그는 참말 달속에 들어가있는것 같았어요!

《치너는 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가?》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모여선 사람들속에 술이 부르르한 털모자를 쓴 로인이 내게 묻는 말이었어요.

《네, 저도 불장식연구삽니다.》

여기저기서 머리끄덕임, 허차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야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어쩔 내가 그렇게도 스스로없이 저 사람들과 다름바없는 불장식연구사라고 말할수 있었을가.

《자, 그렇게 서서들 구경만 하겠습니까? 저기 차옆에 부리워놓은게 다 불장식에 쓸거라니 달라붙어 제껴들 날라줍시다요.》

큼직한 선통구리를 둘러메고 사람들속을 짹 헤치고 나오던 고깔모자를 쓴 청년이 한마디 선동을 하자 모두가 와- 하며 그리로 몰려갔어요.

《야, 인제는 불장식도 완전히 현대적이다. 전엔 아르곤가스요 하는것들을 유리관속에 불어넣구 글자를 만들어 읍상점관판이랑 써붙이던걸, 웅?》

《아파, 이 어머니가 어디에서 오셨소? 여긴 혁명의 수도 평양이예요. 여기서 태어난 평양문화가

줄을 짝 서서 군으로, 리로 떠나가는게 안 보여요?)

《그래. 보이네, 보여! 호호호...》

그 고깔모자를 쓴 청년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요?

《난 건설자요. 그중에서도 수도건설자지. 그레늘 평양을 건설한다고 자랑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동무와 절반씩 나눠야 할가 보오.》

《무엇을 나하고 나누어요?》

《이들테면 낮평양은 내가 건설하고 밤평양은 동무가 건설한다 그 말ियो.》

아무렴 땀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수고를 나와 비길가요. 한데도 그 동무는 자기들이 하는 일과 못지 않게 나의 수고를 높이 받들어올리는것이었어요. 뒤늦게 내려왔던 우리 실장동지는 사연을 듣자 몹시 감동하여 말했어요.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하오. 사람들은 저 불장식을 보면서 추억과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될게요. 멀리 흘러간 고난에 대하여, 더 좋아질 래일과 그것을 인민앞에 약속하는 당의 목소리를 들을거란 말ियो. 우린 바로 당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여 저 불을 켜는것이요. 알겠소, 인혜동무!》

불을 켜다! 어둠속의 물건처럼 보이지 않던 나 자신의 존재우에도 불이 켜지고있었어요. 내가 나를 보게 하는 밝은 불이 켜지고있었어요. 그날 밤 내가 어떻게 잠들수 있었겠나요. 소년궁전지붕우의 손풍금이 밤새껏 풍짜짜, 풍짜짜 저 혼자 노래부르는걸 봤지요? 내 기분이 꼭 그랬어요. 이름 높은 건축물들마다에 높이 올라서서 단발을 날리며 서있을 내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건 장식가가 아니라 무슨 정복자의 모습같았어요. 자 학급동무들아,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다, 나도 여기 있다고 소리를 낼수 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잔디처럼 연한, 하지만 뾰족한 야심이 푸릇푸릇 돋치고있었어요.

허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어떤 총동이나 반발 같은것은 있었으되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였겠어요?

그때가 바로 2006년 그해도 다 저문 설달이었는데 당중앙위원회에서 한 일군이 내려왔어요. 그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을 맞는 다음해 태양절까지 천리마동상 불장식을 완성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자고 찾아왔다는것이였어요.

그런데 제일 난문제로 되는것은 천리마동상 불

장식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없는것이였어요. 방도는 한가지, 누군가 수십여메터나 된다는 천리마 동상우에 직접 올라가 실측을 하는것인데 그러하니 우리한테 있는 기중기차의 팔길이가 16메터밖에 되지 않아 그야말로 지붕타고 달을 따겠다는 격이였어요. 글썄 천리마동상 옆구리에도 계단 같은게 척척 붙어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무렵 나의 머리속에서는 한가지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고있었어요. 꼭 천리마동상에 올라가 실측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조명기구들을 조명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켜놓는다면, 그래서 탐조등처럼 멀리에서 높은 비침도를 가지고 대상을 비쳐준다면!... 뭔가 될수 있다는 흥분에 머리가 다 땡해왔어요.

조심스럽게 선통을 해본 몇동무에게서 기발한 생각이라는 지지를 받자 힘을 얻은 나는 곧 컴퓨터모의설계에 달라붙었어요. 기본은 천리마동상을 중심으로 모란봉극장과 그 뒤편, 개선문쪽에 세개의 탑신을 세우고 그우에 등기구들을 설치한 다음 대상물을 향해 강력한 빛을 쏘아주는것이였어요.

대체로 반듯한 면을 가진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굴곡이 심한 조형물인것만큼 구조설계나 동력설계 외에도 빛의 세기, 입사각도와 흡수, 반사 등 면밀한 계산을 요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가요? 전지불을 턱밑에 대고 비춰보았나요? 괴물같더라고요, 호호호... 빛의 조화란 그렇게 오묘한것이랍니다.

그 계산을 하느라 꼬박 이틀째 씨루고있는데 하루저녁은 봉동무가 찾아왔겠지요. 와서는 허리춤에서 팔뚝같이 굵은 초대를 연방 대어섯대나 꺼 내놓는것이였어요.

《이건?!...》

책상우에서 밀려난 참고서며 계산지들이 무릎에 쌓이고 가랭이에 불달린 사람처럼 분주탕을 피우며 돌아가는 봉동무의 모습이 눈앞을 어리어리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뭘 한다는거예요?!》

그러거나말거나 책상 한가운데 초불들을 편숙켜놓고 이어 랑쪽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손전지를 꺼내든 봉동무가 그 빛이 허공에서 마추지도록끔 초불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맞세워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전지불의 합치점에 가위주먹을 한 자기의 팔굽을 쫓 들여세우고 의미심장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어요. 그것이 천리마동상을 의



미한다는것을 나는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어요. 그는 바로 내가 설계하는 먼거리투광방식을 자기의 팔과 전지볼로 모형화했던거예요.

《알만하오?》하고 그가 물었어요.

《예, 현대… 이 초불은?!…》

순간 봉동무의 목에서 무엇인가 꿀꺽했어요.

《아직도 모르겠소? 인헤, 이 길은 만수대언 덕길이요!》

그때 비로소 나의 입에서는 《아!》하는 외마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로 경쟁이나 하듯 책상위에 이루어진 두개의 불무리. 먼거리투광방식을 쓰는 경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언덕에 또 하나의 불무리가 생겨나게 된다는것을 난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동무의 방식은 천리마동상 그 하나만을 녀두에 둘 때에는 물론 옳을수도 있소. 하지만 만수대동상 조명에 손상을 주는 그 어떤 기발한 착상이라는데 과연 있을번 한 일이요? 그리구 한가지 충고할게 있는데 인헤, 반발심만으론 아무 일도 못하오!》

나는 얼굴을 싸쥐고 그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시된 착상과 꺾이운 자존심때문이 아니였어요. 순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욕망과 반발심으로 일해온 눈먼 연구사의 무릎끓음이였어요.

다음날 나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접근불장식설계를 정식 나한테 맡기고 봉동무가 그 설계를 위한 실측 자료를 얻기 위해 천리마동상위에 올라간다는 것이였어요.

그는 16미터 기중기팔에 바구니를 달고 그우에서 접이식사다리를 뽑아세운 다음 수십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는 바줄을 걸어 천리마동상위에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는 동상이 선 후 처음으로 그우에 올라간 사람이였어요!

그렇게 얻은 실측자료들과 지어 땅우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귀중한 세부요소들까지 사진에 담은 봉동무가 다시 내앞에 나타났을 때… 밤나무를 털어주고 내려오는 손우 오빠처럼 혼연스레 버죽거리며 다가오는 그를 보자 난 정말 머리를 들수 없었어요. 그러한 실측은 설계가가 직접 하는것이 원칙인데 난 그러지 못했거던요. 나약해서, 늙어빠져서, 아직도 빠람속에 숨어서!…

며칠후 다른 연구사들의 설계안과 함께 접근방식으로 새롭게 짠 나의 설계안이 완성되었어요. 천리마의 발굽밑에 동상의 굴곡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각이한 비침도를 가진 등기구들을 여러개씩 얹혀주고 요소요소에 각종 기구들을 설치하는 그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설계안이였어요.

그 설계안이 최종심의를 거쳐 정식 천리마동상 불장식설계안으로 채택되던 날, 때아닌 겨울비가 내리는 저녁이였어요. 하루종일 떠들썩한 축하와 박수속에 골이 땡하도록 복이운 나는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문을 안으로 잠그고 조용히 앉아있었어요. 가슴에 슬며시 손엎어보았어요. 그러자 이며칠새에 도무지 크립단지만 하던 심장이 커지고 커져서 그 요란한 진동에 그만 흥벽이 놀라 문풍지처럼 부릉부릉 떨리고있는것 같았어요. 달아오른 두볼을 책상위에 대이니 언젠가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파라핀냄새가 모락모락 가슴에 스며드는것 같았어요.

(야, 초냄새는 정말 좋구나. … 그런데 내가 어째서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걸까?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있는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며 일어섰는데 이게 뭐예요, 글썽 《똑똑똑.》하고 정말 나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겠지요. 바로 그였어요. 그가 웃으니 약간 들릴사한 눈귀가 아주 곤두박치는것 같았어요.

《처녀가 홀로 있는것은 단들이 있고싶어 홀로 있는거다. … 내 말이 맞소?》

《에이, 동문 정말!…》

이렇게 웃기고난 그가 처음과는 달리 퍼그나 진중한 어조로 나를 불렀어요.

《인헤동무, 함께 걷지 않겠소?》

함께 걷자구?! 그래서 찾아왔단 말이지? 어마나, 그럼 얼른 《좋아요.》하고 대답을 할까? 아니, 뭐 그렇게 쉽게?... 바재이던 내가 드디어 용단을 내리고 막 입을 열려는데… 잠깐!

×

처녀의 손전화기에서 호출신호가 연거퍼 울려온것은 바로 그 순간이였다. 착신자의 번호를 살펴보는 처녀의 눈빛이 반짝하더니 《어마나, 봉동무예요. 회령에서 걸어오는 전화예요!》하고 반갑게 말하였다.

《…중간시험을 끝냈다고요? 우린 오늘 총시험을 진행했어요. …좋아요! 그럼 회령관 불장식과 옥류관로리전문식당 불장식이 어느게 더 멋있나 경쟁해보자요, 호호… 참, 내가 지금 무슨 애

기를 하겠는가 하면…» 하고는 승인을 바라는듯 내쪽을 쳐다보는 처녀에게 나는 그러지 말라고 황황히 손짓을 했다. 그때 마침 휴식이 끝났는지 저쪽에서 처녀를 부르는 소리가 연거퍼 들려와서 나는 아쉬운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밤도 어지간하거니와 이제 또 그들의 귀한 시간을 베어낼수는 없었던것이다.

이튿날, 처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 2

《좋아요, 한테 한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내가 동무를 집에까지 바래주겠어요.》

《영?! 이거 누굴 떠보는거요?》

《싫으면 그만뒀요.》

《허허, 이것 봐라. 좋소, 이 봉성용이 오늘 아니면 언제 또 그런 호강을 해보겠나. 어서 가요!》

그들은 나란히 밤거리에 나섰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밤, 증기발처럼 뽕얇게 내리는 부슬비가 뽕이며 옷자락을 적서주는 밤이었지만 만개의 별과 백개의 달이 걸린것보다 더 밝고 아름답고 설레이는 밤이었다. 인혜의 깊이 내려간 속눈썹사이로는 비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봉성용의 구두코숭이가 우뚝우뚝 하며 걸음길을 짚어가는 모양만이 우습강스럽게 보였다. 사내가 처녀의 바래움을 받으며 밤길을 걷고있다는 어색한 생각때문에서인지 봉성용의 걸음새는 몹시 부자연스러워보였다.

《내 동무의 첫번째 설제안을 반대한 또 한가지의 이유를 말해달라우?》

발부리에만 줄창 가있던 인혜의 눈이 울통해졌다. 하필이면 이런 때 반대요, 리유요 하는 뽕죽한 말부터 꺼내놓을건 뭔가 하는 눈빛이었다.

《네, 말해보세요.》

《천리마동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대돌이 높은것ियो. 그건 천리마가 하늘을 날고있다는 직관적인 표상을 주기 위한것인데 우리가 잘만 타산하면 밤에는 그 대돌이 아예 보이지 않게도 할수 있지 않겠소. 천리마가 정말 하늘에 등실 떠있는것처럼. 헌데 동무의 첫 설제대로 하면 빛반사율이 높은 화강석대돌이 동상보다 더 하얗게 살아나 그건 물론 기본형상에서까지 손해를 볼수 있거던.》

인혜는 저으기 새삼스러운 눈길로 성용을 다시 쳐다보았다. 언제봐야 힘든 일을 도맡아하며 늘 바쁘게 지내고있는 이 제대군인청년이 언제, 어떻게 저리도 해맑은 지식이 물솟듯 흘러나오도록 자신을 준비했던 말인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지나서 만수교를 건너섰을 때 인혜가 불현듯 목도리속에 깊이 묻었던 턱을 뽑으며 《나도 하나 물어보랴요?》 하고 입김을 피워올렸다.

《물어보요.》

《저… 동문 어떻게 불장식을 하게 됐어요?》

《오, 그거… 말하자면 좀 긴데. 우선 우리 집안의 래력이 그렇소. 모두 불과 인연을 맺고있지.》 하면서 성용은 멀리 밤하늘가를 가리켜보였다. 거기에는 화력발전소의 높은 굴뚝이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보였다.

《아버지와 두 형님이 저밑에서 일하시오.》

《?!…》

《지금시간은 아버지와 둘째형님의 교대시간인데… 언제 한번 집안식구가 밥상결에 다 둘러앉기가 힘들지. 하지만 일단 모여앉으면 정말 재미난게 우리 집ियो. 구분이 명백한데 이를테면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관계요. 아버지는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이 나라의 불을 도맡은셈이다, 막내 너는 특히 명심할것이… 하면 나는 예예, 불이란것은 돈처럼 아껴쓰고 피처럼 순환해야 하느니 하고 수십번도 더 외웠을 아버지의 훈시를 곱씹어바치지.》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인혜로 하여금 그 집식구들과 더우기는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한 성용에 대한 존경심으로 마음이 설레이게 했다.

《고난의 행군시기 전연에서 복무한 우리 만형님의 부대에 하루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셨다오. 그날 중대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실 때 합창으로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를 불렀는데 모두 울었다누만. 장군님께서도 평양이 그립소? 나도 그립구만, 이제는 평양에서 잠을 자본지가 정말 아득해 하시며 함께 눈굽을 적시시였다오. 그러시면서 그 노래가 나올 때만 하여도 우리 평양의 밤은 정말 지새게 걷고싶도록 아름다웠다고, 언젠가는 우리 평양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불경치를 꼭 펼치게 될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다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미제는 인공지구위성을 동원하여 날마다 평양의 밤거리들

촬영하고서는 그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보라, 평양의 불빛은 사그러지고있다, 드디어 반디불이 되었다, 그마저 죽고 조선이란 이름도 영영 캄캄해지고말것이다 하고 떠벌어댔다오. 제대명령을 받은 형님은 화력발전소로 자진했소. 이렇게 둘째형님도 왔고… 나 또한 평양의 밤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할가. …》

잠간 말을 끊었던 성용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나서 《다요.》하고 덧붙였다.

어느새 비는 멎었다. 그들도 멈춰섰다. 멈춰선 바로 그앞, 밝고 눈부신 빛이 짝 들어찬 긴 유리진열장속에 분홍빛고름을 단 치마저고리가 번듯이 걸려있었다. 아래층에 조선옷점이 있다는, 그러니 성용이 사는 집밑에 다달은것이다.

《다 왔소. 우리 집은… 참 가깝소.》

어딘가 동이 닿지 않는 중얼거림이었다.

《헌데… 제길할, 어디 발길이 떨어져야 말이지. 내 다시 바래달라오?》

《아니요, 우린 약속하잖았나요. 안녕히…》

《잘 가요!》

인혜는 돌아섰다. 걸어갔다. 또각또각 가락맞게 들려오던 발자욱소리가 돌연 멎어서더니 인혜의 하얀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봉동무, 동무한테… 약속할게 있어요. 천리마동상 불장식이 시작되면 그땐 나도 거기에 올라가고야말테예요, 꼭!》

이어 땀처럼 돌아선 인혜는 가락이 형클어진 다급한 발자욱소리를 이끌고 저기로, 멀리로 숨가쁘게 달려버렸다.

### 3

《참, 내가 어디까지 말했던가요?》

《동무의 설계안이 통과되던 그날… 비가 왔다고 했지.》

나는 벌써 네번째로 만나보는 이 처녀에게서 이름할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있었다. 슬쩍 장갑을 벗어 깔고앉자 드러나보이는 몽토룩한 손도, 처음 만났을 땐 클사해보였던 입모양새도 더할나위없이 그에겐 알맞고 친근해보였다.

처녀는 말하기를 그날밤 성용이와 헤어져 집까지 내쳐 달려왔을 때 그가 좋아하는 설기떡까지 오른 저녁상우에 보를 썬놓고 거의 눈이 빠지게 되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텅기듯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다는것이였다.

《네 설계가 통과됐는지? 정말 용타, 용해!》

《어떻게 벌써 아셨어요?》

《웬 총각한테서 전화가 왔더구나. 네 조수라면서… 어유, 엉큼하기두… 뻔찌만 차고다니는줄 알았더니 글썽 총각조수까지 척 차구, 호호…》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란데두요.》

아무리 설명하려 해야 그게 더 재미나서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눈들을 감추고 웃어대는것을 어찌랴. 거괴 두잔을 쭉 따른 아버지는 속에서 끓던 딸에 대한 더없는 궁지가 등등 북받친듯 입귀를 씻으며 토정했다.

《여보, 당신 말을 좇았더라면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들번일랑 했겠소. 난 막 자랑하고싶구려. 이보소, 저 불을 뉘가 켜는지 아소? 내 딸 인혜라요! 허허…》

…이렇게 한동안 집안사말사를 이야기하던 처녀가 불쭉 품속에서 종이로 감싼것을 꺼내놓으며 내쪽을 건네보았다.

《내가 사진을 몇장 가져왔어요.》

《사진을?!》

펼쳐보니 그것은 모두 천리마동상우에서 찍은것들이었다. 땅우에서 볼 때는 날씬해보이던 말발굽이 사진으로 보니 곁에 붙어선 사람의 동허리나 어금지금한게 아주 요란했다. 거기에 팔뚝같이 굵은 바줄을 칭칭 동이고 그 뿌리에 의지해서 저마끔 안전바를 뺐은 여러명의 사람들이 고함치며 내려다보는 각이한 자세로 인화지에 고착되어있었다. 몇장만에는 천리마의 날개우에서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서있는 인혜의 모습도 나타났다. 그 뒤쪽 꼬리어방에 뒤통수만 조금 찍혀있는 사나이를 꼭 짚어보이며 《이게 그 봉동무예요.》하고 처녀는 눈웃음을 지었다.

《이걸 보고야 어디 알수가 있나. 왜 바로 찍힌 사진은 없소?》

《이것도 실장동지가 찍어주었으니 말이지… 제가 뭐 력사기록가나 된것처럼 노상 사진기를 목에 걸고 다녔는걸요 뭐. 그래 몇번은 톡톡 쫓기까지 했더니가요.》

《여하튼 동문 천리마동상우에 올라갔구만. 첫녀성으로서 말이요.》

그러자 눈매가 순한 이 처녀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면서 《잘못 알고계세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더랬는데…》하면서 깊은 회억에 잠겨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본격적인 불장식전투를 앞두고 천리마동상우에 올라가려는 나의 결심을 말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더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낯빛이 좀 심했어했는데 아버지의 내용 있는 기침소리가 한번 덜컥 하자 괜히 손등을 박박 긁으면서 《난 애 하는 일에 걱정은 했을망정 반대한적은 없수다.》 이러잖겠어요. 외려 우리 실장동지랑 심각한 상이 돼가지고 턱밑을 붙이 나게 쏘고 만지다가 끝내는 전투조명단에 내 이름도 올렸어요.

개체준비며 기자재상태를 재삼 확인하고 차에 오른 우리가 금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대형기중기차가 정문을 짹 메우며 들어서겠지요. 그 요란한 체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들속으로 언젠가 당중앙위원회에서 내려왔던 그 일군이 들어서며 하는 말이 글썽 우리가 애를 먹고있는것을 헤아려 장군님께서 대형기중기차를 보내주셨답니다.

천리마동상우에 올라가게 된 첫조는 나와 봉동무였어요. 랑요구리에서 둥그런 발통 네개를 뽑아 땅을 든든히 짚고 선 차가 봉-썩-기운을 둔 구다가 흠칫 팔을 쳐들자 다리가 부르르 떨리고 귀안이 웅웅 울기 시작했어요. 덩달아 부는 바람에 절레절레 흔들리는 바구니안에서 내려다보니 그렇게도 커보이던 차가 딱장벌레만큼이나 작아보이는데 움쉴움쉴 뽑아져올라오는 끝모를 기다란 팔때문에 분명코 중심을 잃고 도리깨처럼 동태이 쳐질것만 같았어요. 으... 하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등이 터져나가게 틀어잡은 가느다란 바구니틀은 수수대처럼 폭석폭석하게 느껴졌어요.

《인혜동무! 눈을 감으면 안돼. 멀리를 봐!》

하지만 몇십톤짜리 철문을 들어올린들 그때 다시 눈을 뜨는것만큼이야 힘들었겠나요.

기중기차운전사가 나를 위해 줄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모험을 부려 바구니를 날개로부터 두 뿔안에 가져다대주었지만 한다리를 겨우 틀박으로 내보낸 나는 더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야!...》 하는 왕청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이미 천리마의 날개우에 넙적 엮드려있는데 내 허리에 매여있던 안전띠를 벗겨 바구니안에 던져넣던 봉동무가 보다못해 하는 말이 이게 웬 겁쟁이냐고 천리마가 웃겠나.

《너자가... 그럴수 있지. 동무도... 애기팬...》

《그 말은 옳소. 하지만 너자가 돼서 그런다는 말은 틀렸소. 좀 보오. 여기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떻게 앉아있나.》

다음순간 나는 자기가 일어섰다는것을, 그것도 단숨에 일어섰다는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어요. 아, 얼마나 장쾌한 광경이 펼쳐져있겠나요. 눈앞에 벼단이 보였어요. 치마자락이 보였어요. 금시 이슬젖은듯 한 팔소매와 그 다음은... 창조하는 인민, 투쟁하고 혁신하는 조선녀성을 대표하듯 당당히 앉아있는 너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듯 놀라왔고 다시 볼수록 새삼스러웠어요. 《어마나!》 하는 내 목소리가 모아쥔 두손밑에서 가슴을 파고 흘러나온것 같았어요.

《나와 같은 처녀네!》

《뭘 보고 처녀가 하오?》

《봐요. 나처럼 단발을 한걸.》

《허허, 빨간 안경을 끼고 보니 하늘도 빨갳다는 격이군. 저 튼튼한 어깨랑 눈매를 좀 보지. 틀림없이 한창 삼십대의 녀성이야.》

작업장갑으로 코밀을 꼭꼭 짊으며 하는 봉동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것 같았지만 여하튼 천리마우에 앉은 녀성의 모습이 나에게 큰 충격을 준것만은 틀림없었어요.

(언니! 난 김인혜라고 해요. 아쉽긴 해도 순서로 따지면 언니가 첫번째, 내가 두번째지요? 맞지요?)

이렇게 시작된 천리마동상 불장식은 그 첫날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어요. 지나가던 시내빠스들도 천리마동상밑을 지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차창에 흰 꽃잎처럼 널린 손들이 우리를 향해 반가웁게 흔들리는가 하면 평양시내에 사는 옛 천리마기수들이 그쫘한 중창단을 무어가지고 달려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종일 방송선전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중창단이 간단칠 않아서 한번 입을 떼자 거퍼 여덟곡이나 부르는것이 모두 천리마와 련관된 노래들이었는데 야, 난 정말 놀랐어요. 우리 나라에는 천리마의 노래가 많기도 하구나!

하루밤은요, 도르래를 타고 올라온 늦은 저녁식사를 간단히 끝내놓고 또 한차례의 작업을 하고난 뒤였으니까 자정이 썩 지났던것 같은데 눈치장을 두렵게 한 살구나무들이 쭉 늘어선 길에 등골은 백발의 로인 한분이 나타났어요. 그밤의 마지막시내빠스가 잠취한 경적소리를 울리며 언덕을 넘어가도록 그냥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

커보는것이 이상스러워서 봉동무의 옷깃을 잡아흔들었어요.

《누굴가요?》

《글쎄...》

동력선을 새로 늘이는 작업을 끝내놓고 다시 내려다보았을 때 그땐 아예 교통보안원처럼 차도로 한복판에 똑 뻗치고 선 로인이 직심스레 내려비치는 가로등빛에 물들어있는것 같았어요.

《혹시 이 천리마동상을 건설한 설계가일지도 몰라요.》

《무슨, 내 보기엔 시인갈구만 뭐. 보라구. 흥분해서 막 왔다갔다 하는걸.》

봉동무의 반박이었어요. 참 이상해요. 우린 무슨 문제에서나 이렇게 꼭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고 너니 나니 하기가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성격이 활발한 충실이가 말하기를 (그 앤 우리 전투조의 식사보장을 위해 현장에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가끔 혀를 깨문다잖나요.》 하겠지요. 내가 큰일난것처럼 야단하며 다시는 그런 말말라고 침을 뱉지만서도 고것 알겠다, 알겠어 하면서 썰썰썰썰하는것이 얼마나 꼬집어주고싶던지.

며칠이 지나자 식사때마다 도르래를 타고 올라오는 바구니안에 우편주머니라는것이 생겨났어요. 처음 그것은 탑우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사람들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인데 날이 갈에 따라 본래의 의미는 희박해지고 사나흘 못가서 당장 아구리가 터져나가게 되었어요.

강선에서, 라남에서, 무산과 검덕에서 반폐지짜리 편지로부터 열폐지가 넘는 소של같은 편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축하와 고무와 결의의 편지들이 날아왔겠나요. 개중에는 《평양-천리마동상앞》라고 쓴 엉터리주소도 있었는데 우스운것은 그 편지 역시 아무러한 곡절도 에누리도 없이 바로 우리에게 정확히 와닿은것이예요. 정말이지 우린 그때 일생에 받을 편지란 편지는 다 받은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말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리마동상우에 단발머리쳐너도 있다는것이 희한해서 줄줄이 올라오는 편지들중 거의 절반이 나에게 보내온것이였어요. 천리마동상 불장식을 사진에 담아 보내달라는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부탁을 받은 봉동무가 사진기를 목에 걸고다니기 시작한것도 그때부터였는데 우편책임자까지 겸한 그 동무는 내게 온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늘 귀부리

를 자근자근 매만지며 싱겁게 굴었어요.

《이것 봐, 온통 천리마를 탄 처녀를 찾는 편지뿐인걸. 정말 부러운데, 동문 벌써 유명한 사람이 됐다니까.》

유명한 사람? 내가?!... 하기는 온 나라 곳곳에서 보내여오는 그 살뜰하고 지어 우습기도 한 《용감한 처녀동무에게...》, 《연구사선생...》, 《...나는 무작정 언니라고 불러요.》 하는 편지들을 읽노라면 절로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어 남몰래 속삭이기도 했답니다.

(언니! 언니는 다 알고있겠지요? 우리 처녀들중 누가 진짜 천리마를 탈 자격이 있는지. 한데도 온 나라에 소문난 처녀들이, 총대처녀, 비단처녀, 준마처녀들이 보내오는 편지마다 나를 불러 천리마 처녀라고... 부럽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마다 후끈히 달아오르던 가슴속에 큰 힘이 채워졌다고 할지... 무섭게 일손을 다그친 우리는 단 하루동안에 사흘을 예견했던 고정틀설치를 끝내고 탑신 옷도리를 《口》자로 든든히 둘러감음으로써 등기구들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할수 있게 한 외에도 사무실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착상들을 현실화하여 기존의 시간, 로력타산을 모두 뒤집기 시작했어요. 종래 한가지 안만으로 되어있던 등기구설치안도 3안, 4안으로 까지 개안되어 첫 시험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긴장한 작업이 이어졌어요.

그해파라 날씨는 왜 그리 춥던지... 겨울 한철은 주로 개선문쪽에서 올리분다는 대소한바람이 그야말로 양양 소리를 지르며 날아든다는데 그속에서 며칠씩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투를 벌리다니 선채로 졸다못해 눈을 뜨고도 술을 마신것처럼 허청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대로 내려와 휴식을 할것!》라고 쓴 쪽지가 매일아침 매달려 올라오는 바구니를 넘겨다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계획보다 옛새나 앞당겨 첫 불장식시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력선 전원-투입!》

설설 끓는듯 한 우리 실장동지의 거세인 목소리와 함께 틀어진 붉은 수기가 허공을 북 그으며 떨어지자 캄캄한 하늘에 통구멍을 뚫으며 수십개의 불줄기들이 황황 뿔어져올랐어요. 천리마의 역세인 동가슴과 구름을 박차오르는 발굽이 허공에 등실 뜨고 로동자기수의 손에 높이 들린 당중앙위원회 붉은편지가 번뜩 빛반사를 일으켰어요. 그

것은... 말그대로 불타오르고있었어요. 보라, 님아라, 이렇게 불타라고 웨치는것 같았어요.

《만세!—》

때아닌 밤중에 서로들 부둥켜안고 입술이 퍼래서 웨쳐대는 우리들의 목메인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저아래 만두를 빚다말고 가루범벅이 된 두손을 마구 휘저으며 달려나와서는 왜서인지 안경을 벗어 닦고있는 당비서동지를 부여잡은채 너무 기뻐 퉁퉁뚫히는 취사원 충실이의 모습을 누가 기억할까요?

결에서는 봉동무가 신이 나서 고향지르고있었어요.

《저거! 저게 우리 집이요. 우리 집!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창문이 보이시? 이자 방금 누군가 부엌에서 얼른했소. 분명 어머니요!》

정말 보이던가구요? 호호, 그런게 보일거나 뭐예요. 하지만 첫 시험의 걱정이 그냥 북받치고 그 동무가 하도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기에 난 그만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다 맞구 다 옳다구 계속계속 끄덕거리고말았지요 뭐.

명절같은 그밤 어디선가 자르릉 하모니카소리가 울렸어요. 둘러보니 봉동무가 어디서 얻어왔는지 번쩍거리는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나 보란듯이 음계를 훑어내리겠지요.

《야! 그 하모니카 어디서 났어요?》

《응, 내 어제밤 꿈을 꾸었는데 말ियो. 오늘 담당설계가인 인혜동무를 어떻게 축하해줄까 생각중인데 어디선가 <성웅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볼지어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소. 깜짝 놀라 머리를 들어보니 천리마우에 앉은 로동자기수가 날 부르더라 말ियो. 뭐 내가 해주는 축하가 동무한테 제일 기쁘고 큰 힘이 될거라나. 그래 럽치 불문하고 그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쑥 밀어넣었더니 척 잡혀올라오는것이 뭇겠소. 바로 이 하모니카더라 그 말ियो.》

얼마나 엉터린가 보세요. 하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만은 읽혀와서 주저없이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이》를 듣고싶다고 그랬지요 뭐. 맑으면서도 어디엔가 쓸리는듯 한, 봉동무가 불을 불구었다 줄구었다 할 때마다 더더욱 살아나는 하모니카소리가 고즈넉한 밤을 타고 모란봉숲갯으로 젖어들었어요.

고요한 강물우에 불빛이 흐르네  
못 잇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

후더운 가슴에서 뿜어져나오는 입김을 날리며 노래를 부르노라니 왜서인지 코마루가 찡해오겠지요.

하모니카를 부는 봉동무를 바라보던 나는 언젠가 들은 얘기가 생각나 말했어요.

《그때... 놈들이 우리 평양을 반디불이라고 했대지요. 그러니 누구보다 그놈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이 불빛을 보느냐?!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떠섰다!... 하고 말ियो.》

아마도 그때 내 목소리가 퍼그나 감정적이었나 봐요. 잔뜩 지치고 앉아있던 봉동무가 어지간히 놀라서 무릎걸음으로 내게 다가왔을 땐 말ियो.

《우리 할머니 말ियो. 날 교양할 때마다 늘 우린 너희때... 하고 말을 시작하군 했어요. 그래서 난 할머니가 그 말을 떼기만 하면 수심번이고 들은 이야기들을 죄다 외워댈수 있었어요.》

《새삼스레 그런 말은 왜 하는거요?》

《우리한테도 먼 후날 <우린 너희때...> 하고 말할만 한 일들이 생길가요?》

《허허, 처녀가 벌써부터 할머니될 걱정이네.》

웁쪽 무릎을 세우고 일어난 그가 말했어요.

《저기 인민문화궁전이랑 평양대극장, 개선문... 그게 모두 우릴 기다리고있소. 동무가 걱정하는 먼 후날 <우린 너희때...> 하고 말할 일들이 가득가득 쌓였던 말ियो, 쌓였지!》

확인하는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뚜렷했어요.

《봉동무, 저기 보통강반에 일떠서고있는 호텔건설도 끝나면 우리가 불장식을 맡게 되겠지요?》

《그럼. 헌데 왜, 거기다 올라가고싶소?》

《그래요. 왜서인지 난 성차지 않아요. 좀더, 더 높이 올라가고싶어요. 우리 평양의 밤을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참말!...》

눈을 감으니 내가 자그마한 위성처럼 하늘에 둥둥 떠서 인민대학습당, 천리마동상, 우리 집우로 막 떠가는것 같겠지요. 그때 문득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어 눈이 번쩍 떠졌어요.

《봉동무, 앞으로 설계되는 모든 불장식들을 하나의 관리체제로 묶어서 조종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것 같어요?》

《조종프로그램을?!》

《그래요. 그렇게만 되면 평양 시내 불장식이 다양화되고 일체화된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될거란 말ियो.》

《또 전기도 절약하구! 이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항목이요.》

웃을 겨를도 없었어요. 술한 부호와 수혈들이 눈앞으로 병긱병긱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 세운단.

《종이! 아무 종이나 좀 없어요?》

《종이?!...》

두리번거리던 봉동무가 갑자기 제 팔을 쑥 걷어 붙이겠지요.

《자, 여기다 쓰요.》

목구멍이 쿵 해왔지만 차마 그러자고 접어들수는 없어 내 팔을 먼저 걷어올렸어요. 더 박아쓸 자리가 없게 되자 미안스레 봉동무를 쳐다보는데 그 동문 픽 웃으면서 《그럼 제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하고 든든한 팔뚝을 내게 척 맡기겠지요. 어릴적 서로의 팔목에 시계를 그려주는 놀음을 하던 때처럼...

충실이가 올려보낸 더운 술잎차까지 한고뿌씩 쪽 마시자 만시름이 놓이는듯 날개우에 벌렁 드러누운 봉동무는 당장에 코를 때릉때릉 끌며 잠들어 버렸어요. 턱밑에 손을 고인채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이 그 모양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그밤에야 나는 사나이의 코고는 소리에도 그렇듯 이름 못할 정서가 있는줄을 처음 느꼈어요.

다음날... 동녘이 갓 들리기 시작한 새벽이었는데 벌써 바구니가 올라왔어요. 신문지만큼이나 커다란 연락쭉지가 틀에 매여있었는데 뭐 그리 급하게 갈겨 썼는지 《모두 내려올것!》 하고 몽땅 넘어진 일곱자가 전부였어요.

급히 내려갔을 때 당비서동지가 전해주기를 지난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기 천리마동상밑에 차를 멈추시고 우리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셨다는 게 아니겠나요. 며칠동안 지방에 나가있다가 평양에 들어서는 길로 밤길도록 일하는 사람들부터 보게 되니 정말 반갑다고, 마음갈아서는 밤새 동무라도 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글썄...

《...이제 보라고, 천리마동상에 불이 켜지는 날에 무슨 변이 나는가를 다들 보라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떠나시던 차를 문득 멈추시고 차창을 내리우신 장군님께서 여기가 바람꽃이지, 아무래도 저 동무들에게 솜옷과 솜신발을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최전연병사들의 솜옷처럼 두툼하게 지어주어야 한다고... 꼭진히 이리시었습니다.》

함박눈이 내리고있었어요. 솜옷처럼 두툼하게

땅을 덮고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목메이는 소리를 들으며 난 막 심장이 졸아드는것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어요. 봉동무의 짓속인 얼굴에서도 그냥 번뜩이며 흘러내리는것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우리 천리마동상 불장식이 더욱더 유명해졌던가봐요. 하루는 아침작업조직이 끝나자 좀해 웃지 않던 실장동지가 싱글거리며 알려주기를 점심때쯤 우리 담임선생님이 오시겠다구 연락이 왔다는거예요.

《실장동지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허, 나도 그 선생님의 제자요.》

《어마나...》

그날은 정말 굉장했어요. 마침 그 유명한 봉동무네 불과 관련된 부자들이 전체 발전소로동계급들을 대표하여 나타났는가 하면 약속한 점심무렵 찾아온 선생님이 전해준것은 바로 내 동무 금희의 편지였어요.

《...인헤, 너야말로 지금 얼마나 장하고 큰일을 하고있는것이나. 넌 다는 모를거다. 지금 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천리마의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을 불러오고있는지.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갔던 로설계가가 얼마전 평양 딸네 집에 갔다가 아주 탄 사람이 돼서 나타났단다. 오자바람 당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 로설계가가 한 말이 뭘지 아니?

〈...난 천리마동상밑에서 꼬박 밤을 새웠수다. 장군님께서 천리마동상에 불을 환히 켜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았지요. 그게 뭐 단지 밤경치를 내자고 하신 말씀이겠소. 우리 천리마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심장에 불을 달라는 그 뜻이 아니겠는가 말이요. 낮에만 보이는 천리마가 아니라 밤에도 보이는 천리마가 되었으니 그건 바로 인생의 어느 아침이나 중낮에만이 아니라 바람불고 해떨어지는 저물녘이라도 변함없이 불을 달고 빛을 안고 살라는 간곡한 가르치심이 아니겠소. 그런데 나로 말하면... 그렇소, 나에게 일감을 주시오!〉 ...》

솔직히 난 천리마동상에 불장식을 한다는 우리로선 그렇듯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동상을 처음 세우던 그때와도 같은 비상한 충격으로 천리마시대 사람들과 또 그 후손들의 가슴을 그렇듯 뚫어오르게 할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야 비로소 천리마동상에 불을 켜는것이 비단 우리들만의 사업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사업이며 의지이며 동시에 자기자신들에게까지 불을 다는 하나의 정신적

비약이라는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길래 2007년 뜻깊은 설명절도 천리마동상우에서 맞던 날 나는 흥분을 누를길 없어 이렇게 진정을 터놓았던거예요.

(언니! 이제 나도 알겠어요. 내가 결코 두번째 사람이 아니라는걸. 우리 부모, 오빠, 언니들, 정다운 나의 동무들이 수천수만이나 언니의 곁에 있고 이제야 겨우 그들처럼 살리라고 달리기 시작한 나야말로 맨 마지막사람이었어요. 내가 몇번째인지 이제 정말 그에는 개의치 않아요. 이 흐름속에 나도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나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답니다. 언니…)

그때로부터 얼마후, 우리는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천리마동상 불장식을 훌륭하게 완성했어요. 완성된 불장식을 또다시 장군님께서 보아주셨다는 소식에 온 연구소가 끓던 어느날 나는 놀랍게도 내 이름을 3대혁명붉은기청호정취를 위한 영예등록장에 올린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아무렴 그럴수가 있을까요? 놀람보다도 겁이 덜컥 나서 당비서동지를 찾아갔어요. 들으니 더 엄청난것이 글썄 《천리마처녀》, 뭐 이런 제목을 책 달구 사진까지 받쳐서 이름을 낸다나요. 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철부지였고 또 지금도 별반 나은것이 없는 보통처녀인가를. 한데 내 말이 재미있는듯 한참동안이나 들어주던 비서동지가 하는 말이 정말 놀라왔어요.

《천리마동상우에 올라갔다고 천리마처녀가 되는가? 그 말이 옳소. 하지만 우리가 동무를 내세우는것은 단지 어린 처녀의 몸으로 천리마동상우에서 일을 했다는 그뿐만이 아니요. 그 나날에 동무는 불장식연구사라는 자기 임무의 영예를 체득하였고 우리 식의 불장식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당앞에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하였소. 그뿐인가, 평양시불장식들에 대한 종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번 과학기술축전에도 내놓았지.

인혜동무, 선군천리마는 오늘에 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반드시 타고 내달려야 할 시대의 준마요. 건설장이든 용해장이든 그 어디에서 일하든 말이요. 값높은 위훈은 직업이 주는것이 아니라 시대가 주고있소. 그렇소, 동무는 자기가 달라졌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달라진것이 없다면 우리가 동무의 이름을 천리마와 나란히 놓자고 하지는 않을것이요.》

내가? 정말 내가?... 하면서 파갑게 단 두볼을 감싸쥐고 방을 나선 나는 그날밤 길을 헛갈린 사

람처럼 끝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래요, 올라갈 땐... 그땐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땐, 아이 글썄 내려왔을 땐 내가 천리마처녀라 불리우게 되지 않았겠나요. 《천리마라,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직업이라도 있을것 같소?》 하던 당비서동지의 목소리가 그냥 들려와서 나는 좀처럼 진정할수가 없었어요. 천리마는 어디에나 있다, 누구나 탈수 있다, 당이 맡겨준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한 준마처녀도 될수 있고 비단처녀, 양어처녀, 사과처녀도 될수 있다 그말이 아니겠나요. 난 정말 웨치고싶었어요. 말은 자기의 일터가 곧 천리마의 드넓은 날개우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여기 있을줄 알았다니까.》 하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 돌아다보니 솟아난듯 불쑥 나타난 봉동무가 두팔을 가슴우에 엮어끼우고 천리마동상을 올려다보고있는것이였어요.

《동무가 여길 어떻게?!》

《그러게나 말이요. 동무 어머니도 참 한심해. 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날 찾아 야단하면 어쩐다는건지. 폭 민고 의탁하는건 글썄 좋지만 서두...》

《피- 동무가 뭐라구...》

《뉘긴, 동무의 둘도 없는 조수지! 자, 그럼 오늘 밤에는 내가 동무를 집에까지 바래워주겠는데 더 두말마오.》...

원산청년발전소가 완공되자 나와 봉동무는 또 나란히 한조가 되어 하모니카를 불며 마식령을 넘었어요. 알고보니 그 하모니칸 군대때 말형님이 아버지장군님앞에서 연주를 했던것이라더군요.

새벽벽에 러판에 들어선 우리는 미처 짐을 풀사이도 없이 이미 주설계방향으로 찍어가지고 온 동명산고층살림집구역에 올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구... 참, 쓰신다는 소설이 언제쯤 나오게 될가요?... 그렇게 빨리요? 그럼 봉동무는 회령에서 그걸 읽구서 깜짝 놀라겠네! 그 동무가 올봄에 대학을 졸업하구 정식 연구사로 됐다는걸 잊지 말고 꼭 박아주세요.

×

그런데 나는 처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보다싶이 소설은 이제야 완성되었던것이 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은 그 처녀 자신이 되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 100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대양이십니다.》

주체101(2012)년에 우리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게 된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선군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국문학축전을 조직한다.

### △축전기간

주체100(2011)년 3월부터 주체101(2012)년 3월까지.

### △참가대상

조선작가동맹의 전체 맹원(후보맹원 포함)들과 문학창작기관의 작가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 △작품의 종류

- 소설문학부문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단편실화문학, 과학환상소설, 수필
- 시문학부문  
서사시, 장시, 시초, 서정시, 가사
- 아동문학부문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장편동화, 중편동화, 단편동화, 서사시, 우화, 동요, 동시, 가사
- 희곡문학부문

장막희곡, 중막희곡, 단막희곡  
—이밖에 평론, 사화, 전설

### △작품의 주제

-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위인상을 형상한 작품
-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를 떨치며 세계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현실주제의 작품
-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 모습과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 청소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력사주제의 작품 등

### △작품을 보낼 곳

전국문학축전작품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작가동맹중앙위원회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며 우편통신으로 발송하는 경우 겹봉에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밝혀야 한다.

### △총화사업

전국문학축전작품심사결과는 주체101(2012)년 4월에 《평양신문》과 《문학신문》, 《조선문학》을 비롯한 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와 각 도일보,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

※ 전국문학축전작품들 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동맹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한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 경구, 격언

- 어머니의 사랑은 늙지 않는다
- 다리 셋인 닭이 없고 두가지 마음 가진 어머니 없다
- 어머니가 지으면 면내의도 따뜻하고 남이 지으면 양털내의도 춥다
-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에미가슴 더 아프다
- 아들의 용감성은 어머니를 젊게 한다
- 어머니의 참을성은 오만가지 참을성이다
- 어머니가 되여야 어머니의 기쁨과 설움이 무

엇인지를 안다

- 어머니의 사랑은 부드럽고 아버지의 사랑은 분별있다
- 어머니의 가슴을 허비는 일도 아버지에게는 무릎까지밖에 이르지 못한다
- 사랑은 처에게 바치고 비밀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말하라
- 해빛은 따사롭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시 초

## 홍 남 비 료 시 초

—완공단계의 가스화공정건설장에서—

주 명 옥

### 밤을 모르는 곳에서

겨울의 맵잔 바람도  
마지막극한점을 넘기기 힘겨운듯  
우—우— 소리를 내지르는데  
어이하여 이곳에선  
이토록 밤을 모르는것이나

층높이 일떠세운 현대적인 건물들  
이 지붕아래서  
폭포쳐쏟아질 비료를 그려보며  
일손에 불을 달던 그 사람들 아니던가

오늘은  
백배천배로 펼쳐일어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든  
합성탑이며 정류탑들  
보란듯이 척척 들어앉힌다

넋이 있고  
피가 뛰는 귀중한 우리것에  
어서 동음소리 높이 울리자  
애국의 맹세로 불타는 가슴가슴  
어찌 밤을 가리랴  
어찌 추위를 주저하랴

저마다 터치는 경탄의 목소리여  
배포유한 일손들을 보라  
꼭 맞는 모자마냥  
맵시있게 올려놓은 반구형경관들은  
또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가 더 잘살게 될 그날을 막아보려  
악랄하게 날뛰는  
제국주의원썩무리  
밤을 모르는 창조의 억센 불보라로  
호기있게 쳐갈기는 기상들을 보라

아, 또 한밤 지새운 사람들  
기쁨에 넘쳐 기쁨에 넘쳐

용접면 높이 들고  
밝아오는 새아침을 반긴다  
단김서린 그 얼굴들을  
조국은 뜨겁게 바라본다

### 함박눈 내리니...

반듯하게 닦아놓은  
새 비료지구 구내에  
함박눈 내리니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이어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시려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 가고가시는  
우리 장군님 앞길에도  
저렇게 눈은 내리고있겠지

수북이 내려내려 쌓이는  
눈을 보아도 불타는 생각  
불타는 그리움  
장군님 저 눈을 보시며  
지금 무슨 생각 하고계실가

깊어깊어지는  
간절한 이 마음  
문득 가슴을 치나니  
홍남땅 우리를... 아, 비료는 아닐가

비료가 얼마나 귀중하시었으면  
그리도 험한 눈길 헤치시는것인가  
내리는 저 눈발속에  
목메게 목메게 어려오는 우리 아버지장군님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모두  
하얀 비료가 되었으면  
눈우에 뜨겁게 없어지는 나의 소원이여

이 땅우에 함박눈  
끝없이 내리고내릴수록  
더욱 불타는 마음

인민의 행복 위해  
장군님 가고가시는 사랑의 그 길우에  
저 눈덮인 구내길처럼  
비료길 정히 열어드리고싶어라!

## 홍남의 처녀야

새 가스발생로  
그 손으로 일떠세운것이  
정말 꿈만 같아  
산악같은 모습앞에  
말없이 말없이 서있는 처녀야

들끓던 건설장 한밤에도  
땀에 젖어  
우등불에 물들어  
발그레 더 고와진 얼굴  
남몰래 손거울에 담아보더니

오늘은 웬일이냐  
눈가에 어리는 맑은 눈물  
기쁨으로 찰랑이는데  
잊은듯 잊은듯  
미소만 짓고있으니

비바람 눈바람 맞받아서있던  
너의 기증기  
그 긴 나래끝에 나뭇기던 붉은 기폭  
오늘은 머리우에 얹은듯  
수건은 빨갛게 타고타는데

처녀야 홍남의 처녀야  
어서 꺼내들렴  
보풀이 일고  
불빛에 물들어  
무게로도 재일수 없는  
웃주머니에 들어있는것을

하지만 처녀야  
그 작은 수첩에야 어이 담으랴  
너의 심장이 안아올린  
이 땅우의 거창한 창조물  
벽차게 벽차게 들어안은  
그 크나큰 환희를

정녕 그래서가 아니더냐  
시대를 안고 질풍같이 달려온

청춘  
너의 그 가슴에  
아, 뜨겁게 새기고있는것은

## 그 모습이

새 비료공정을 일떠세우며  
뛰고 달리던 사람들  
어제는 구내의 트랙을  
불이 번쩍 나게 다지더니  
오늘은 아, 오늘은  
해빛이 웃는 창문들밑에서  
파일나무 정히 심는다

어서 자라라  
뿌리마다 맑은 물도 듬뿍  
꽃꽂이 자라라  
버팀목도 알심을 들이는데  
류달리 내 눈길을 끄누나

비료폭포 쏟아낼  
한교대 밤길을 그려보며  
어깨 나란히  
맑은 웃음도 함께 심고있는  
비료공장 처녀총각

볼수록 가슴뜨겁구나  
눈비도 함께 맞으며  
땀흘리며 달리고달리던  
온 건설장이 다 아는 소문난 혁신자들

비료산아래서  
한생 변함없을 그 언약처럼  
깊이깊이 뿌리내릴  
아, 파일나무 심는 그 모습이

## 그날이 눈앞에 있다!

한메터 또 한메터...  
높아가는 가스발생로벽체따라  
숫구쳐오르던 붉은기  
이제는 눈뿌리 아득한 만장우에서  
세차게 나뭇기는 그 기폭

눈굽이 젖어  
마음이 젖어  
손채양을 하고 다시 바라보아도

이 가슴 뜨거움에 젖나니

마지막시운전을 위해  
다시금 설계도면에  
긴장한 눈빛을 박는  
시공일군의 모습이며

굽이굽이 뻗어간 배관들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청신한 빛갈로 곱게 단장하는  
도장공처녀의 날랜 손길을 보아도  
마냥 마음 설레이나니

하루 이틀...  
손뼉으며 마중해온  
아, 그 완공이  
눈앞에 있다는 가슴들먹임이어

벌써 들려오는듯싶어라  
차판 가득 비료를 싣고  
이 구내를 벗어나는 기적소리  
봄비마냥 비료 듬뿍 뿌려가는

협동벌의 노래소리...

정녕 보여오는듯싶어라  
홀러가는 흰구름도 멈춰세우는  
황금노적가리들  
홍성이는 매대와  
식료공장의 끝없는 흐름선이

아, 끝없는 환희에 넘칠수록  
우리 더욱 못 잊나니  
장군님 해치신 삼복철무더위며  
마가울의 찬바람을...  
천리길을 오신 그밤으로 비료를 위해  
또다시 락원으로 천리길 떠나시던 그 모습을...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우시려  
주체적인 새 비료공정의 완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불타는 사랑이 안아올린  
주체비료 만세소리  
강성대국 하늘높이 터쳐오를  
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있다!

## 화 학 지 구 의 봄 하 늘

최 정 용

어이 이리도 정겨운가  
이 하루도  
마음 끌려 쳐다보는  
화학지구의 저 하늘이

우리 장군님 또다시 찾아주신  
사연깊은 발자취 따라걸으며  
10리 비날론구내에서 쳐다볼 땐  
떠가는 흰구름이 그대로  
눈부신 비날론숨처럼 안겨지더니

무수한 탑들이 키돋움하는  
홍남의 비료구내에서 다시 보니  
머리우에 떠도는 흰구름이  
금시 쏟아져내릴 비료더미만 같아라

진정 우리의 자랑이여라 기쁨이여라  
물결푸른 동해를 옆에 끼고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함흥의 화학기지는

비날론웃음꽃을 피우며  
카바이드전로에서  
사철 지지 않는 불노을이 피어오르는데  
이제 화염세찬 가스발생로  
그 불빛어린 홍남의 하조장에선  
흰쌀같은 주체비료 폭포쳐내리려니

내 어이 무심히 바라볼수 있으랴  
여기서 꽃피날 인민의 기쁨 위해  
강추위도 무더위도 가림없이  
찾고찾고 또 찾아오신 장군님  
그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 받들려  
나날이 번영해가는  
우리 화학지구가 펼쳐놓은 저 하늘을

가슴벅차구나  
오직 한분 장군님만 믿고  
모든 고난 모든 시련 이겨내며  
불굴의 의지로 창조한 그 모든것이  
다름아닌 우리의 밝은 래일을 그려주기에

철따라 찾아오는 자연의 봄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 철의 의지에 받들려  
이 땅에 찾아온 투쟁의 봄 창조의 봄이  
다름아닌 저 하늘가에 한껏 꽃폈거니

보고 또 보아도 더 보고만싶어라

아, 우리 장군님 사랑의 봄빛어린  
화학지구의 저 하늘  
신심넘쳐 내다보는 강성대국 그 봄날인양  
우리의 기쁨이 한껏 어린  
우리 행복의 봄하늘은

## 전로공들의 출근길

### 최명길

푸름푸름 밝아오는 비날론구내에  
구내등 마지막빛 사라지는데  
돌물이 끓는 전기로의 불빛을  
동산에 솟는 아침해빛인양 받으며  
전로공들 출근길에 오른다

카바이드로의 젊은 로장도  
기중기운전공쳐녀도  
공업시험소 박사선생도  
이 하루 높이 쌓을 비날론숨을  
눈앞에 그러보는 새벽출근길

동터오는 비날론구내  
돌물이 끓는 소리 가슴치는데  
돌물이 끓는 전기로에서  
오늘 하루의 해가 솟는듯  
구내를 물들이는 불노을 불노을

전로공들이 가는 이 길을 따라  
직포공들의 순회길이 시작되고  
염색직장의 무지개파도 시작되는  
오, 보람찬 하루를  
돌물처럼 끓여가는 전로공들의 출근길이어

가사

꿈속에서도 견고싶은 길  
우리 장군님 만족하시여 바라보신 전기로  
그 전기로의 동음 생활의 선물이 되고  
그 전기로의 불빛 생활의 빛이 된  
비날론공장의 전로공들

이제 전기로의 조종단추 누르면  
카바이드돌물이 행복의 보물로 폭포쳐  
공장구내에 비날론지구에  
해돋이아침마냥 황홀경을 펼치리

그런 멧에 산다 전로공들  
전로공들 구내길을 걸어도  
화려한 백화점매대앞을 걷는 마음  
황금물결 설레는 포전길을 걷는 마음  
행복이 마중오는 꽃밭길을 걷는 마음

아, 전로공들의 출근길은  
어버이장군님의 리상이 활짝 꽃펴날  
그날의 봄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비날론비단필로 펼쳐가는  
강성대국의 해맞이길이여라

## CNC기사오네

### 정예향

이른아침 처녀들이 기뻐서 속삭이네  
우리 공장 일터에 CNC기사 온대  
지식많은 그 기사 나이많은 선생일자  
아니아니 몇쟁이총각일테지  
라 누구일자 CNC기사 누구일자

꽃다발 엮으면서 처녀들 말을 하네  
만나면 무슨 말로 인사를 해야 할가  
최첨단시대 꽃피워갈 그 기사 축하하여

꽃다발도 좋지만 노래는 더 좋아  
라 누구일자 CNC기사 누구일자

처녀들 꽃다발 안고 기다린 그 기사  
아니 글썽 작업반 옥별이었네  
장군님사랑속에 일하면서 배운 처녀  
과학기술선구자로 방긋 웃겠지  
라 얼싸안았네 CNC기사 옥별이

# 시인 백인준의 창작적 개성

리 주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것이 필요하다.**》

시인 백인준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창작의 첫걸음을 떼었고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세계적인 대문호로 성장하였다.

백인준의 문학에서는 먼저 그의 시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물론 그는 재능있는 영화문학작가로, 또 극작가로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에 옮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좌하는데서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비상한 창작적재능을 발휘하였다.

백인준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영화화면에 처음 모신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영화문학을 창작하였으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영화문학에 편이어 여러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인준은 또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와 같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준의 문학에 대하여 논할 때 시에 대하여서부터 말해야 하는것은 그의 문학의 기초에 숭고한 시세계가 놓여있으며 그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러러 흠모하는 명작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시단의 전렬에 당당히 서있기때문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의 시인으로서의 창작적 개성은 여러가지로 이야기할수 있다.

예민한 정치적감각, 시대의 높이에서 세계를 굽어보는 높은 지성적안목, 능란한 풍자정론적기치, 인민적언어에 기초한 소박하고 진실한 표현 등...

백인준의 시창작에서 무엇보다먼저 말하게 되는 것은 예리한 정치적감각이다.

시인들에게서 예민한 정치적감각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로 이루어진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관점을 가지는데서 그리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남 먼저 옳게 리해하고 정서적으로 체험하며 시화하는데서 표현된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백인준이기에 그의 정치적감각은 남달랐다.

그는 자기의 시에서 우리 수령님을 인민의 태양,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로동법령발포를 계기로 창작발표한 시 《태양》〔주체35(1946)년 6월〕에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 인민의 태양으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

오, 태양!

뒤끝목 나의 창가에도 가득 찾아온 새로운 태양  
태양은 곧 그이 **김일성**장군님

나의 모든 행복을 그이께 돌리리

시인 백인준은 주체36(1947)년에 송시 《그이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태양이라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저 하늘의 태양이 만물에 생명을 주고 키우듯이 항일의 령장,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민족의 태양이라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그이는 3천만의 앞길을 밝히고/ 세계를 향하여 웨치시기때문이요》라고 노래하면서 계속하여 《오늘 세계는 조선민족속에 절세의 애국자 있음을 아노니/ 조선민족과 더불어 떨친 그 이름/ 오, 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라고 격찬하였다.

그 이후에도 작가는 가사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을 비롯한 수십편의 시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의 예민한 정치적감각은 우리 당을 자기의 생명으로, 인민의 바다로 노래함으로써 우리 당이

인민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된다는것을 노래한데서도 표현되었다.

그는 시 《당은 나의 생명》에서 당은 나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스럽게》 그보다 더 억세게 키웠다고 하면서 《당은 나의 자랑/ 당은 나의 행복/ 오, 당은 나의 생명!》이라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시 《인민의 바다》에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바다로 노래하였다.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참가하였던 시인은 수령님의 연설을 듣고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에 대하여 남먼저 민감하게 감수하고 그 새로운 느낌을 시에 담았던것이다. 시인의 예민한 정치적감각은 편이여 실시되는 민주개혁을 반영한 시들에서도 나타났다.

토지개혁을 반영한 시 《그날의 할아버지》, 로동법령발포를 반영한 시 《막내》, 남녀평등권을 반영한 시 《녀인도》, 첫 민주선거를 반영한 시 《마을의 이야기》, 《가자 선거장으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 《8.15첫돌맞이》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서, 문학예술의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시기에 이르러 시인의 예민한 정치적감각은 위대한 그이를 향도의 별,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으로 감수하고 칭송하는데로 승화되었다.

시 《위대한 심장》에서 시인은 《그이의 안광 태양빛을 뿌리며/ 나는 태양의 크기를 한몸에 받아안는다》라고 노래하였다.

시 《삶에 대한 송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간에게 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정치적생명을 지닌 존엄있는 첫 세대, 선조들로 되게 하여주시였다고 노래함으로써 정치적생명에 대한 사상리론으로서 인간생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현실로 되게 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시화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

아, 지구우에  
인간의 영원한 락원을 꽃피우시고  
불멸하는 생명의 새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봄의 창조자 **김정일**동지!

그 성스러운 품속에 안겨 우리는  
인류가 생겨나 수백만년후  
20세기 조선땅에 처음 나타난  
새형의 인간—주체의 혁명가들로 자라  
종말을 모르는 위대한 생명의  
존엄한 첫 선조들로 되였어라

...

시인 백인준의 시창작에서 다음으로 말하게 되는것은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세계를 굽어보는 지성적안목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의 지성적안목은 새로운 철학세계와 미의 세계를 개척하는데서 표현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백인준의 지성적안목은 먼저 새로운 철학세계를 개척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문학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백인준의 시에서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계기에서도 생활의 진리를 찾고 형상으로 심화시켜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시 《력사의 흐름소리》에서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가림천의 물소리를 조선혁명의 력사가 흐르는 소리로 노래하였다.

시 《가야금소리 흐르는 거리에서》는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긍지높은 발걸음과 고층살림집에서 울리는 가야금소리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 그것을 창조하고 빛내여주는것이 우리 당이라는것을 뜻깊게 토로하고있다.

《백두산시초》중의 시 《백두산에 오르는 마음》에서는 백두산에 오를 때에는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날 장군님 찾아가던/ 항일유격대 신입대원의 그 마음 안고...》 가야 한다고 노래함으로써 백두산에 오를 때 가져야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세와 립장에 대하여 새로운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새로운 철학세계에 대한 형상은 종횡무진하는 서정과 개성적인 시적발견에 기초하고있다.

정론시 《큰손》이나 시 《손》이 그런 실례로 된다.

정론시 《큰손》에서는 4립방굴착기 《장백호》의 큰 바가지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일해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큰손으로 보았으며 시 《손》에서는 로동으로 손에 박인 장알을 하늘의 별로, 값진

보석으로 감수하면서 그 손으로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손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그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의 대문을 활짝 열게 되리라고 긍지 높이 토로한다. 로동의 보람과 영예, 의의에 대한 참으로 독특한 발견이고 뜻깊은 형상이다.

백인준의 지성적안목은 또한 새로운 미의 세계의 탐구에서 잘 표현된다.

문학작품에서는 고상한 미의 세계가 펼쳐질 때 높은 지성이 담보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높은 자주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며 그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미적대상으로 삼고 높은 미학적리상으로 그릴 때 지성도가 보장된다고 밝혀주시었다.

백인준의 시들은 시집 《인민의 노래》에서부터 새로운 미의 세계를 펼쳐지고 있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민주개혁의 나날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민주의 새 인간으로 성장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모습,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려냈던것이다.

시 《그날의 할아버지》에서는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환희로운 생활이 감미롭게 펼쳐지고 있다. 4대를 거느리고 사랑에 앉아 장거리에 가본것이 10년전이라던 할아버지가 조상묘에 찾아가 샘터밭 사흘갈이를 분여받는데 대해 아뢰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돌아오는길에는 샘터밭에 둘러 돌과 묶은 나무그루터기들을 다 치운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심지도 않은 추수이야기, 손녀시집보낼 경사를 그려본다.

...

심으지도 않은 샘터밭추수이야기  
혼사도 안한 누나 시집보낼 이야기  
—아니 열섬은 나!  
열섬만? 확실의 잔치는 떡이나 치구...

...

레문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시에서는 소작살이 고역에 한숨과 눈물로 흐려있던 집안에 행복의 웃음, 희망의 웃음이 흘러넘치고 세기적숙망이던 땅을 주신 어버이장군님께 감사를 드리는 농민, 수령을 알고 수령의 업적을 아는 숭고한 정신의 체현자로 노래하였다.

시 《녀인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남녀평등권의 혜택으로 남자들과 똑같은 사회적지위를 차지하게 된 녀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희롭게 노래하고있다.

...

백두산원시림속 풀냄새 가득 지니고  
꿈인양 웃으며 나타난 그이  
그이의 목소리! 그이의 선물!  
—자 누나들!  
한아름 꽃다발이 머리우에 쏟아지다

이제 이 나라 딸들의 혈관속으로  
분수처럼 분수처럼  
솟구쳐오르는 해방의 새로운 혈조  
모든 오욕을 떨치며 날리며  
녀인은 두팔을 벌려 창공을 안노니  
오늘도 패청을 알리는  
기상대언덕우엔 바람이 높아  
머리길 흩어져 이마에 날리고  
해빛은 쏟아져 쏟아져내려  
송이 꽃송인듯 가슴에 넘친다

언덕우에 팔을 벌린  
오, 이 나라 녀인의 모습!

참으로 한쪽의 그림과 같은 아름답고 숭고한 시적화폭, 해방된 조선녀인의 황홀한 모습이다.

백인준의 창작적개성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것은 능란한 풍자정론적기지이다.

작가는 풍자시들을 통하여 미제와 그 하수인들을 신랄히 조소하고 날카롭게 규탄하였다.

풍자시 《월가의 〈관병식〉》에서는 미제가 버러지들과 세균들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있다고 야유조롱하면서 곤충들과 벌레들에게 달아줄 훈장과 메달을 만들라고 세심히 가르쳐준다.

풍자시 《〈강아지 과거보기〉》에서는 괴뢰들의 《대통령》선거를 《강아지 과거보기》라고 조롱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로서의 남반부의 정치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시인 백인준의 풍자정론적기지는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에서 절정을 이룬다.

시에서는 정월초하루날에 남조선의 한 녀인을 발가벗기고 몸에 뽕끼칠하여 거리로 내쫓은 미제



야만들을 규탄하면서 벌거벗은것은 너인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거룩한 신사》들이며 놈들은 인류의  
량심앞에서 벌거벗고 날치는 20세기의 야만들  
이라고 규탄한다. 시에서는 미국이 《라체의 왕  
국》이라고 폭로하면서 쪽 벌거벗고 앉아있는 대  
통령, 쪽 벌거벗고 서서 결재를 받는 국무장관,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빼적거린다고 조롱한다.

백인준의 풍자시들에서는 정론적규탄을 풍자  
해학적형상과 늘 조화롭게 결합시키고있다.

시에서는 마감에 이렇게 웨치고있다.

...

우리는 너희들을  
조선의 밖으로 내쫓을테다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테다

백인준의 창작적개성은 또한 언어형상에서 뚜렷  
이 나타난다.

그는 언제나 인민적인 언어에 기초하여 소박하  
고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입말로 작  
품을 창작하였다.

시집 《인민의 노래》의 머리시를 대신하여 쓴  
현시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산문시형식  
을 취한 작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보  
통말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는 조선

청년의 마음속 진정을 그대로 토로하고있다.

《또 이겼어! 과연! 조선사람이 상기두 살았다  
니까!》

시 《나의 노래는 인민의 노래》에서 그의 언어  
형상의 소박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기  
의 시가 군대와 인민과 친숙해지기를 바랐다. 때  
문에 군인, 로동자,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서재에 꽃기여 장식이 되기보다/ 합숙 아래목  
에 때절어 굴라/ 나의 노래여 인민을 위하여!/ 목  
청을 다하여 붓끝을 다하여!》

그리고 백인준의 시에서 언어형상의 특징은 진  
실성이다.

시 《그이를 모시고》를 통하여 그에 대하여 말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열렬한 감정—우  
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감정을 《사랑에 행  
복한 젊은이같이》라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말로  
써 참으로 뜻깊게 형상하고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인 백인준의 창작적개성 몇  
가지를 론하였다. 그의 창작적개성은 시에서만아  
니라 영화문학, 가극문학, 희곡에서도 뚜렷하였으  
며 작품창작과정에 발현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 한  
령도를 받들어 문학예술혁명에 적극 이바지한 세  
계적인 대문호인 작가 백인준의 창작기풍, 열정을  
배워 선군시대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가 사

# 내 나라의 봄 풍경

## 리 신 환

청제비 물을 차는 앞내벌에선  
봄이라 벼모내기 한창이구요  
종다리 날아에는 뒤내벌에선  
황금벌 밀가울이 한창이랴오  
에헤요 선군세월 하도 좋아 하도 좋아  
에헤요 데헤요 봄가울이 함께 웃네

벌가득 펼쳐놓은 앞그루농사  
둥기당 풍년가를 불러오구요  
알찬 씨앗 묻어가는 뒤그루농사

벨리리 봄노래를 불러온다오  
에헤요 선군세월 하도 좋아 하도 좋아  
에헤요 데헤요 봄가울이 함께 웃네

장군님 전선길 헤치시면서  
벌가득 안겨주신 두벌농사풍경은  
이 땅을 길이길이 가꾸고 빛낼  
부강한 내 나라의 풍경이랴오  
에헤요 선군세월 하도 좋아 하도 좋아  
에헤요 데헤요 봄가울이 함께 웃네

# 계절이 따로 없는 일터에서

리명현

해별 따가운 무더운 날 룡라도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시원히 땀발을 식힐 때에야 여름철만한 계절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날 학교운동장에서 손시린줄 모르고 덩이를 굴려 우람찬 눈사람을 빙긋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 세워놓을 땐 겨울이 더 좋을상싶었다.

사계절중에 여름과 겨울 어느 계절이 더 좋을가?

아니 아니, 수확의 계절 가을도 좋아. 단풍의 계절 가을이 더 좋아.

정말 그렇가. 그것도 아니야. 온갖 꽃이 다투어 피어나는 봄계절없이 어이 열매 무르익는 가을이 있으랴. 봄은 정말 좋아.

자기나름의 견해들로 계절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던 흥안의 그 시절은 이제는 저 멀리로 흘러가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어느 계절이 더 좋은가 하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있다. 자기만의 특징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있는 계절들의 어느 하나에도 따로 편견을 갖고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내가 계절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은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받은 조카의 첫 생활비봉투를 들여다보던 그 저녁부러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래 순이야! 로동생활이 어때?》

내 물음에 음-하고 서두를 길게 늘구던 나의 조카는 제격 대답하였다. 《좋아요.》

《뭐가 좋니?》 나는 다시 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계절만 있으니까요.》

《뭐라구?》

말뜻을 잘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다시 말했다.

《삼촌! 우리 공장에 한번 와보지 않을까요? 삼촌이야 조국땅 방방곡곡 어디나 가보아야 할 작가가 아니나요?》

순이가 뜻밖에도 작가의 사명감으로 이야기방향을 번져가는 바람에 나는 의아한 속에서도 경공업 부문 로동계급의 생활을 취재할 예정이던 계획대로 한번 그가 다니는 공장에 꼭 가보마고 약속을

하였다.

그후 봄철 어느날.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사적이 어려있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 녀성근로자들이 김철로동계급의 생산돌격호소에 호응하여 높아진 1.4분기계획수행에서 통장훈을 불렀다.

이 소식을 듣고서야 나는 조카와 한 약속도 지킬겸 유서도 깊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을 찾았다.

기본공정인 명주실 뽑는 조사직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더운물통에 담겨진 하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는 현대적인 기대를 여름옷을 입은 녀성들이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다루고있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현장에서 짧은 셔츠를 입고 일하는줄 모르는바가 아니었지만 나는 신비스런 현실에 부닥친 사람모양 그들의 흥겨운 작업모습을 홀린듯이 보고 또 보았다.

《아니, 여긴 벌써 여름이구만요.》

나의 가벼운 탄성에 조사직장장이 웃음속에 대답하였다.

《우리 공장은 사계절이 따로 없는 공장입니다.》

그와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소한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셨던 두해전 그날.

몰라보게 변모된 공장구내며 로동자식당, 정양소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이 많은 일을 했다고, 이 공장의 자랑찬 성과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인민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불굴의 정신력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셨다.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며 잘살게 되면 평생의 여한이 없겠다 절절히 말씀하시던 아버지장군님!

인민에 대한 위인의 사랑의 세계가 어려와 온몸이 숨넘은 걱정에서 휩싸였다.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인 내 나라를 사회주

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 우리 인민을 세상사람들 보란듯이 모든것이 흥하는 강성대국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이고 리상이다.

세찬 눈비발 쏟아지고 찌는듯 한 삼복철의 무더위도 수그러들지 않는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아버지장군님따라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은 거세차게 타올랐거니...

장군님의 리상을 꽃피워가는 방직전선의 전초병들이 지켜선 이 공장의 기대마다, 직장마다에는 나라의 건직공장들에 질 좋은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 결의가 차림치고있었다.

2.4분기계획도 넘쳐수행하리라는 열의로 양양된 분위기는 생산직장들마다에도, 구내길의 속보판에도, 선군문화 꽃피나는 회관과 정양소에서도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그러고보니 공장밖에서 흐르는 자연의 계절의 변화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듯 공장안에는 노동자들의 양양된 정신상태도, 차림새도 왕성한 정열과 열기를 내뿜는 여름계절이 항상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 청신한 목소리가 나의 상념을 깨트렸다.

언제 보았는지 나의 조카 순이가 달려와 팔을 붙잡고 쿵쿵 뒀다.

《어때요, 우리 공장이?》

《음, 와서 보라고 한 네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저 막 들끓는구나.》

내 말에 조카는 호호 하고 웃음발을 날리었다.

《막 들끓지요? 그게 바로 우리 공장의 모습이 예요. 사계절 언제나 들끓는 공장, 여름계절만 있는 공장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거예요. 난 그래서 내 일터가 제일 좋아요. 푸른 잎이 무성하여 왕성한 활력을 내뿜는 자연의 여름계절처럼 우리 로동계급의 뜨거운 정열과 창조의 열기로 불타오르는 보답의 계절, 창조의 계절만이 흐르는 우리 공장이...》

시를 읊듯이 감동적으로 줄줄 내리엮는 조카의 말에 나는 새로운것을 받아안은 심정으로 공장을 휘둘러보았다.

옳았다, 나의 생각도 같을진대 이 공장뿐아니라 온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도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대고조진군참전자들의 창조의 노래소리는 하늘땅을 진감할것이니.

평범한 날에 한 경공업공장에서 느낀 류다른 계절감각은 나의 마음을 여느때없이 흥뜨게 만들었다.

세계는 이제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안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려오신 선군천리마를 타고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운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그렇다.

오늘도 래일도 변할수 없고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따라 사계절이 찾아오듯이 이 하늘아래, 이 땅에는 강성대국을 건설해가는 대고조참전자들의 창조의 계절만이 영원토록 흐르리라.

## 가 사

# 모판리공처녀와 프락톨총각

## 손 명 화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모판에서  
처녀는 애기모와 어서 커라 속삭이네  
봄같이하던 프락톨총각 싱글병글  
일숨씨도 마음씨도 꼭 마음 든대요  
어마나 어찌나 싱겁등이총각

모내기전투로 농장별이 들썩하니  
처녀의 얼굴에도 구슬땀이 흐르네  
하루계획 넘쳐한 프락톨총각 싱글병글

선군시대 청춘들은 이런 멋에 산대요  
제대병사 저 동문 정말 좋은 동무야

달밝은 포전길 처녀총각 나란히  
청춘의 리상을 다정히 속삭이네  
풍요한 가을 안고 강성대국 마중가자  
애국의 마음 뜨거웁게 약속을 해요  
벼이삭이 여물 때 사랑도 열매맺으리



김 자 경

△때: 현대

△곳: 어느 한 광산

△나오는 사람

리윤정:광산녀인

김영진:윤정의 맏아들, 채광소대장

한명수:윤정의 둘째아들, 채광공

김영신:윤정의 딸, 기능공학교 학생

유성금:영진의 약혼녀, 압축기운전공

림형걸:오랜 광부

주광석:채광공

오봉숙:광석의 어머니

기타 녀인 1, 2, 광부 1, 2

△음악속에 설화가 울린다.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마천령의 험준한 산발을 넘고넘어  
여기 광산마을에 와보시라  
그러면 만나게 되리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모든것 다 바쳐가는  
평범하고 소박한 광산의 녀인들을

## 제 1 경

△때: 어느 봄날 아침

△곳: 윤정의 집 마당

△무대: 한켠에 아담한 집이 있고 마당가엔 두

봉화꽃 망울진 꽃밭이 있다. 멀리로 선광장과 광산마을의 일부가 보인다.

△막이 오르면 영신 두봉화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리윤정 긴장된 얼굴로 나온다.

윤정:영신아!

영신:아,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윤정:오냐, 헌데 영진이랑 명수랑 아직 안 들어왔니?

영신:예. (가방을 받아들며) 어머니! 이걸 보세요, 두봉화가 벌써 망울을 터쳤어요.

윤정:그래?

영신:아마 며칠후면 활짝 필거예요.

윤정:정말 그렇구나. ... 그런데... 너의 오빠들은 왜 아직 안 들어올까? 이젠 통근인차도 나왔겠는데... (근심에 잠겨 동구밖을 바라본다.)

영신:이제 오겠지요 뭐. 헌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윤정:(머리를 끄덕이며) 내 이자 막장지원물자를 넘겨주고 들어오다가 갱지령원을 만났는데 어제 밤 교대에서 명수의 발기대로 착암대차를 고굴속으로 끌어올리다가 그만 락반에 맞아 착암대차가 파손됐더구나.

영신:아니, 그럼 착암대차를 채굴장으로 끌어올려 20만톤대발파를 단번치기로 성공시키려던 둘째오빠의 착상이 실패란 말이에요?

윤정:(근심어린 표정으로 토방에 앉으며) 글썄... 내 생각엔 그 애가 고굴속의 암질상태를 잘 타산하지 못한것 같더구나.

영신:야, 어쩌면... 하지만 어머니! 너무 마음쓰지 말아요. 큰오빠랑 함께 있으니 다 잘되겠지요 뭐.

윤정:그렇가?

영신:그럼요. 현대 어머니 언제 봐야 둘째오빠 근심뿐이라니까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더니 정말...

윤정:넌 또...

△이때 오봉숙과 녀인1, 2 지함을 들고나온다.

녀인들:형님!

윤정:(자리에서 일어서며 녀인들을 반긴다.) 오, 자네들인가? 어서 오라구. 현대 그건 뭐가?

녀인1:(익살스럽게) 우리 녀대원들은 막장지 원용장갑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녀인들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린다.

윤정:수고했네. 그런데 분이 얼마 기분이 등등 떴구만.

봉숙:왜 그러지 않겠나요? 이제 오면서 보니까 회관마당에 우리 녀성들이 모아들인 광석이 광산의 월계회를 넘쳐수행하는데 한몫했다고 대문짝만 한 속보가 났더군요.

윤정:(기쁨에 겨운 얼굴로) 그런가?

녀인2:호호... 형님, 우리가 속보판앞에서 웃고 떠드는데 광산지배인동지가 지나가지 않겠나요. 그러자 이 분이 엄마가 척 다가서서 《지배인동지, 우리가 콥지요?》 하지 않겠나요? 호호...

윤정:그래 지배인동지가 뭐라시던가?

녀인1:그런데 지배인동지대답이 더 걸작이더군요. 《암, 콥구말구. 우리 수령님께서도 우리 광산녀인들은 모두 미인들이라고 하셨는데... 내 할수만 있다면 일 잘하고 얼굴고운 우리 미인들을 한명한명 업어주고싶단 말이요.》 하지 않겠나요, 호호...

△녀인들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린다.

윤정:(감회깊은 어조로) 정말 두봉화 콥게 피는 4월이 찾아와서인지 요즈음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수령님의 햇빛같은 미소가 더욱 그리워지누만.

녀인1:형님은 처녀시절에 우리 광산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대지요?

윤정:(머리를 끄덕이며) 잊을수 없는 그 봄날 난 우리 수령님께 활짝 피어난 두봉화를 안겨드렸대네. 그때 향기로운 꽃다발을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꽃이 참 곱다고, 하지만 꽃보다 광산녀인들이 더 곱다고, 일 잘하고 광산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광산녀인들은 모두 꽃보다 더 고운 미인들이라고 하시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었다네. 그날이 어제같은데 벌써...

녀인1:그래서 형님은 남달리 두봉화를 사랑하는군요. (망울진 두봉화나무를 바라본다.)

영신:분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늘 저 꽃나무를 가꾸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또 이른봄 찬바람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오래도록 피우는 저 두봉화는 우리 광산녀인들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녀인들:정말 그렇군요.

△영진, 성금 들어온다.

녀인2:아유나! 혁신자소대장이 색시감을 데리고 왕림하셨구만.

녀인1:그런데 저 똑쟁이총각이 언제 선녀같은 색시감을 골랐을까?

영신:분이 어머니, 성금언닌 오빠네 교대 압축기운전공이 아니나요? 그러니... 호호...

영진:(사랑스럽게)요 물촉새같은걸 그저...

영신:아니, 내가 물촉새면 오빠 뭐 물범인가?

모두:하하하... 호호...

봉숙:(영진에게) 참, 우리 광석기도 왔나?

영진:예, 함께 오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봉숙:현대... 우리 애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

영진:뭐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봉숙:그런가?

녀인2:형님, 그럼 우린 가겠어요.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할까요? (지함을 내보인다.)

윤정:그 장갑은 가지고 갔다가 래일 아침 가지고 나오라구. 그리구 오후엔 널린 광석줄기를 계속 하자구.

녀인들:알겠어요. (나간다.)

영진, 영신:안녕히 가세요. (바래준다.)

윤정:(영진에게)어제 밤 교대에서도 일을 많이 했더구나. 현대... 착암대차를 고굴속으로 끌어올리다가 락반에 맞아서 파손됐대던데 어떻게 됐니?

영진:다행히 바퀴부분만 고장이 난걸 공무직장에 보냈는데 며칠내로 고치겠답니다.

윤정:그것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 명수는 왜 아직 안 들어오냐? (또다시 근심에 싸인 얼굴.)

영진:저...

윤정:혹시... 어디 다친건 아니냐, 응?

성금:그런게 아니라 이번 사고때문에 로동안전교양실에 갔는데 인츰 올거예요.

윤정:로동안전교양실에 갔다구?

영진:어머니! 명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난 더 이상 그 애와 한소대에서 일하지 못하겠어요!

윤정:그건 또 무슨 소리냐?

영진:난 명수때문에 소대원들앞에 나설 체면

이 없단 말입니다!

윤정:?!

영진:어머니, 어머니도 잘 아시지만 우리 소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시기념일까지 년간 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해 20만톤대발파를 준비하고있지 않나요? 그런데 명수는 말은 일이나 착실히 할 대신 착암대차니 뭐니 하면서 생산에 지장을 주고 난관만 조성시킨단 말이에요.

윤정:하지만 그 애도 대발파를 성공시키기 위해 머털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니?

영진:어머니, 그래 명수가 연구삽니까, 예? 지난 겨울엔 그 무슨 심부갱막장의 통기개선방안을 연구한다면서 금지된 건식착암을 해서 온 소대를 처벌작업시키더니 오늘은 또...

윤정:...

영진:그리구 우리 광산에 대발파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명수의 발기를 반대해 나선건 단번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불리한 압질 조건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계단식으로 20만톤을 뿔구자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제 생각을 고집하다가 착암대차만 고장내고 생산에 지장을 주었으니... (억이 막혀 거친 숨을 내쉰다.)

윤정:너무 흥분하지 말구 마음을 좀 늦구어라. 나도 소대생산계획을 위해 마음쓰는 네 심정은 리해된다. 하지만 명수의 발기대로 대발파를 한다면 버력량을 훨씬 줄이면서도 품위높은 광석을 더 많이 뿔굴수 있겠더구나.

영진:어머닌 아직도 명수에게 기대를 가지나요? (불만이 담겨진 얼굴로 쳐다본다.)

윤정:물론 착상과 실천과는 거리도 있고 또 난관도 있지만 다량락광, 다량채굴할데 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기특하냐?

영진:...

윤정:내 언젠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명수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것은 물론 최첨단을 돌파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노동자발명가, 광부박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썩여있더구나. 난 그걸 본 다음부턴 그 애를 더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어릴적부터 마음이 용한 그 애가 이번 사고로 해서 영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되누나.

영진:어머닌 그저 명수 일이라면...

윤정:어떻든 큰 사고는 없었다니 그 이야긴 그만하구 들어들 가자. 내 너희들이 좋아하는 소고

기완자탕에 감자튀기를 많이 해왔다.

영신:(성금의 손을 잡으며) 언니, 어서 들어가자요.

△영진, 영신, 성금 집으로 들어간다.

△명수를 기다려 이윽도록 동구밖을 바라보는 윤정의 얼굴에 깊은 생각이 담겨진다.

윤정:(자책에 잠겨 혼자말로) 명수의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그 애를 두고 얼마나 가슴아파할까... 내가 그 애를 잘 도와주지 못했어. 어떻게 하든 그 애의 착상이 성공해야겠는데...

△이때 오봉숙 나온다.

봉숙:저, 형님!

윤정:(생각에서 깨어나며) 자네 왔구만. 우리 집에 들어가자구.

봉숙:괜찮아요. 현대... (갑자르기만 한다.)

윤정:무슨 일이 생겼나?

봉숙:저... 우리 광석이가 오늘 저녁교대부터 나 같겟 같지 않아서 형님네 아들에게 말 좀 하려구...

윤정:아니, 광석이가 갑자기 앓아누웠나?

봉숙:(따분한 기색으로) 그런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앤 워낙 어릴 때부터 약골이에요. 그래서 태달부터는 아예 난장으로 옮겨놓으려구...

윤정: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광석이 엄마, 그 애 건강이 걱정되면 우리 힘을 합쳐서 회복시키자구. 그래야 광부구실을 제대로 할게 아닌가, 응?

봉숙:어쨌든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왔으니 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럼... (나간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머니!》

윤정:오냐,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잠시후 설계도면을 맡아온 명수 맥풀린 걸음으로 나온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칼도마소리...

△집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토방에 앉아버리는 명수의 얼굴에 울적한 심사가 비껴있다.

△이때 영신의 목소리 들려온다. 《어머니! 나 기능공학교에 갔다오겠어요!》

영신:(청고운 소리로 노래부르며 나온다.) 처녀 시절 꽃시절 웃음도 많아... (토방에 앉은 명수를 보고) 아! 둘째오빠 왔군요. 어머니! 둘째오빠 왔어요!

△윤정과 영진, 성금 서둘러 나오며 반긴다.

윤정:명수 왔구나. 배고프겠는데 어서 들어가자, 어서.

영진:(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내 그러지 않아도 널 찾아가려던 참인데 마침 왔구나.

명수:(피득 흘려보더니 통명스레 대꾸한다.) 이

젠 날 찾아다니게 하지 않을테니 근심말라요.

영진:(기분이 잡치여) 너 오늘 사고때문에 말 좀 했다고 그러는거야?

명수:됐어요. 형님말은 더 듣고싶지 않아요.

윤정:너 형님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응? 지금껏 네가 고장낸 차압대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리할수 있을까 하고 방도를 찾고있었는데...

명수:다 필요없으니 내 일에 간섭이나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영신:(원망과 야속한 마음을 안고) 오빠! 오빠 왜 어머니앞에서 자꾸만 우물렁대나요, 예?

명수:넌 모르면 가만있어!

영신:음... (민망스러운 눈길로 흘겨본다.)

명수:저 어머니, 한가지 좀 묻자요. 그래 어머니가 형제아바이한테 나를 봉락구역에 들여놓지 말라고 당부했나요?

윤정:?!

명수:(울분이 담겨진 떨리는 목소리로) 어쩌면 앞에서는 나를 돕는것처럼 하시고 뒤에서는 내 일을 방해합니까, 예?

윤정:애야, 그건 무슨 소리냐. 난 도무지...

명수:어머니도 지난 겨울 내가 깊은 갯막장에서의 통기개선방안을 연구하느라 뛰어다니던 일을 알고계시지요? 그때 어머니 판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광물생산을 높일수 있는 참 좋은 생각을 한다면 기뻐하셨지요? 바람측정기를 만드는데 쓰라고 새 선풍기까지 내놓으시면서 말이예요. 하지만 내가 막장으로 유도해온 맑은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새어버리는가를 알아보려고 건식착암을 좀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판부들의 건강을 해치려면 연구고 뭐고 아예 그만두라면서 나에게 처벌까지 주게 하셨지요? 이번에도 앞에서는 나의 착상이 새롭다고 지지하시고 뒤에서는 나를 봉락구역에 들여놓지 말라고 방해를 하시고... 그래 내가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나요, 예?

윤정:(비칠거린다.) 친아들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영진:아니, 저 자식이?

영신:오빠! 오빠 어쩔 그런 말을 하는거예요? 오빠도 잘 알지만 어머니 처녀시절에 오빠의 친어머니와 함께 압축기운전공으로 일하지 않았나요? 그러구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침수된 막장을 구원하다가 희생된 오빠의 부모들을 대신해서 오빠를 데려다가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어쩌면... (말문이 막힌다.)

명수:됐다! 이젠 그런 말을 더 듣고싶지 않다.

그리구 온 집안이 내가 하는 일을 막아서는 이상한 오늘부터 합숙에 나가겠어요! 형님네 소대에서 나가겠다고 제기도 하구요!

영진:야! 너 지금 나에게 분풀이 못해서 친아들이니 합숙이니 하고 엇드레질이야?

명수:그건 좋도록 생각하랴요! 하지만... 번쩍거린다고 다 광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진:뭐라구? (당장 주먹싸움이라도 할 자세로 다가서며) 너 다시 말해봐라, 응?

성금:(영진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조로) 영진 동무! 제발...

명수:에익! (달려나가려고 한다.)

영진:서라! (달려가 팔굽을 잡아 돌려세우고) 너 아직 네가 다 잘했다는거야? 이젠 넘어지면 돌맹이탓이라더니. (거친 숨을 내신다.)

명수:(울분에 차서) 하지만 나도 더 많은 광석을 캐자는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형님은... 에익! (영진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들어간다.)

영진:못된 송아지 엉치에서 뿔이 난다더니 내저 자식을 그저...

윤정:애야, 그만해라.

영진:어머니, 우리가 저 자식 하나 없다구 쇠돌을 못 캐겠나요? 갈테면 실컷 가라지요! 대신 내가 두몫, 세몫 일할테니 근심마세요.

윤정:하지만 저 애도 한 가정의 둘째이기 전에 판부가 아니냐? 우리가 좀 더 따듯이 대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영진:그럼 우리때문이라는거예요?

윤정:...

영진:어머니, 난 오히려 어머니가 지나치게 명수를 어루만지는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에겐 저 애가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보이나요? 난 어머니의 그 눈먼사랑이 명수를 더 그르친다고 생각해요.

윤정:뭐라구? 눈먼... 사랑이라구?

영신:(민망스러운 마음 안고) 큰오빠!

영진:제 말이 버릇없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난 달리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수가 나때문에 집에서 나간다면 나도 소대장을 그만두겠어요! (썩-나가버린다.)

윤정:영진아!

성금:영진동무! (뒤따라 달려나간다.)

△트렁크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 명수.

영신:아니, 오빠 정말 집에서 나가겠나요?

명수:시끄럽게 굴지 말구 저러 비켜!

영신:오빠!

명수:(어머니에게 집열쇠를 주며) 이젠 이 집열쇠가 필요없으니 받으세요. 그리구 이젠 내 일에

더이상 참견마세요! (나간다.)

윤정:아니, 애야! 명수야! (열쇠를 떨어뜨린다.)

영신:작은 오빠! (뒤따라 달려나간다.)

윤정:애야! (몇 걸음 옮기다가 멈춰선다.)

△윤정 떨어진 열쇠를 주어들고 피로운 마음 안고 쓸어보다가 두봉화꽃나무를 바라볼 때 노래가 울린다.

사랑의 이랑에 씨앗 뿌리며  
서둘러 그 수고 말하지 말자  
아 그 진정 꽃피어 향기 풍길 때  
어머니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윤정 그 어떤 결심 안고 집에 들어간다.

△애타는 마음안고 눈굽을 닦으며 나오던 영신 작업복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나오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다.

영신:어머니, 어딜 가려고 그러나요?

윤정:오, 내 은룡골 봉락구역에 좀 갔다오자고 그런다.

영신:어머니 둘째오빠때문에 그러지요? 좀 쉬세요. 요즘 몸도 편찮은데...

윤정:괜찮다. 빨리 나가봐야 명수를 도울수 있을것 같다.

△영신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낀다.

윤정:너 왜 그러니, 응?

영신:(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난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오빠들이 막 미워요. 오빠들은... 오빠들은 정말... 너무해요. (다시 흐느낀다.)

윤정:애야, 오빠들을 원망하지 말아. 너의 오빠들은 석수쫓아지는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쇠돌로 나라를 받들고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광부들이 아니냐? 우리 이제부터 오빠들을 더 잘 도와주자, 응?

영신:어머니! (뜨거움에 젖어 목이 멘다.)

윤정:그럼 난 간다.

△윤정 천천히 마당가를 나설 때 사이막이 내린다.

△사이막앞. 은룡골 봉락구역이다.

△국부조명속에 손전지로 앞을 밝히며 윤정 나온다. 돌가루와 땀에 얼룩진 그의 작업복...

윤정:(혼자말로) 여긴 생각보다 암질상태도 괜찮구나. 이곳으로 착암대차를 채굴장까지 통채로 내려보낼수 있지 않을까? (전지로 봉락구역 여기저기를 비쳐보다가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는다.) 한번 더 돌아보자. (걸음을 옮기다가 버럭에 걸려 넘어진다.) 아!

△오랜 광부 림형결 나온다.

형결:여보시오! 거 위험구역에 들어선게 누구

요? (손전지를 켜들고 급히 다가간다.)

윤정:(힘겹게 일어서며) 아바이!

형결:아니! 이거 윤정아주머니 아니요?

윤정:예, 저예요.

형결:그래, 다친텐 없소?

윤정:일없어요. 내 발을 헛디뎈서 그만...

형결:그럼 됐수다. 헌데... 명수를 봉락구역에 들여놓지 말라고 당부하더니 아주머닌 왜 이 험한 곳에 들어왔소?

윤정:여기야 그 애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나요? 더우기 그 앤 지금 대발파를 성공시키기 위해 애쓰고있기에...

형결:그럼 아주머닌 그녀석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단 말이요?

윤정:저... 우리 애들에게는 내가 여기에 왔더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할수 있거든요. 그럼 전... (다리를 절며 나간다.)

형결:(혼자말로) 저 아주머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 몸을 열조각이라도 낼 사람이라니까. 참, 저 아주머닌을 위험한 곳에 혼자 보내선 안된다. (큰소리로) 아주머니! 같이 갑시다!

△형결 윤정의 뒤따라 급히 나갈 때 천천히 사이막이 오른다.

## 제 2 경

△때: 며칠후

△곳: 로천갱휴계실

△무대: 암벽에 《동무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있는가?》라는 힘찬 글발이 찍여있다. 무대가운데 탄산수통이 놓인 원탁과 긴 의자가 놓여있다. 무대웃쪽은 막장으로 통해있고 아래쪽에는 압축기실과 막장지휘부로 나가는 길이 있다.

△착암기소리, 압축기소리 울리는 속에 막이 오르면 광부들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든다.

광부1:야! 저렇게 착암대차를 채굴장우에 척 올려놓았으니 대발파는 문제없구나!

광부2:문제없구말구. 참, 명수동무! 동무 어떻게 착암대차를 끌어올릴 대담한 생각을 해냈소?

명수:(당황해서)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한게 아니요. 난 그저...

광부1:저 친구 꽤나 겸손한데, 하하하...

△림형결 나온다.

형결:하! 이거 막장안에 웃음꽃이 폈다?

광석:아바이! 저 친구들 지금 당장 대발파의 불을 달고싶어 오금이 막 쭈신답니다, 하하...



**형걸:**광부라면 응당 그래야지.  
**광부1:**자, 그럼 또 막장에 들어가보세.  
**광부들:**그러자구. (막장에 들어간다.)  
**형걸:**(명수에게) 참, 자네 착암대차를 망가뜨린 다음부터 아예 시골새색시처럼 얹혀졌는지?  
**명수:**예?  
**형걸:**난 그래두 저 마천령산줄기처럼 뼈대가 든든한 녀석인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갈대 한가지라니. 음음... (머리를 짓는다.)  
**명수:**(불부은 어조로) 아바인 그저 나만 보면...  
**형걸:**사내녀석이 그래서야 뿔에 쓰겠나, 응? 보라구, 광산참모부에서도 자네의 발파법을 지지하고 자네 어머니도 그걸 성공시키려고 여간 애쓰지 않는데...  
**명수:**아바이! (말허리를 꺾으며) 나에게 더는 어머니 말씀을 마세요. 이제 와서 보니 나에게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진정이 아니예요.  
**형걸:**뭐라구? 예끼, 이 배은망덕한 녀석! 그래 자네가 어머니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런가. 그리구 오늘 저 착암대차를 어떻게 채굴장으로 끌어올렸는지 알기나 하나, 응?  
**명수:**?!  
**형걸:**내 두번다시 그따위 말을 듣게 되면 가만 두지 않을테다.  
**△이때 영진 나온다.**  
**영진:**아! 아바이 오셨군요.  
**형걸:**오, 소대장인가? 그래 올리천공까지 다 끝냈다면?  
**영진:**예, 이젠 우에 올라가 서너구멍만 뚫으면 20만톤은 다 먹은 떡입니다.  
**형걸:**(기분이 흡족하여) 그럼 어디 한바탕 올려보라구, 허허...  
**영진:**(명수에게) 넌 소대에서 나가겠다고 하더니 왜 또 나왔니, 응?  
**명수:**내가 뭐 형님얼굴 보자구 나온줄 알아요? 갈 땐 가더라도 20만톤은 땔구고 가겠어요!  
**영진:**뭐라구?  
**형걸:**소대장! 여기가 뭐 자네 집 아래목인줄 아나? 그리구 일하겠다는 사람에겐 그러면 못써.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아주머니들이 왔다!》**  
**△이어 지원물자를 맞들고 윤정과 영신, 성금, 녀인들 나온다. 뒤따라 광부들도 나온다.**  
**녀인들:**수고해요.  
**광부1:**야! 오늘은 우리 아주머니들이 모두 뿔쳐나섰구만요.  
**녀인1:**오늘이야 대발파로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날인데 가마뚜껑운전수인 우리가 아무렴 가만 앉아있겠나요? 호호...  
**녀인들:**호호...  
**광부2:**정말 우리 아주머니들이 제일이라니까. 인물 잘났지, 일 잘하지...  
**광부1:**그래서 우리 광산 녀인들을 미인들이라고 하지 않나.  
**녀인2:**(한발 나서며) 그래, 나도 미인이라고 부를만큼 곱긴 곱나요, 예?  
**광부1:**곱지 않구요.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게...  
**녀인2:**애개개! (창피한듯 얼굴을 싸진다.)  
**모두:**하하... 호호...  
**△광부들과 녀인들 한데 어울려 휴식한다.**  
**봉숙:**애 광석아(아들을 한켠으로 데리고가서 속삭인다.) 내 오늘 너의 갱장동지에게 직접 제기할테니 래일부터는...  
**광석:**(대바람 눈살이 쏘듯해진다.) 어머닌 또 그 소리예요? 예익! (일어서서 광부들에게로 가버린다.)  
**봉숙:**(아연해서) 아니, 저 애가?  
**△광부들에게 음료수와 과일을 권하는 녀인들.**  
**윤정:**(광석에게 보약꾸레미를 주며) 이걸 끼니사이에 한술가락씩 먹으라구. 일주일이지나면 알도리가 있을거네.  
**광석:**아, 이젠?...  
**윤정:**(의미깊은 어조로) 부모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아들이라네. 그러니 건강이 첫째야.  
**△한켠에서 윤정과 아들을 지켜보는 봉숙.**  
**광석:**가족소대장어머니! 우린 어머니들의 이런 지성에 착암기를 역세계 틀어잡고 더 많은 광석을 캐내는것으로 보답하겠어요!  
**형걸:**아무렴! 착암기를 틀어쥔 광부야 착암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서 열어제껴야지. 착암기란 후진을 모르는 법이거든, 허허...  
**영진:**(자리에서 일어서며) 자, 그럼 20만톤의 마지막천공을 시작해봅시다!  
**광석:**(흥분된 어조로) 더 높은 광물생산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광부들:**한발과 더!  
**광석:**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광부들:**한발과 더!  
**△광부들 량만에 넘쳐 떠들썩 웃으며 막장으로 들어간다.**  
**윤정:**(녀인들에게) 그럼 우리도 대발파전까지 광차길 자갈퍼기를 마저 하자구.

녀인들: 그러자요. (모두 나간다.)

△윤정 부속품을 가지고 나가는 명수를 본다.

윤정: 명수야!

명수: …(힐끔 돌아보고 다시 나가려 한다.)

△어머니와 명수를 지켜보는 영진과 영신.

윤정: (명수에게 급히 다가가며) 명수야! 너 그 래 이 어머니와 영영 등지고 살겠니, 응?

명수: …(고집스러운 침묵뿐…)

윤정: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의 손에 쥐여주며 파뜻이 당부한다.) 자, 오늘 대발파를 끝내고는 집에 꼭 들어오너라. 기다린다.

△윤정 나간다.

△명수 열쇠를 받아들고 생각깊은 얼굴로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볼 때 영신 그에게로 다가서며 충알같이 내쫓는다.

영신: 오빠! 오빠 무슨 체면에 그 열쇠를 받았나요? 그래 오빠 어머니가 오빠를 위해 바친 지성에 대해 알기나 해요?

명수: 영신아!

영신: 어머니 오빠의 새 발파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은룡골 봉락구역에 일일이 다 밟아보셨구 오늘 처럼 착암대차를 끌어올릴수 있는 통로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명수: 뭐라구요?

영신: 오빠 어머니가 왜서 오빠를 봉락구역에 들여놓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것도 오빠가 위험한 곳에 들어갔다가 길이라도 잃을가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뿐인줄 아세요? 어머니 오빠가 고장난 착암대차를 하루빨리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직장에서 이틀밤이나 꼬박 새웠어요. 그런데 오빠 뭐예요? (울먹거린다.)

영진: (급히 다가서며) 영신아! 너 이제 그 말이 사실이나, 응?

영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요? 그런데 오빠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너무도 아프게 해주고있어요.

영진, 명수: (자책감에 목메어) 영신아!

△이때 주광석 긴장된 얼굴로 달려나온다.

광석: 소대장동무! 큰일났습니다!

영진: (불길한 예감을 안고 웨치듯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광석: 지금 막 천공을 시작하면서 보니 규암층열암반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진: 뭐요?

명수: (흠칫 몸을 떤다.) 아니, 그럼?

△영진과 명수 막장으로 달려들어가려는데 형절 급한 걸음으로 나온다. 뒤따라 나오는 광

부들.

형절: 소대장! 당장 작업을 중지하고 설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할것 같네.

영진: 그럼 오늘 대발파는?

형절: 현재상태에서는 한 열흘 암반이 벌어지는 속도를 가늠해보면서 전투를 다시 해야 할것 같네.

광부들: 열흘씩이나? (억이 막혀 술렁거린다.)

영진: (머리를 젖는다.) 안됩니다. 우린 열흘이 아니라 단 하루도 물러설수 없습니다. 대발파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열흘씩이나…

형절: 누가 그걸 모르나? 하지만 로동안전규정은 법이야! (단호하게 그루박은 다음 막장지휘부로 나간다.)

광부1: (조심스럽게) 소대장동무, 어떻게 하랍니까?

영진: (침울하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철수하시오.

광부2: 그럼 전투장에서 물러서야 합니까?

광석: 물러서긴 왜 물러서? 상태를 봐가면서 전투를 계속 해야지.

△광석의 뒤따라 광부들과 영신 나가고 명수는 막장으로 들어간다.

△생각에 잠겨 홀로 거니는 영진.

영진: 어떻게 할가. … 가만! 나 혼자서라도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영진 압축기장으로 나가려는데 막장소식을 들은 윤정과 성금 나온다.

윤정: 그래 막장상태는 어떠냐?

영진: (혼연한 태도로 웃어보이며) 뭐 별일없을거예요. 원래 굴일이야 자연과의 싸움인데 그만한 난판도 없겠나요? 걱정마세요. (또다시 싱긋 웃어보인다.) 참 성금동무, 내 지금 동물 만나려고 했는데…

성금: 무슨 일인데요?

영진: 다르게 아니라 우리 동무들이 다 돌아간 다음 압축기를 좀 돌려달라는거요.

성금, 윤정:?!

영진: 내 생각엔 지금상태에서 암반이 울리지 않게 쇠바줄을 늘이고 그우에 올라서서 뒤서너구멍 뚫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오늘중으로 발파를 할수 있겠더구만. 그러니 압축기를 좀…

성금: (경악에 가까운 어조로) 그럼 빨래줄같은 쇠바줄에 올라서서 천공작업을요?

윤정: 애야, 그건 목숨을 내건 모험이 아니냐?

△이때 막장을 돌아보고 나온 명수가 다가선다.

명수: 형님!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진:넌 또 내 일을 방해하자는거냐?

명수:그런게 아니라 지금은 욕망이나 경험만으로 일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영진:이젠 날 교양까지 하는구나?

명수:형님, 제 말이 형님을 노엽혔다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정지상태에서는 쇠바줄이 견딜 수 있지만 작업중 꺼떨기가 일어나면 그땐 당할 힘이 없지 않나요?

영진:그러니 열흘동안이나 곱게 앉아있자는거냐? 숙맥처럼?! 좋다! 겁이 나면 넌 물러서라. 난 혼자서라도...

명수: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형님의 행동은 기술적인 담보가 없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쩔려구 그래요?

영진:뭐라구?!

명수:에익! (결김에 달려나간다.)

윤정:애 명수야!

성금:명수동무!

△명수 듣지 않고 나가버린다.

윤정:말이야, 너무 흥분하지 말구 좀 심사숙고해라. 그러구 난 명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영진:그럼 어머니까지도?

윤정:애야.

영진:어머니!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국이 힘겨워할 때 어깨를 들이밀줄 아는 사람, 조국이 진펄길을 걸을 때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사람, 조국이 부를 때 심장을 내밀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윤정:하지만 기술적인 담보가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수 없다. 광산대학 최우등생인 명수가 있었으면...

영진:명수 소린 하지두 마세요. 무슨 일에서나 타산부터 앞세우는 겁쟁이같은 자식!

윤정:(엄하게) 영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거냐?! 사람이 저만 저라고 하면 못쓴다.

영진:아, 어머니!...

윤정:난 결코 명수가 겁이 나서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기술적인 담보를 찾고 사고를 내지 말자고 그러는거지.

영진:어머니...

윤정:명수의 친부모님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침수될 위험에 처한 막장을 구원하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생을 서슴없이 바친 우리 광산의 영웅광부들이 아니냐.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고 명수가 달리야 될수 있겠니. 우

린 명수가 부모들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넌 형님이라 는게 자꾸 그러면 되겠니?

영진:(자책어린 목소리로)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내 생각엔 동발을 더 보강해서 암반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거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안전하게 착암을 할수 있지 않겠니?

영진:알겠어요, 어머니.

△영진 막장으로 들어간다.

윤정:애, 주의하거라.

영진:(웃으며 손을 씻는다.) 걱정마세요. 어머니.

성금:어머니, 정말 일없을가요? 난 가슴이 막... 아차 하는 순간에 암반이 무너져내리면...

윤정:성금아! 광부의 안해될 사람의 심장이 그렇게 작아서는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영진인 꼭 해낼거다. 난 믿는다. 그러니 어서 가서 압축기를 돌려라.

성금:어머니...

윤정:어서!

△성금 몇번씩이나 막장쪽을 돌아보며 압축기장 쪽으로 나간다.

△막장쪽에서 동발 들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윤정 가슴을 조인다.

△명수 나오다가 막장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고 흠칫 놀란다.

명수:어머니, 그러니 형님이 끝내...

윤정:명수 왔다. 난 네가 이렇게 울줄 믿었다.

명수:예?!

윤정:네 형님을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말아라.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제 한몸보다 광석생산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명수:그렇긴 해도... 그러다 혹시...

윤정:명수야, 난 방금 희생된 너의 부모님들 생각을 했다.

명수:?!

윤정:너의 부모님들이 석수가 터진 위험한 막장에 뛰어들 때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니?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 광석증산으로 우리 장군님을 받들고 당과 조국을 받들려는 그 고결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험한 순간에 막장에 서슴없이 뛰어들게 한것이 아니겠니. 난 네가 부모님들의 그 마음,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일에서 기술적인 타산을 해보고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보다 정신을 앞세워야 한다고 어머니 생각한다.

명수:어머니! 못난 이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순간이나마 자기자신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윤정:명수야!

명수:(절절하게) 어머니 지금껏 나를 훌륭한 광부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기울이셨지요? 그런데도 난... 어머니와 형님의 속만 태웠어요. 어머니! 내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친부모님들앞에 부끄럼없이 살기 위해 일도 더 잘하고 형님과 함께 오늘의 대밭파도 꼭 성공시키겠어요.

윤정:명수야! 내 아들이!

명수:어머니!

△그들 뜨겁게 포옹한다.

△영진 달려나온다.

영진:어머니, 동발을 다 들었어요! (명수를 보고 놀라며) 명수야!

명수:형님, 절 용서해주세요.

영진:명수야, 우둘렁거리면서 큰소리만 친 이 형을 용서해다구.

△그들 얼싸안으며 웃는다.

영진, 명수:어머니, 그럼 우린...

윤정:(대견한 눈길로 아들들을 바라보며)오냐, 난 너희들을 믿는다.

△이때 오봉숙 성금과 함께 나오다가 그들을 지켜본다.

영진, 명수:그럼 저희들은...(막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윤정:가만! (두 아들에게 다가가 뜨거운 손길로 옷자락을 여며주고 장화신은 발을 쓰다듬어준 다음 일어선다.) 자, 어서...

영진, 명수:알겠어요. (막장으로 들어간다.)

봉숙:(급히 다가서며) 형님! 형님은 어쩔려구...

윤정:광석이 엄마!

성금:(얼굴을 싸쥐고 주저앉는다.) 어머니! 난... 못 견디겠어요.

윤정:애야, 어서 일어나거라. ... 너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면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게다. 자식은 어머니의 살점과 같다는걸 말이다. 그 살점에 상처가 생기면 아파서 잠을 못 자는게 어머니란다.

성금:어머니!

봉숙:형님!

윤정:광석이 엄마, 우린 광부들의 어머니가 아닌가? 우린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전선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웃으며 떠나보내던 그날의 어머니들처럼 광물생산

으로 조국을 받들기 위해 자기의 모든걸 다 바쳐야 하네. 지금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결사전의 시기가 아닌가?

봉숙:형님!

윤정:(성금에게) 애야,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기대를 잡자. 내가 네곁에 있지 않느냐. 어서 저 애들에게 세찬 바람을 보내주자, 어서!

△윤정 성금을 이끌고 결연히 압축기장으로 나간다.

△봉숙 윤정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급히 나간다.

△이윽고 《윙-》 압축기 돌아가는 소리!

△뒤이어 착암기가 톱트림하며 돌아가는 소리!

△봉숙 광석을 이끌고 나온다.

광석:(불만스러운 얼굴로) 이걸 놓으세요. 그런데 어머니 왜 자꾸 그래요, 예?

봉숙:애야, 그래 너에겐 저 소리가 들리지 않니? 저길 바라! 지금 너의 소대장이...

광석:아니, 그럼?

봉숙:뭘 주저하느냐? 내 지금껏 널 잘못 가르쳐왔지만 너도 만아들이 아니냐?

광석:어머니!

봉숙:됐다. 어서 들어가거라. 어서!

광석:알겠어요. (막장으로 달려들어간다.)

△림형질 광부들과 함께 달려나온다.

형질:아니, 막장에서 착암기를 돌리는게 누구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쩔려구? (광부1에게) 여보게, 빨리 가서 압축기를 세우게. 빨리!

봉숙:(광부의 앞을 막아서며) 안돼요. 지금 윤정형님이 성금이와 함께 압축기를...

형질:뭐라구? (압축기실쪽을 보다가 그제야 사연을 짐작하고 물기어린 눈을 습뻑인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더니... 여보게들, 우리도 막장에 들어가서 소대장을 도와 기여이 20만톤대밭파를 성공시키자구.

광부들:알겠습니다!

△형질의 뒤를 따라 광부들 막장으로 들어간다.

△착암기소리, 압축기소리 더 높이 울리는 속에 무대 잠시 암전된다. ...

△무대 다시 밝아지면 광산일군들과 녀인들, 영신 모두 나와 긴장한 얼굴로 막장쪽을 지켜본다.

△막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발파준비!》

《설비철수 끝!》

《발파준비 끝!》

《점화!》

△이윽고 광부들 모두 막장에서 달려나온다.

△잠시후 지심을 울리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광부들:**(목소리를 합쳐 발파소리를 센다.)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다 났다! 성공  
이다!

**모두:**성공이다! 만세!

△일군들과 녀인들 모두가 20만톤대발파를 축  
하하여 광부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영신도 활짝 핀 두봉화를 영진과 명수에게 안  
겨준다.

**영진:**큰오빠! 축하해요. 작은오빠! 축하해요.

**명수:**영신아, 고맙다. 하지만 오늘 이 꽃다발은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한다.

**영진:**옳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 꽃다발을 드  
리자. (자기의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안겨주며) 어머니, 자요. 이 꽃은 어머니가 받아  
야 합니다.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광부들과 일군  
들 그리고 녀인들...

**윤정:**(당황해하며)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  
나, 응?

**봉숙:**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은 정말 꽃다발  
을 받을만 해요.

**형걸:**정말이지 저 아주머니의 가슴속에는 불  
같은 뜨거운것이 가득차있더구만.

**윤정:**아바이, 무슨 말씀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사  
는 우리 광산녀인들이야 달리는 살수 없지 않  
나요.

**모두:**어머니! 형님!

**광석:**아바이, 대를 이어 쇠돌산을 높이 쌓아  
가는 우리 어머니들은 저 두봉화처럼 곱지요?

**형걸:**아무럼. 세상 으뜸가는 미인들이지.

**영진:**자, 동무들! 우리모두 귀중한 어머니들  
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편속  
천공, 편속발파소리 더 높이 울립시다!

**광부들:**울립시다! 울립시다! 울립시다!

△광부들 모두가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열풍으  
로 광물폭포를 안아올 결의를 다지며 막장으로 달  
려나갈 때 노래가 울린다.

한생을 불타는 애국에 살면  
영원한 태양이 축복을 주리  
아 그대의 눈빛은 세상을 본다  
어머니조국이 너를 알게 하라

△윤정과 녀인들 자식들의 미더운 모습을 바라  
볼 때 음악이 고조되면서 천천히 막이 내린다.

## 영 원 한 강 의

### 리 광 규

나는 선군시대 병사  
전승기념탑 불의 언덕에  
말없이 서있는  
전화의 영웅들앞에서  
나는 강의를 듣고있다

보통삶으로는 걸어서도 오를수 없는  
영생의 언덕우에  
영웅전사들 모두 불러 세워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찾아오는 천만군민에게  
50년대 전쟁이야기 들려주라고  
싸우던 그때 그 모습으로  
높이 세워주신 사랑이여

누구든 여기서는  
평화로운 날에도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 걸어보고  
그때처럼 마음속 멸적의 총탄도 날릴수 있거니  
그것을 어찌  
해설강사의 이야기로만 들을수 있으랴  
나는 영웅들의 말없는 강의를  
심장으로 듣는다

심장에 불을 달아  
영원히 타오르게 한 영웅들의 강의  
가슴가슴에  
멸적의 장악을 재워주는  
영웅들의 강의여!

## 청 산 벌 의 서 정

엄 성 영

동녘하늘같이 희뵘하게 들리자 농장기계화 작업반 차고쪽에서 울리는 트랙토르의 어무진 발동 소리가 새벽고요를 깨뜨린다. 뒤이어 벌로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찾고 부르며 대답하는 활기면 목소리, 벌컥벌컥 문 여닫기는 소리, 어둠을 짓차며 투닥투닥 걸음을 재촉하는 발자국소리, 발자국 소리...

모내기로 한창인 청산벌의 맑고 청신한 아침이다.

문득 새벽 기류를 타고 들려오는 어느 한 익살 군총각의 능청스런 말소리... 올가을엔 잘 익은 벼 단들을 하늘높이 쌓아놓고 새침데기 복순이한테 장가를 가겠단다. 불에 데기라도 한듯 급기야 총각에게 달려가 쿵쿵 종주먹을 안기는 복순이인듯 싶은 한 처녀,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농장의 처녀, 총각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무연한 벌로 울려 퍼진다.

청산벌을 뜨기 아쉬운듯 계정을 부리며 기복을 따라 이리저리 굽니던 젓빛안개는 팔팔 소리내며 흘러드는 보물에 씻기우기라도 한듯 점차 설피어 지더니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고만다. 이미 모를 낸 논배미에서는 벼모들이 간밤의 이슬을 머금고 한결 푸르싱싱하다. 부드러운 봄바람을 타고 넓은 벌 곳곳에서 펄펄 나뭇기는 붉은기, 붉은기...

어느덧 청산벌은 각종 음향으로 가득찬다. 통통통... 둔중한 동음을 울리며 써레질을 다그치는 트랙토르들, 잠간사이에 논판이 유리판처럼 반듯해진다. 통통통... 경쾌한 동음속에 여기저기에서 규격포전을 주름잡아 달리는 모내는기계운전공들, 탄약공급수마냥 불이 번쩍나게 모춤을 섬기는 모공급수들, 그뒤로 필필이 푸른 주단 펼쳐진다.

사람들의 일손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송선전차 방송원의 열띤 목소리, 뒤따라 포전경제선동대원들이 연주하는 흥겨운 취주악소리, 누군가 한쪽 조 멋들어지게 뽑아넘기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청제비 한쌍이 제 흥에 겨워 파아란 하늘에서 논판을 향해 구겨박힐듯 내려앉더니 어느새 물을 차며 살갈이 날아오른다.

도란도란 들리는 보물소리, 구수하게 풍겨도는 흙냄새, 농장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붉은 줄이 쪽쪽 치달아오른 경정도표판...

그림과도 같고 시구절이라도 금방 흘러나올것 같은 청산벌의 정서깊은 화폭이다.

농장의 모내기실적은 벌써 절반계선을 훨씬 넘

어섰다.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면서도 지난 해보다 앞당길수 있다고 한다.

그 무엇이, 그 어떤 힘이 이렇듯 청산벌사람들에게 희열과 랑만,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는것인가, 삶의 보람과 긍지, 기쁨과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것인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만만한 각오와 배심을 가지고 농업전선의 앞장에 당당히 서있는 청산벌의 전초병들의 모습이 현실체합의 배낭을 쓴 나의 청산벌에 대한 첫 소묘속에 있었다.

나는 방금 모를 낸 논배미에서 바지가팽이를 걸어 올리고 들어가 평당포기수와 포기당대수를 세어 보고있는 민경남영웅작업반장을 만났다. 보통키, 벌에 타고 벌바람에 튼 구리빛얼굴, 수북한 장미, 과묵하게 닫긴 입...

나는 작업반장에게 자기 소개를 한 후 어떻게 되어 이렇게 모내기실적을 높일수 있었는가고 물었다.

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답대신 날로 푸르러가는 청산벌을 한동안 이윽히 둘러보고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언제나 영광의 그 봄날을 안고 산답니다.》

많은것이 함축되고 응축된 말이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5월, 청산벌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뒤설레이였다.

이날 청산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몸소 모를 내시면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청산리가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 청산벌에서 살며 일하고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쌀로써 빛내여가려는 그 불같은 열정과 맹세가 그대로 힘이 되고 지혜가 되였다는것이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자각, 나라의 쌀독을 맡고있다는 높은 책임감과 본분을 어느 한시도 잊지 않고 세판게 일손을 다그쳐왔다는것이다.

《인젠 년세도 있는것 같은데 좀 쉬엄쉬엄할것 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한마디 권했다.  
《허, 모르는 소리우다. 걸보매 늙어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벌에 나서면 외려 마음이 더 젊어져 산다오.》

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나를 보며 말꼬리를 이었다.

《우리 청산리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움속에 산다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그때처럼 문득 찾아오실것만 같아, 찾으시여 허물없이 농사일을 의논해주시것만 같아 모두 벌을 뜨지 못하는 심정이라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변덕많은 봄철날씨를 이겨내고 줄대같이 실한 모를 키울 때도, 이 벌에 첫모를 낼 때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새날을 맞고 그리움속에 하루해를 보냈을 청산리사람들!

벌을 뜨지 못하는, 언제나 벌을 안고사는 그 마음, 벌에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다고, 벼모가 크는 소리를 들어야 젊어진다고 말없는 땅처럼 묵묵히 땀과 진정을 묻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쌀로 받들려는 그 애국충정에 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그렇다. 청산벌은 결코 뒤져서는 안될 땅이며 청산리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셨던 지나간 세월의 영광을 잊지 않고 충정을 다해가야 할 사람들이다.

작업반장과 헤어진 후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나는 며칠전에 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낯을 익힌 프락포르운전수 김동무도 만나게 되었다.

농장의 기술일군들과 함께 청산벌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농기계를 창안하느라고 밤을 지새우던 청년이다. 꿈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청년, 노래를 불러도 CNC에 대한 노래만 부른다는, 그래서 최첨단돌파의 노래가 지정곡이 되었다는 청년은 일하면서 배우는 청산농업대학의 학생이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도 최첨단수준을 돌파해야 합니다.》

지조처럼 항상 되새겨오는 김동무의 말이라고 한다.

그의 머리속에는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최첨단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발한 착상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있다.

순간의 사색을 하고 한발자국의 걸음을 옮기여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려는것이 어찌 내가 만나본 몇몇 사람들의 심정만이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공지와 보람만이 아닌 높은 자각과 크나큰 책임감을 안고 날과 달을 보내는 청산벌사람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온 청산벌에 굽이치고있는 뜨거운 서정인것이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늘 가슴에 엮고 사는 그 불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뜻깊은 올해의 청산벌엔 흐뭇한 농사작황이 아름답도록 펼쳐지리라!

나는 벌써 그날을 보고있다.

청산벌의 서정은 약동하는 봄의 자연만이 아닌 그 대지를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름답게, 질게 피어나는상싶었다.

## 상 식

# 2 1 세 기 에 나 타 날 대 륙

해양지질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1세기 중엽에 지구에 새로운 대륙이 나타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 대륙은 지금으로부터 1만 5 000년전에 지구에서 없어진 리뮤리아이다. 이 면적은 아메리카대륙보다 클것이라고 한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서로 편결되어있는듯 한 크고작은 수많은 섬들이 당시 리뮤리아대륙의 산봉우리들일수 있다고 한다. 몇세기전부터 태평양의 지진대는 부단히 운동하며 수시로 지진을 일으키고있는데 이것은 대양가운데 섬들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고있다고 한다. 이런 운동으로 하여 리뮤리아대륙이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해양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1950년에 태평양연안에서 약 56km 떨어진 바다밑바닥에서 1만 5 000년전의것으로 추측되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바다물깊이는 약 4 000m였다. 그런데 1997년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곳의 깊이가 약 2 000m밖에 안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해양전문가들은 만일 태평양지진대가 지금의 강도로 지진운동을 계속한다면 21세기 초엽에는 리뮤리아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볼수 있게 될것이며 2050년경에는 대륙전반이 태평양수면에 노출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 봄 밤 의 메 아 리

박 상 민

휘영청 밝은 달이  
봄들판을 쓰다듬는 밤  
청년분조 마지막논배미에 꽃을  
벼모 한포기라도 더 뜨자고  
처녀들 오구구 땡상모판에 모여앉았네

래일이면 통장훈!  
농장에서도 제일선참  
군적으로도 제일먼저  
청년분조 모내기 끝낸 다음  
명절옷 차려입고 들놀이 가자고

분조장 명심이 또 큰소리친게지  
달빛 흐르는 논판우에  
까르르 웃음방울들이 구으누나  
벼모이파리마다에도  
웃음꽃이 방실 벼꽃인듯 피었구나

새로 넓힌 규격포전에  
틈없이 푸른 모 수놓느라  
허리춤에 질끈 매놓았던 저녁해  
서산이 훑쳐가는줄도 몰랐다는  
일육십에 폭 젖은 처녀들아

농촌지원나온 기계공장총각들  
새 모내는기계 만들어가지고 온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레장감이라

관리위원장어머니 생각도 깊은 밤이다

얼마나 좋은 봄밤이나  
래일 아침이면  
달빛 속속이 스민 감살좋은 논에  
모내는기계들 정답게 달리리  
봄들판에 넘치는 청춘의 노래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구수한 난알향기가 말해줄거야

아 나라의 쌀독에  
옥백미 가득 채울 꿈을 안고사는  
우리 농장 청년분조 처녀들  
경애하는 장군님 다녀가신 이 벌에  
푸른 벼모만 꽃아가던가  
아름다운 삶의 노래도 수놓는다네

강성대국 풍요한 벌에  
처녀들이 가꾼 벼이삭이 익을 때  
우리 장군님 기쁨의 미소 지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리라

휘영청 달밝은 이밤  
청년분조 처녀들의  
새날을 향해가며 속삭이는 소리  
달빛에 실려 벌가득 메아리쳐가누나

## 봄 들 판 의 하 루

김 충 기

어둠의 자락을 밀어버리며  
새벽문 열고 서둘러 동구길에 나서는  
다급한 그 발걸음소리에서 시작되는가  
모내기로 들뚝을 봄들판의 이 하루는

새로 받은 모내는기계 신나게 몰고  
휘파람 휘휘 포전으로 나가니  
어느새 나왔는지 선동원 순희  
새벽들바람에 머리수건 날리며  
논두렁에 붉은기 꽃아가누나

간밤에도 함께 모를 뜨며  
우리는 서로 약속했지  
울농사의 모내기  
시작부터 잘하자고 본때를 보이자고  
마주보며 곱씹어 다짐했지

아무렴 본때를 보여야지  
선군으로 천지개벽된 이 벌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 보내준  
새로운 농기계 주체비료로 농사를 지으며



나라쌀독을 뚫게 한다는것 말도 안된다던  
네 목소리 지금도 가슴을 치누나

정초부터 그 마음으로  
신들메를 풀새없이 달려온 우리  
올해농사에서 대변혁을 일으키자고  
강성대국의 고간에 쌀이 가득 넘치게 하자고  
엄동설한에도 심장의 피를 끓이지 않았더냐

허나 이 봄에  
잠시라도 일손을 늦추면  
풍작의 가을도 늦어지기에  
들판엔 민들레 곱게 피어 반기고  
하늘엔 종달새 은방울 굴려도  
미처 눈줄새 없는 모내기 하루다

강성대국의 큰 살림을 펼치느라고  
더 많은 쌀이 있어야 할 조국에  
농사의 주인된 본분을 다하자고

우리 장군님 더는 쌀때문에  
눈비 내리는 포전길 걷게 하시지 말자고

이몸 그대로 한포기 푸른 모 되어  
들가득 알찬 가을 안아오고싶나니  
그래서 이 하루에  
드넓은 이 벌에 푸른 주단을 다 펼칠듯  
온종일 달리고달려도 성차지 않을 내 마음이다

이 땅에 더 높이 올려퍼질  
강성대국승리 만세소리이며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인 쌀  
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인 쌀을 위해

달리는 걸음에 박차를 가하여  
일손에 불을 단 내 마음마냥  
저 하늘의 해도 불타는  
시작부터 뜨겁게 불타는  
오! 봄들판의 하루다

## 봄 문을 열 고

### 심 복 실

흰 안개발을 온몸에 감고  
마지막배미로 넘어서는데  
포전방송에선 끝없이 엇바뀌는  
분조별순위를 불러대기 바쁘네

재우치는 일손에 불이 달렸어라  
쌀로써 애국의 전통을 이으라신  
아버이장군님의 그 믿음 그 당부  
어러리 넓은 벌에 하도 절절해

때일찍 봄의 문을 이 가슴에 열어놓고  
벌을 살찌우려 새운 밤 밝은 눈은 그 얼마  
그대로 아름다운 나의 봄 나의 벌  
기어이 쌀폭포를 터치고야말리라

종다리 우짖는 전초선에  
애국의 땀방울을 구슬구슬 뿌리며  
내 굽어보는 봄의 전야는  
아버이장군님의 강성대국작전도에  
붉은 화살표가 집중된 주공전선!

파란 벼포기만 내지 않았네  
어러리벌 가득히 배미마다 빠짐없이  
가을에 터칠 축포탄을 장약했네  
아 내 가슴 가득히 푸르른것은  
황금이삭 고개숙여 드리워진 하늘가

그 하늘이 나의 벌과 손을 잡은 곳  
지평선 끝까지 푸른 주단 곱게 펴고  
이삭의 파도를 예 부르며  
달리는 내 마음엔 봄아지랑이...

100리 푸른 주단벌 저 한끝에  
누런 이삭 물결치는 가을이 웃네  
쌀이 넘쳐 기쁨도 큰 내 나라 사회주의  
나를 향해 미소짓네 종다리를 부르네

아 나의 봄대문안에  
강성대국아 네가 솟으리  
너의 문손잡이에 봄물이 푸르르니  
나의 봄벌에서 네가 제일 가깝구나!

## 하늘아래 첫 동네

리 성 식

창성 하면 사람들은 《창성이 변했소 지난해와 또 다르게 창성이 변했소》라는 노래의 한 구절부터 먼저 머리속에 떠올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현지도하신 소식이 온 나라 곳곳에 전해진 이후 나는 환갑을 맞는 이모를 찾아볼겸 취재차로 창성군을 찾았던 적이 있었다.

하늘을 치받듯 아아히 메부리를 솟군 험준한 산밭을 거느리고 창성읍을 관문처럼 막아선 령을 넘느라니 감정이 이상해졌다.

내가 창성이란 지명이름을 처음 익힌것은 중학 시절 어느 겨울철이었다.

그때 만누이 결혼식때문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창성이모도 왔었다.

이모는 커다란 배낭을 두개씩이나 가지고왔었다. 그때만 해도 창성이라 하면 해방전에 도토리죽을 먹으며 꿰진 신발을 신고 힘들게 사는 깊디 깊은 산골, 하늘아래 첫 동네라는 인식이 다분했던지라 이모가 말린 산나물이나 가져오면 고작일 것이라고 여겼던 친척들은 웬 짐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의아스러워했다.

하지만 짐을 펼쳐보던 친척들은 모두 입을 딱 벌렸다. 파자, 사탕, 도토리술병들, 산과싹통줄임이며 양털내의류...

《이건 오다가 어디서 산거냐? 산골에서 어떻게 이런 희한한걸 다...》

어머니가 이러며 혀를 차자 이모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이참, 이건 다 우리 창성의 〈황금산〉 제품들이예요.》

계속하여 이모는 창성땅에서 일어난 전변에 대해 말해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1960년대초 창성을 현지도하시면서 산을 잘 리용하여 산골군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군내민민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우선 산에서 나는것

들을 원료로 하는 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 같은 지방산업공장들부터 건설하였다.

옛날에 피, 기장을 심던 산골짜기 뚝배기에서는 뽕누에를 치고 고추농사를 지어 벌방의 흰쌀과 바꾸어먹고 양을 대대적으로 길러 그 털로 질 좋은 내의류를 만들어입게 하였으며 나무에서 뽑은 종이로는 도배지와 학습장을 만들어 주민세대와 학교들에 공급하고 산열매를 많이 따서 수매하여 생활수입을 높였다.

그래서 창성땅의 모든 산들이 물질적재부를 안겨주는 황금산이 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구나. 산밖에 없어 대대로 못산다던 창성사람들이 수령님덕분으로 산때문에 잘살게 되었구나. 부모님들이 막내인 너를 그곳에 시집보내놓고 늘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젠...》

어머니는 목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곱만 흘렸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직접 창성땅을 밟아보게 되니 자연히 생각이 많아졌다.

그새 창성이 얼마나 더 변했을까 하는 호기심과 아울러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들에서 소개하던 전변의 창조자들인 창성사람들에 대한 탄복이 떠나질 않았다.

소문그대로 정말 놀라운 현실이 나를 맞아주었다. 읍거리와 마을들이 새 세기 맛이 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새로 꾸려졌고 공공건물들과 지방산업 공장들은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었다.

영화관이며 놀이터를 찾는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여기가 진짜 두메산골 창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네 집에 들어서서 친척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고난 나는 도시특산품들을 꺼내놓았다. 번쩍거리는 포장지안의 공업품과 식료품들을 본 사촌누이동생이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괜한 수고를 했군요, 오빠.》

《괜한 수고라니?! 그래도 산골사람들을 생각해서 품놓고 마련해왔는데...》

내가 나무람을 쓰자 재미있다는듯 사촌누이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오빠한테 창성구경을 좀 시켜야겠군요.》

하여 나는 군인민위원회 부원인 누이동생을 따라 창성군내 지방산업공장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형형색색의 털뜨개내의를 만들어내는 직물공장과 질 좋은 종이들이 통구리로 쌓인 종이공장을 돌아보고나서 경치 좋은 산기슭에 자리잡은 식료공장에 이르니 희한한 광경이 다시금 나를 맞아 주었다.

현대적설비들로 개건된 그곳에서는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대단한 각종 산과실 가공품과 맛있는 기초식품들이 한창 생산되고있었다. 머루, 다래, 찹쌀이, 가시오갈피 등의 산과실단들은 빛갈끔고 향기로울뿐아니라 약효 또한 커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수요가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허, 산골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이 이제 세계에까지 진출한다?! 대단하군, 대단해.》

《이 모든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룩된 것이요.》

사촌누이동생이 나에게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느해엔가는 찬바람을 맞으며 머나먼 외진 산골 창성에까지 찾아오시여 창성사람들이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신심과 용기도 안겨주시고 난관을 극복하고 새생활을 창조할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었다.

푼전을 쪼개써야 했던 그 어렵던 시기 귀중한 자금과 자재,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여 창성

군을 일신시키도록 하시였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군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도 실현하도록 해주시었다.

군내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떨쳐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생활을 운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나간 세월에 이어 황금산의 노래가 계속 불리워지게 된 것이 아닌가.

정말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화족들이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재부를 창조하는 창성사람들.

제고장의 산과 들을 잘 리용하고 가꾸어 잘살게 해주시려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념원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지도도강행군의 자욱아래 꽃피어나는 이 현실 어찌 창성땅 한곳이라.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선경마을로 꽃피어나는 곳이 다 오늘날의 우리 조국을 이루었거니.

정녕 그 옛날 하늘아래서 사람 못살 첫 동네였던 험산외지 창성이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장군님의 부르심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선 헌신적인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오늘날 사회주의의 하늘아래 살기 좋은 첫 동네로 세상에 이름나게 되었다.

흐뭇한 감개를 안고 나는 다시금 읍거리를 둘러 보았다.

하늘아래 첫 동네. 암! 사회주의의 하늘아래 행복한 첫 동네라...

창성땅 곳곳에서 울리는 행복의 노래소리에 실려 황금산의 력사는 멈춤없이 흐르고있다.

## 상 식

# 예견되는 21세기의 과학기술적진보

△2018년에 가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인공 두뇌가 출현할것이다.

△2020년에 홀로그램기술을 리용한 립체영상텔레비존이 출현할것이다.

△2025년에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에 접속되며 전자세계를 만들어낼것이다.

△2030년에 사람처럼 생기고 아인슈타인의 지능만 한 두뇌를 가진 로봇트가 출현할것이다.

△2035년에 나노기술을 도입한 치약이 나오게 된다. 그러한 치약속의 분자크기만 한 극소형 로봇트들이 이빨에 생겨난 치석과 카리에스를 제거하게 될것이다.

△2050년에 가면 달에 지구촌건설이 완공되며 화성실험실건설이 계속될것이다.

△2100년에 가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의 개성을 컴퓨터로 프로그램화하여 보존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게 될것이다.



최치성

1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면 누구든 중년기에 이르러 반드시 느껴보게 되는 류다른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 느낌은 무척 놀라운것인 동시에 무척 크고 심오한 의미를 띠고 마음속 깊은 곳에 뜨겁게 들어앉는 감정이다.

그것을 김경준은 오늘 비로소 체험해보게 되었다.

갓 익기 시작한 감빛의 저녁노을이 편집부의 창유리를 불빛이 물들일무렵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고 《××편집부니다.》라고 대답하자 《여보세요, 저예요.》라는 무릅없는 녀인의 음성이 수화기를 쟁쟁 울리는것이였다. 그것은 아주 번잡한 거리의 소음속에서 한마디 짝막하게 울렸다 해도 얼른 고개를 돌릴만큼 귀에 익어진 안해의 목소리였다.

필요없이는 전화를 하지 않던 안해여서 경준은 자연 긴장해졌다.

《왜? 무슨 일이 생겼소?》

그러자 얼굴표정마저 방불해질 정도로 미안스러움이 확인한 안해의 목소리가 얼른 뒤를 이었다.

《아니,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귀연이네 학교 음악선생이 말이에요, 우릴 만나보겠다는데...》

《음악선생? 갑자기 음악선생이 왜?》

《여보세요, 지금 긴장했어요? (분명 웃음기가 실린 어조였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 귀연이 장래문제를 토론해보자구 오시겠다는거예요.》

귀연이의 장래문제?...

한순간 김경준은 지극히 통속적인 말뜻조차 리

해할수 없어 그만 어리벙벙해졌다.

장래문제! 벌써 그런 때가 왔는가?... 어제 저녁에만도 아버지를 넋 떠 끌어안고 《봐요, 나 또 컸지? 내 눈하구 아버지 입하구 직선이잖아.》이라며 어리광을 부리던 그 철부지에게?...

경준은 자기 책상들에 잠잠히 앉아있는 세명의 편집원을 흘끔 돌아보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음악선생이 왜? 담임도 아닌데...》

《그런게 아니구요, 우리 귀연이한테 확고하게 성악가적소질이 있대요. 변성기에 드물게 나타나군 하는 특이한 음색이라던지... 그래서 부모들의 의향을 들어보겠다는거지요 뭐.》

안해는 분명 《확고하게》에 강한 력점을 찍고 있었다.

경준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송수화기를 바꿔잡았다.

올해 중학교 5학년생이 된 만팔 귀연이로 말하면 나이에 비해 키도 크고 인물도 환한편인데 수학이나 물리, 외국어과목에서는 학년적으로 세손가락안에 들고 다른 과목들에서도 다섯손가락밖으로 빠져본적이 없다는 최우등생이였다. 그런데 음악과목이란 좀 류다른것이여서 성적은 어떤지, 또 그 방면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껏 들은적도, 깊이 관심해본적도 없었다. 지금 얼추 생각해보니 간혹 기회가 생겨 그 애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만하면 듣기 괜찮군 하고 머리를 끄덕거렸던것만은 사실인데 바로 그 목소리에 확고하게 성악가적소질이 숨어있었다?... 하긴 변성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음색이라고 했지...

그런데 혹시 그 음악교원이 오진을 한건 아닐가?...

김경준이 그런 의문을 내비치자 안해의 음성은

즉시에 높아졌다.

《여보세요, 귀연이 아버지인 그 선생 실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전문성악배우들을 적지 않게 키워 냈다는데...》

그리고보면 안해는 벌써 확고하게 음악선생편에 가붙은 자세였다.

아무튼 김경준은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가슴뿌듯한 즐거움을 맛보며 다시 한번 송수화기를 바꿔 잡았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까지 높아졌다.

《그렇게 확고하다면야 그 방향으로 키우는거지 뭐. 꼭 나하구 마주앉아야 할 필은 없을것 같은데... 당신은 이미 찬성인거구. 안 그렇소?》

《맞지요 뭐. 그런데 글썄 귀연이가 말이에요. 선생님일 잘못 보셨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니, 여보세요. 전화루야 어떻게 긴 말을 다 하겠나요.》

《그렇다면 전화는 왜 걸었소? 행정시간인데.》

《어마나, 내가 말 안했던가요? 혹시 늦어질 어을 일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해서 미리 알려드리 는거지요 뭐. 그리구 여보세요, 시계를 좀 보시 라요. 행정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안해의 시간착오는 그럴만도 한것이였다.

바쁜 아침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기고 싶어 귀연이가 15분나마 빠르게 해놓은지도 벌써 석삼년은 더 지난 까닭에 그것을 알고있는 안 해조차 꼭맞는 시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것이였다.

《어쨌든 알았소. 만나봅시다.》

경준이 전화를 끝내자 세 편집원이 동시에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

무엇을 뜻하는 눈빛들인지...

《미안합니다.》

한마디 사과하자 녀성편집원 김수경이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일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 입니까. 부장동지나이쯤 되면야 자식들 문제가 첫째 아닙니까.》

김수경은 올해 서른세살의 가정부인으로서 부서의 네사람중, 나이로서는 끝으로 두번째 자리였지만 사생활의 론리와 그 분석판단의 측면에서는 단연 원로로 인정받고있는 녀인이였다. 녀성이란 대개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때로는 남성에 비해 궁냥이 깊을 때도 있어서이겠지만 원래 남달리 명석한 두뇌와 정확한 분석력을 소유한 김수경이였다.

그래, 자식문제가 첫째란 말이지. 이제는...

불현듯 마흔셋이라는 자신의 나이와 함께 어느 옛 소설에서 읽었던 《마흔셋쯤 됐음직한 중늙은이가 뒤웅박을 만들고있었다. ...》라는 문구가 새삼스럽게 뇌리에 떠오르며 심경이 야릇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허엇, 참...)

김경준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면서도 일종의 환희로움으로 하여 가슴이 그들떡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수경동무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예능소질을 타고났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부서의 세 남자중 두번째로 나이가 많은 리평수가 하는 말이었다. 지난해에 배치받아온 부서의 막내가 박호산이까지도 평소에 조용했던 그답지 않게 눈을 번쩍거리며 끼어들었다.

《부장동지, 그 음악선생이 진짜 실력갑니다. 저도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보니 김경준이 전화를 하는 동안 저마끔 돌아앉아 자기 일을 하고있을것 같애도 실상은 저마다 귀를 바짝 강구고있었던 모양이였다.

자연 경준은 일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말해줄수 밖에 없게 되였다.

귀연이에 대해 아직 다는 모르고있는 편집원들은 사연을 듣자 이구동성으로 찬성이였다.

그렇듯 실력있는 교원이라면 틀림없겠다는것, 처녀애들 경우에 잘 어울리는 선택이라는것, 그만하면 만팔문제는 꽤창게 해결될것 같다는것이 그들의 종합심의 의견이였다.

나중에 김수경이 《귀연이 의사는 어떤지?...》라고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아까 안해가 했던 말이 피땀 생각키웠지만 한껏 즐거워진 감정의 파도에 얼른 밀려가버리고말았다.

생각해보니 이 비슷한 일이 몇해전에도 한번 있었었다.

딸애가 2학년때인가 문득 물리과목담당 교원이 가정방문을 왔던적이 있었다. 전혀 뜻밖의 용건이였던데다가 그날 마침 우수절기도 지나간 때 아닌 때에 보기 드문 큰 눈이 내렸던터여서 경준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눈이 녹아 축축해졌던 녀교원의 외투자락과 귀밀의 몇오리 흰머리카락이며 무척 다심하고 사려깊어보이는 눈빛까지도...

그때에도 물리교원은 처녀애로서는 흔치 않게 남달리 물리학에 집착하며 또한 그 과목에서 남다르게 우수한 실력을 가진 귀연이의 탐구적성격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귀연이를 물리소조에 넣으려는데 부모들의 의향은 어떠한지 알아보

고싶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날 경준은 물리 교원의 의견을 흔연히 수긍하였다. 아이들이 그 나이때부터 학교의 여러 소조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예상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꼭진한 어조로 말하는 40대 후반의 녀교원을 마주보며 고마움으로 훈훈해지던 감정만은 아직도 진한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음악선생이 귀여이의 또 다른 소질을 발견해내고 찾아오겠다니 얼마나 고맙고도 반가운 일인가.

경준은 류다른 기쁨과 유쾌감으로 하여 가슴이 달아오르고 눈이 습벅습벅해졌다. 한데 거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긴 한숨이 푸욱 내뿜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정이 이상해진단 말이요.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렇다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내리눌리우는 중압감이 느껴지거든.》

《부장동지, 혹시...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허무감은 아닙니까?》

리평수가 분명 통답이되 짐짓 신중한 기색을 짓고 머리까지 설레설레 저어대자 김수경이 즉시에 시정을 해주었다. 통답으로 받아들였는지 진담으로 오해한 것인지는 모르나...

《아니, 정 반땀니다. 그건 허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김경준은 아무말없이, 그러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수경은 매사에 정확한 결론을 찾아낼 줄 아는 명민한 녀인이었다.

잠시후 례의 간단한 하루사업총화가 있는 다음 편집원들이 먼저 퇴근을 했다.

부장을 포함하여 네명뿐인 자연과학부문의 출판사의 한개 부서였지만 편집량은 적지 않아서 퇴근 후 30분정도씩은 더 일하곤 하는 것이 김경준의 고정일과였다. 오늘 역시 그 일과는 변경되지 않았다.

경준은 컴퓨터를 켜고 당장 출판에 넘겨야 할 원고파일을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오후에 주필에게서 받은 의견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다.

음미해보니 다 웅당한 결함이었고 의견 또한 정당한 것들이었다.

원고를 다 보고난 경준은 주먹에 이마를 얹고 흐음 코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이 원고들때문만이 아니라 늘쌍 마음속 한구석을 떠날 줄 모르는 안타까움, 언제 가야 막히는데 없는 원만한 일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그의 남모르는 번뇌였었다. 자신의 앞날에도 아직 수십년이라는 짧은 앞날이 놓여있는데 벌써 자식의 장래문제가

첫째의 것으로 상정되는 판이니... 그러고보면 김수경의 결론도 절대적인 것으로만 감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경준이 저으기 무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손에 들었을 때 문득 손기척 소리가 울렸다.

똑 또도독...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그러한 손기척의 임자는 십중팔구 녀인이 아니면 타기관에서 찾아온 손님일 것이다.

누군가?... 퇴근시간도 지나서 찾아온 손님은?...

## 2

손님이 준 첫인상은 편집부들에 흔히 오곤 하는 대학교원이나 연구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좀 특이한 것은 나이를 얻은 대중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심스러운 행동거지며, 정도이상으로 례의 적인 얼굴표정과 말쑥한 생김새로써는 서든땀살쯤 나보이는데 확 벗어진 대머리와 부한 몸집을 보면 김경준과 거의 동년배일 듯도 싶었다.

때이르게 이마가 벗어진 데다가 머리숱까지 적어서 거의나 원형을 이룬 얼굴에 살색은 무척 희었다.

등근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띄우고 동안뜨게 눈을 습벅거리는데 꼭 다물었다가 벌리곤 하는 입이며 앞으로 슬그머니 내민 상체로 보아 가져온 용건이 무척 절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때늦게 찾아온 데 대한 사죄와 그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 초면간의 례의 인사말이며 손님의 자기소개 등이 오고간 다음에 그는 가방속에서 USB기억기를 꺼내놓았다.

《부장선생님, 전 이 원고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과학원 증분원 연구사 윤원성은 경준이 뭐라 물을새도 없게 성급히 뒤를 이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겠는지... 증공업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한명원교수 선생님 말입니다.》

한명원교수?!... 한명원교수...

인간의 사고란 이렇게도 자유분방한 것이었던가. 어쩌면 그렇게도 쉽사리 현재를 떠나 아득히 흘러간 과거로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아직두 모르겠소? 코출혈을 멈추는 약이야. 멍청히 내려다보긴... 자, 식기 전에 어서 들라구.》...

친형과도 같이, 아버지와도 같이 자애스러운 그 목소리...

김경준은 가슴이 찌르르 울리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언간 스무해가 넘었구나... 하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작가들이 들으면 시도 되고 소설로도 씌여질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이야기들을 차넘치게 한가득 품어안은 나의 대학시절 그때로부터...

그 회백색빛갈조차 가슴몽클한 유정함을 자아내던 모교의 본청사건물과 거기 4층의 정면에 위치하였던 자기들의 교실 10호며 한생 잊지 못할 친근한 학우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불현듯 김경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불길한 직감이,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흥벽을 두드리고있었다.

《그런데?... 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교편을 잡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윤원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약간 숙이며 긴숨을 내쉬었다.

《우리 선생님은 한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구요? 우리 선생님이?...》

창졸간의 놀라움으로 하여 커다랗게 흠뻑지는 눈... 윤원성의 두눈도 서서히 커진다. 역시 놀라움때문이라. 하지만 김경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움이였다. ...

신선한 가을저녁이 은근하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창밖의 거리에 어느새 가로등이 켜져있었다. 못내 사색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노을색의 가로등빛아래로 또 하루 기꺼이 흘러보낸 생의 보람과 희열이 용용히 흘러가고있었다.

벽차고도 정서적인 그 풍경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아니, 어찌 보면 꼭 어울리는것만 같은 김경준의 애뜻한 추억... 그 추억의 속갈피에 색바래지 않은 사진처럼 고이 간직되어있는 스승의 모습이 웃음뎀 얼굴로 제자를 바라보고있었다.

나이는 예순다섯, 아직 10년은 더 교단에 서계실수도 있었겠으나 그만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옛 담임선생 한명원교수였다.

《부장동지가 우리 대학 졸업생일줄은... 더구나 한명원교수자신이 담임선생님이였을줄은 정말 꿈에도 짐작 못했습니다.》

윤원성의 상기된 얼굴에는 형언 못할 감회와 함께 만사름이 다 풀린듯 한 안도감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경준에게 있어서도 그와의 상봉은 참으로 반갑고도 기이한것이였다. 알고보니 윤원성은 경준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해에 입학한 한 후배였다. 그리고 두사람의 담임선생은 한명원교수 한사람이였다.

뜻깊은 상봉의 희열이 고즈녁이 잦아든 후 윤원성이 사연을 말해주었다.

《...선생님은 사실 다년간 그 병때문에 신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색을 하지 않으셔서 강좌안의 교원들도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사흘전까지도 강의를 하셨다니까요.》

김경준은 무거운 낮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출장길에 잠깐 찾아보았을 때 몸시도 수척해졌던 교수, 그러나 흔연히 웃으면서 아무 탈없노라고 제자를 안심시켜주시던 선생님이였다.

그렇수밖에 없는 사람, 달리는 살수 없는 진실하고도 강직한 교육자가 아니였던가.

문득 김경준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윤원성이 기다렸던듯 아까부터 손에 쥐고있던 USB기억기를 조심스럽게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선생님이 쓰신 원고가 입력되어있습니다.》

《?!》

상상속의 옛 스승이 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듯 한 환각이 온몸을 사로잡는 순간이였다.

경준은 USB기억기를 두손으로 정히 감싸쥐었다. 감싸쥔 손아귀에 심신의 열과 정이 짙그리 모여든다. 왜 안 그렇겠는가. 보물중에도 가장 값진 보물처럼 여겨지는 스승의 유고임에라...

《부장동지도...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유기화학분야의 교육자로서는 원로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저서가 몇권 안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중 박사만도 10명이 넘고 지난해에는 후보원사까지 배출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자나깨나 교과서집필에만 전념하셨지요. 하지만 선생님도 인간인데 왜 책을 내고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원고도 불과 한해전부터 쓰기 시작한것입니다.》

바로 그것때문에, 옛 담임선생님의 남모르는 가슴속 소원을 풀어드리고싶어 바쁜 출장길에 편집부를 찾아온 윤원성이였다.

유기화학의 발전에 가치가 큰 논문이여서 대학측에서 가져다가 읽고 논의하던중 우연히 모교에 들렀던 윤원성이 그것을 알게 되였다. 때마침 평양출장이 계획되어있었던지라 이번 걸음에 꼭 출판에 성사시키겠다고 스스로 말아나섰던것이였다.

김경준은 이제야 비로소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됨을 의식하고있었다. 볼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정이 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였다.

그도 대학을 졸업한지 열다섯해나 지나갔고 수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중요연구과제를 완성하느라 드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항상 옛 스승과 정

을 나누어왔고 오늘은 또 그의 저서출판을 위해 쉽지 않은 걸음을 했다.

그게 다만 선생님 가까이에 있어서만 발현될수 있는 그런 의리였을가. 내가 만약 윤원성의 위치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처신하였을것인가.

김경준은 자책과 고마움의 마음을 함께 담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윤동무, 동무는 정말 좋은 제자요. 고맙소, 고마워.》

윤원성은 맞잡은 손에 아프도록 힘을 주며 목갈린 소리를 냈다.

《아닙니다. 사람의 한생에 가장 행복하고 뜻깊게 새겨지는 대학시절에... 부장동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 전... 졸업하면 이른바 먹을알이 있는 부문에 가겠다는 판만을 먹고 비록 한때일망정 학업을 게을리하였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의 종아리를 쳐주고 친아버지같은 사랑으로 바른길에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랑심도 의리도 모르는 무뢰한이 되었을겁니다. 그렇게 놓고볼 때 사실 부장동지의 인사를 받을만 한 제자가 못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수록 친근하게 안겨오는 원성의 얼굴을 마주보며 경준은 다정히 말했다.

《원성동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름답고 진실해지는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인사를 땃땃이 받을 자격은 가진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제 그 인사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대신... 그대신 선생님의 저서가 출판되는 날에는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다.》

울먹거려지는 절절한 목소리... 눈가에서 핑그르땀을 도는, 결코 흔하지 않은 사나이의 눈물빛을 보는 순간 경준은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 자신의 눈시울도 찢르르 울리는가싶더니 창너머의 가로등빛이 부딪하게 흐려져보였다.

《그러지 마오. 한선생님은 나에게도 스승이 아닌가. 그러구 너무 원심쓰지 마오. 우리 선생님의 원고인데 어련하겠소. 최대한 빨리 출판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잠시후 그들은 거리에 나섰다. 실내와는 판이하게 서늘한 대기와 들끓듯 변화한 거리의 풍경으로 하여 두사람의 기분상태는 저즈기 밝아졌다. 눈앞에 박두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열기가 그 어디에서나 확확 마쳐오고 있었다.

윤원성에게서 스승의 가정이야기이며 그 자신의 연구사업정형에 대해 들으면서 걷느라니 어느

새 경준의 집 어방에 이르렀다.

《저-기 두번째 고충살림집이 우리 집이요. 오늘 밤은 나하구 함께 잡시다.》

그러자 윤원성은 갑자기 딱 뻗치고서며 손을 내젓는것이였다.

《아니, 일없습니다. 여기서 헤어집시다.》

《잡시다. 별다른건 없어두 러판보다야 낫겠지.》

《아닙니다. 전 처가가 평양에 있습니다.》

《아, 그렇소?》

김경준이 새삼스런 눈길로 쳐다보자 윤원성은 시뭇이 웃으며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8비날론에 3대혁명소조로 나갔는데 경공업대학 학생들도 몇이 나왔더군요. 그중에 인물도 쏠쏠하고 성질도 피딱하지만 실력만은 아주 팬찮은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후에 우리 집사람이 되었지요. 평양에서 고이 나서자라긴 했지만 할수 있습니다. 바늘따라실 가기마련 아닙니까.》

김경준은 더욱더 친숙하게 안겨오는 윤원성의 동실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렴, 좋은 사람따라 처녀들이 가지... 그건 그거고 오늘밤만은 우리 집에 가지요. 오래간만에 만난... 아니, 처음 만난 선후배간인데 회포를 나누어야 할게 아닌가.》

그러자 윤원성이 목갈린 음성으로 대답했다.

《고맙지만 후에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원고를 봐야 하지 않습니다.》

《?》

경준은 말없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아까 자기가 USB기억기를 가방속에 넣는것을 놓치지 않고 여겨보았으리라. 바로 그래서 굳이 사양하는것이리라. ...

분명 밤새워 원고를 읽게 될 선배에 대한 녀려, 그보다는 스승의 원고가 하루빨리 출판되기를 바라는 무언의 기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김경준은 윤원성의 팔굽을 다시한번 지그시 잡아주었다.

### 3

아무래도 오늘은 류달리 뜻깊은 날로 특별히 새겨두어야 할 그런 날인 모양이였다.

이미 자신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있었던 좋은 사람들을 다시금 혹은 새로이 알게 되는 즐거운 날



이 아닌지...

김경준이 퇴근해오자 기다렸던듯 뒤따라 들어선 음악교원역시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나이라든가 성별 같은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추측도 해볼새가 없었는데 정작 만나보니 환갑나이가 된 사람이었다.

그것이 김경준을 더욱 감동케 했다.

한생을 교단에서 보내고 이제는 말년에 이르렀지만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왕성한 의욕으로 밤길도 즐겨 걷는 사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느라니 자꾸만 한명원교수의 모습이 밟혀와서 마음은 더욱 후터워졌다.

아까 안해는 음악교원의 공적을 두고 그저 간단하게 말했었지만 알고보니 경준이까지 잘 알고있는 성악배우 몇사람도 바로 이 교원의 제자라는 것이었다.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제 딸의 음악선생님이 그런분인줄도 모르고있었으니 참... 그러고보면 조기성악교육분야에서는 박사인셈입니다. 논문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음악교원은 길쭉하나 혈색좋은 얼굴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띄우며 손부터 내저었다.

《아하, 송구스러운 말씀... 제가 키웁니까, 우리 제도가 키우지요. 하긴 논문을 쓰라는 권고가 없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교육자에게는 온 나라가 다 알게 홀룡해진 제자들이 곧 그자신의 명예이고 학위이며 삶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 이미 교육자로서의 모든것을 다 성취한셈입니다. 하하.》

소탈하고 겸손한 그의 품성에 경준은 더욱더 마음이 즐거워졌다.

《귀연이 어데 있냐?... 여보, 당신도 들어오오.》

경준이 사뭇 흥에 뜬 어조로 부르자 사이문밖에서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잠간 들려오더니 소리없이 귀연이가 들어왔다. 학생복대신 미색세타에 흰점 박힌 연보라빛실내치마를 입고 얹전히 와있는 딸애를 보자 부지중 경준은 허엇 하고 탄식비슷한 소리를 냈다.

어쩌면 하루사이에 이렇게도 달라져보일수 있단 말인가. 어제 이맘때까지도 철부지 웅석반이로만 보였던 소녀가 오늘은 문득 성숙한 20대의 처녀로 안겨오는것은 참으로 이상야릇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경준은 넋지시 음악교원을 한번 돌아보고나서 웃음섞인 어조로 물었다.

《선생님이 잘못 보셨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서? 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구나. 무슨 다른 리유는 없는지... 어서 대답해봐라. 네앞엔 지금 선생님과 아버지만 있으니 기탄없이... (이런 말뜻까지 리해를 할가?) 그래, 꺼리낄것 없으니 어서 대답을 해라.》

오늘 낮 자기 동무들앞에서 선생님이 잘못 보셨다고 당돌하게 말한 귀연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본인당자를 만나 차근차근 설득시켜보았으나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꼭 무슨 사연인가 있을듯싶어 이렇게 부모들을 찾아온 음악교원이었다.

《어서 대답을 해라. 우리끼린데...》

어느새에 들어왔는지 안해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사이문가에 서있었다. 안해의 말속에는 서로 다른 두가지 뜻이 내재되어있음이 얼른 알려졌다. 하나는 딸더러 이제라도 선생님의 요구대로 순응하라는 강권이였고 다른 하나는 벌써 음악교원을 딸의 장래를 띄워줄 《우리》 사람으로 확고히 믿고있다는 심리였다.

무작정의 그 주판에 반발이 생겼는지 귀연이는 눈귀에 힘을 주어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고나서 누구에게라없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전 물리가 더 좋습니다.》

경준은 가벼우나 예리한 충격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음악교원을 돌아보았다. 반백의 술적은 머리칼너머로 언뜻 다른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창밖에서 여전히 한모양으로 쏟아져내리던 함박눈송이들, 보기에도 물기가 확연한 외투자락과 때이르게 희여진 귀밑머리이며...

이제 와서 다시금 되새겨보니 녀교원은 마치도 제 딸의 앞날때문에 그 누군가를 찾아온 친어머니의 모습으로 자기앞에 마주앉아있었다.

그 선생은 지금의 이 일을 알고나 있을까?...

아마 모르고있을것이라는 짐작이 얼른 갈마들며 한순간 마음이 착잡해졌다.

경준은 긴숨을 한번 내쉬고나서 귀연이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성악가적소질도 확고하게 가지고있다고 하시지 않느냐. 정말로 선생님이 잘못 보신것이 아니라면 어찌겠느냐?》

그러나 귀연이는 고개를 고집스레 숙이고앉아 치마말기만 잡아비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인 음악교원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예, 저도 귀연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때문에 꼭 성악배우가 되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으십시오. 귀연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음악교원의 마지막말에는 특별한 력점이 찍혀져 있었다.

음악교원이 돌아간 다음 경준은 다시금 팔애를 불러앓혔다.

《귀연아, 서둘러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그 물리학이 절대적이거나 전 부인것도 아니고... 그러니 다시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귀연이는 요지부동이였다.

《암만 생각해봐도 물리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물리선생님도 승낙하지 않으실거예요. 내가 꼭 성공할거라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 찰나에 안해가 하얗게 빨아 짠 방걸레를 쥐고들어오며 제잡담 끼어들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래서 물리선생님한테 미안한감도 없진 않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올바른 선택도 할수 없다면?... 그거야 잘못된게 아니니?》

《어머니, 난 미안해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귀연이의 고집은 한눈금도 내릴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이나?》

아버지의 물음에 딸은 얼른 다소곳해졌다.

《그건... 아버지도 알잖나요. 난 수학, 물리가 제일 좋아요. 바로 거기서 인공지구위성도 나오고 CNC도 나왔지요? 그리고... 난 꼭 박사가 되고싶어요.》

특별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대답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귀연이는 남달리 비상한 수학적, 탐구적두뇌를 갖고있었다. 한데 그 물리학이 녀성들에게 한한것일 때에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표현상으로는 음악이나 물리학이나 똑 같은것이지만 실상 그 두 개념의 실천과정에는 얼마나 복잡다단한 차이가 존재하고있는것인가.

눈치빠른 안해가 경준의 속생각을 대변해나섰다.

《애, 너 박사가 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나 하니? 정말 힘에 겨운 일이지. 그리고... 인민배우쯤 되면야 박사가 되는거나 같지 뭘 그러니?》

그러나 귀연이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엄마, 인민배우가 되는건 뭘 식은 죽 먹긴줄 알아요?》

그래, 음악도 참으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요구하는 분야이지. ...

하지만 안해의 고집은 딸애의 그것보다 더 강했다.

《식은 죽이고 더운 죽이고간에 녀자 하면 배우에 가깝지 학자에 가까운건 아니야. 게다가 뭘 물리학자?》

《어머니, 내 이 자리에서 이름난 녀성학자들을 한 열명 꼽으랴요?》

귀연이가 웃는 얼굴에 눈만은 매섭게 치뜨고 대드는 소리였다.

《너 엄마를 판무식쟁이루 아는구나? 난 그보다 더 많이 꼽을수 있다. 그네들이 얼마나 고생고생했는가두 잘 알구...》

안해는 그 고생을 형용해보이듯 방걸레를 놓던 손세에 더욱 다기찬 힘을 주며 씨근씨근 숨소리까지 높였다.

《귀연아, 어머니말도 정 틀린건 아니다. 물리학이란 수월치 않은 분야야. 더우기 녀자들한테는...》

아버지가 어머니편으로 약간 치우치며 끼어들자 딸의 자세에도 다소간 주눅이 들었다.

《그래두 난... 할수 있을것 같애요.》

그렇수록 대견하고 사랑스러워보이는 딸애였다.

배우가 되든 학자가 되든 다재다능의 아이인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런것으로 하여 행복한 앞날이 차례질것이 분명한 귀연이...

그런 애가 바로 내 딸, 내 자식임을 의식할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런데...

김경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물론 물리학자를 희망하는 귀연이를 긍정해줄만한 근거는 너무도 충분했다. 귀연이는 그에 타당한 두뇌와 소질을 갖고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강렬히 지향하고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는 또 다른 반박할수 없는 조건들을 그러모아가지고 앞서의 그 근거들을 애써 밀어내고있었다.

우선 귀연이에게는 전문가의 안목으로 분석되고 결론된 성악가의 소질도 있다. 또한 안해가 방금 녀자 하면 배우에 더 가깝다고 표현한것처럼 이 세상의 많고많은 귀연이들중에는 학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성장한 처녀애들이 애당초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게다가 부모들의 주관적욕망이나 요구가 아니라 담당음악교원의 분석판단과 결심에 의해 장래의 성악배우로 지명된 귀연이이다.

그런데다가 벌써 김경준의 상상속에는 미간을 찌프리고 실험대앞에 마주앉은 사색형의 녀인이 아니라 조명이 눈부신 무대우에서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고있는 미모의 녀인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런데 귀연이는 환하게 웃기보다는 미간을 찌프리

기를 원하고있는것이였다.

과연 그 애를 어느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는가. 어느 길이는 자식도 부모들도 후회가 없게, 원망하는쪽도 그것을 받는쪽도 없어야만 좋을것이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사뭇 즐거운 한숨이였다.

문득 경준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간은 벌써 10시를 넘어서고있었다. 둥그런 문자판속에서 그것처럼 둥실한 윤원성의 얼굴이 자기를 내려다 보는것만 같았다.

김경준은 세면장에 들어가 달아오른 얼굴에 활활 물을 끼얹은 다음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어둠과 불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가 창너머로 그윽히 펼쳐져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장식으로 하여 하늘의 별빛은 물속에 잠긴듯이 선명치 않았다.

차츰 밤이 이슬해질수록 지상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그대신 별들은 또렷한 자기 빛을 다투어 자랑하기 시작한다. 미구에 무수히 쥐여뿌린 보석싸래기마냥 온 하늘에 반짝이는 별무리, 별무리...

짧지 않은 가을밤도 어느덧 다 지나 하늘은 다시금 희벗한 색채로 물들어간다. 별은 그대로 남았으나 빛은 사라져간다. ...

원고를 다 읽은 김경준은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떼며 두손으로 지그시 얼굴을 싸쥐었다. 그리고 힘주어 천천히 문다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번이나 반복하였는지...

이윽고 그는 떨리는 숨결을 터치듯 내뿜었는데 그것은 자못 피로운 한숨이였다.

#### 4

충분히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그만한것쯤 포착하는데는 결코 특별한 감각이 필요되지는 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더우기 김경준이 착잡한 자신의 심리를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았기에 아침모임이 시작된 첫 순간 약속이나 한듯 세쌍의 눈빛이 그렇듯 재빨리 교차된것이라.

모임이 끝난 다음 박호산이 자기 일정대로 대상 기관취재를 떠나자마자 리평수가 직방 물었다.

《부장동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덕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있던 김수경이쪽에서도 쪼르륵소리가 똑 떨어버렸다.

만약 지난 저녁의 그 화기에애하고 열기면 화제거리가 없었더라면 성미급한 리평수의 참을성도

좀더 오래 지속되었을것이다.

한순간 김경준은 덩돌해진 표정으로 리평수를 마주보다가 저도 모르게 전화통우에 손을 얹었다. 그랬다가 괜한 헛손질이였음을 깨달으며 더욱 당황해졌다.

(아니! 내가 이러면 안되지. ...)

그는 애써 혼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소. 다 정상이요. 그래, 정상...》

문득 아직도 책상우에 놓여있는 자기의 가방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속에 밤새워 읽은 스승의 원고가 들어있었다.

《가만! 당장 읽어야 할 원고가 있소, 수경동무도...》

리평수가 의연 궁금중이 가셔지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와섰을 때 경준은 그만 가방을 열던 손을 멈추어버리고말았다.

내가 왜 이들에게 원고를 읽히려는것인가, 그랬잖아 너무도 명명백백한 의견이 제기될것을, 그보다는 애당초 룬독 그자체가 불필요한 원고인데 왜서 나는...

경준은 말없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사실 한명원교수의 논문은 그자체를 놓고볼 때 충분한 가치도 있고 또한 거의나 완성된것이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이 원고가 조금만 더 빨리 그에게 와닿았더라면 지금처럼 안타깝지는 않았을것이라. 그런데 바로 두달전에, 따져보면 교수가 자기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한장 또 한장 원고지를 넘기고있을 때 이것과 거의나 같은 원고를 다룬 아닌 김경준자신이 편집하여 출판에 넘기지 않았던가.

경준은 그만 당혹감에 빠져버리고말았다.

생활이란 때로 왜 이렇게도 야속해지곤 하는것인가. 스승을 만난것만큼이나 반가웠던 원고, 하여 제자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지키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했던 원고가 지금은 커다란 번뇌를 안겨주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란 없지 않는가?...

《부장동지?...》

앞에 다가와 선 리평수가 의아함과 조심성이 한데 엉킨 어조로 불렀을 때에야 경준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읽지 않아도 되겠소.》

하지만 그것으로 일단락짓고싶지는 않았다.

그는 저으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저 여담삼아 들어만 두오, 수정동무도...》  
 문득 경준은 소스라쳐 놀랐다.  
 여담삼아?... 과연 이 일이 여담에나 불과한 그런 보통일이었던란 말인가?...  
 경준은 자기의 심리 한복판에 평하니 공간이 생기는듯 한감을 느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  
 《결국 그 제자가 부장동지였군요.》  
 그것은 항상 제일먼저 자기의 직감과 분석을 꺼내놓곤 하던 김수경이가 아니라 리평수쪽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하긴 김수경이도 그쯤한것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을것이였다.

《그렇소, 나요.》  
 경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연하게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느때는 남먼저 확인있게 자기 견해를 내놓곤 하던 김수경이도 까딱 움직이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매만지고있었다.

문득 경준은 가슴이 훈훈해졌다.  
 (그래, 우리 편집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지. 인정은 깊어도 그것에 사로잡혀 원칙을 잃는적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맞춰 일을 잘해왔던것이요...)

《됐습니다. 자기 일들을 합시다, 이 문제는 더 생각하지 말고...》  
 경준은 마디마디 그루박아 결론을 내렸다. ...

《정말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원래 흰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윤원성이 곧바로 마주보며 묻는 말이였다.  
 지금 두사람은 출판사앞 강변에 꾸러진 공원의 록음속에 마주앉아있었다.  
 문득 머리우에서 떨어져내린 수양버들의 노르스름한 락엽 몇잎이 둘사이에 놓인 돌장기판우에 소리없이 내려앉는다.

김경준은 왜서인지 모르게 그것들을 찬찬히 내려다보면서도 자신을 곧바로 응시하는 윤원성의 눈빛을 뚜렷이 감각하고있었다.

윤원성은 경준의 의견을, 그보다는 원고의 가치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방도를 묻고있었다. 실상 그 방도는 윤원성이보다도 김경준자신이 이미 더욱 애타게 찾아보았었다.

윤원성은 두손을 무릎우에 모아잡고 눈을 내리간채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부장동지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들이 졸업론문을 준비할 때에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논문이란 자신의 이름이나 학위를 위한것이 아니

라 우리 과학의 보물고에 명실공히 새것으로 기여되는 그런것이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제자는 잠시 현재를 잊고 저 멀리 잊지 못할 과거로 천천히 거슬러올라갔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의 토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곤 하셨지, 요구성도 높았고...》

다시금 뜨겁게 밀려오는 추억의 물이랑, 후덥게 달아오르는 가슴...

《그랬습니다. 부장동지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상급생들중 한사람이 아주 중요한 주제의 논문을 준비하느라 며칠밤을 꼬박 새우던중 그만 코피를 쏟고 쓰러졌는데 그때 선생님은 집에서 기른 토끼로 콧까지 해가지고...》

그만에야 경준은 격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원성동무!》

《?》

윤원성의 동공이 번쩍 빛을 뿌린다.

《그래, 선생님은 그걸... 코출혈을 멈추는 보약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 그걸 먹고 새힘을 가다듬은 그 상급생이 바로... 바로 나였고...》

경준은 눈을 감고 저려드는 미간을 아프게 눌렀다.

그러나 윤원성... 당신도 다는 모르고있다, 그렇듯 뜨겁고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대학시절을 보낸 제자가 나 하나뿐은 아니였음을, 제자들을 위해 지새운 수백의 밤과 밤, 주먹밥을 싸들고 걷고 또 걸은 수백리 멀고먼 길들에 어려있는 참된 교육자의 량심을 나 역시 다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

《그랬됐군요.》

윤원성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과 함께 번쩍이던 눈빛도 서서히 꺼져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제자가 스승의 원고를 마주한 이 시각 너무나도 랭정한 사고만을 하고있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가령 출판규정이요, 편집원칙이요 하는 그 모든 조건이 무시되고 교수의 저서가 무난히 출판되어 나간다고 하자. ...

《아니! 그게 아니요.》

경준은 결연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미 교수를 알고있거나 또 그 책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식을 갖게 될것인가.

...그리도 명망높은 교수가 어찌하여 남의것과 류사한 논문을 썼는가?...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런분이었소? 만약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당신과 나, 둘이 될테지? 교수가 생전에 그리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의 이름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빚어내는 격이 아닌가. 윤동무, 우리가 혹 의리를 못 지켰다면 그건 그것대로의 잘못이겠지만 이른바 지켰다고 하는 착오된 의리는 오히려 쓰디쓴 배반으로 될게 아닌가 말이요.》

격해지는 경준의 손을 윤원성이 꼭 틀어잡았다. 《부장동지, 듣고보니...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생을 성실하게 교단에 바친 선생님이 생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힘겹게 집필한 저서가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분이라는거야 부장동지가 더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생을 그리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그리도 참되고 진실하게 교단에 바쳐온 우리 선생님을 나는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있다. ...

불현듯 수십년전의 짜락눈 날리던 어느 저녁이 바로 어제런듯 온몸, 온 마음으로 되새겨진다.

40대 중반에 벌써 희여지기 시작한 담임선생 한명원의 머리우에 하나둘 내려앉던 눈송이들 까지도...

경준은 두려움어린 눈길을 가까스로 쳐들어 선생님을 마주보았다. 아니였다. 흰김이 오르는 토끼곰그릇을 털수건에 싸안고 찾아왔던 그때의 그 인정많은 눈빛이 아니였다.

《...그건 나도 인정하오. 경준학생은 실수를 한 것이었소.》

《선생님, 그렇다면 성적을 다시 평가받을수는 없을까요? 그 4점 하나때문에 전... 전 지금껏 5점만을 새겨온 성적기록부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실수이든 무엇때문이든 오점은 오점이지. 하지만 명심하라구. 진짜오점은 성적기록부에가 아니라 그릇된 마음속에 찍혀지는 법이요. 경준학생이 스스로 오늘의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결점으로 인정하고 참된 대학생으로서의 새 결심을 가다듬는다면 성적기록부의 4점은 그대로 남을지언정 마음속의 오점은 반드시 지워질 것이요.》

경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차고 눅눅한 눈송이들이 목뒤로 새어들어왔으나 감촉은 없었다.

선생님은 손을 들어 제자의 머리우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을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말을 이었다.

《경준이, 마음은 아프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

해보라구.》

한명원은 경준의 팔을 지그시 끼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왜 그런 실수를 하였겠는가. 단지 시험이나 잘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하든 마지막시험에서도 5점을 받고 최우수생의 영예를 지녀보자고 바로 그런 생각이 앞섰던진 아닐가. 우리 대학생들의 시험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겠나. 그자신의 학업성적을 규정짓기 위한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다져온 지식으로써 고마운 조국의 부강번영에 당당히 이바지할수 있는 그런 진짜배기과학자, 진실한 애국자의 자격을 받아안은 귀중한 계기가 아니겠는가.》

경준은 걸음을 멈추었다. 선생님의 머리에는 하얗게 눈송이들이 내려앉아있었다. 손을 들어 털어드리고싶었다. 하지만 경준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눈길로 더욱더욱 선생님의 친근한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

한생 잊지 못할 그날 저녁의 가슴뜨거움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얼마후 졸업식날에 경준은 선생님의 작별의 이야기를 마디마디 심장속에 새겨넣을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동무들은 오늘로써 보람찬 대학시절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동무들앞에는 더욱더 고심참담하고 그래서 더욱 보람차기도 할 탐구의 앞날이 놓여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동무들은 모두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무들이 그 어느 초소에 가든 그곳은 바로 사랑하는 조국의 한 부분이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도 분명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그때 교수는 물거머리듯 번쩍이는 눈으로 우리를 빙 둘러보았었지.) 어머니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시련 다 겪으면서도 품들여 키워낸 동무들은 절대로 자기 하나만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귀중하고 고마운 내 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은혜를 알고 의리를 아는 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열광의 박수소리도 미처 울리지 못하였었지, 너무도 격동되고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주먹들만 굳게 틀어쥐었었지. ...

《옳소. 알고있기때문에... 선생님을 지금도 그때처럼 변함없이 존경하고있기에 나에겐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가 없소.》

다른 선택?...

속으로 되뇌여보는 순간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찢릿하게 울렸다. 머리속에서 한줄기 시퍼런 섬광

이 평껏 피어올랐다.

그래, 있다. 참된 스승의 사랑과 의리를 받으며 성장한 제자로서 너무도 웅당하고 마땅한 그러한 선택이 있다!...

힘겨워하던 호흡이 누긋해지고 심신은 무한히 평온해졌다. 경준은 긴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성동무, 방도가 생겼소, 방도가...》

《정말입니까?》

윤원성이 별뿔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 서슬에 락엽들이 또 한번 몸을 뒤채기였다.

《여기서 좀 기다려주오. 내 다시 나오지.》

경준은 윤원성의 어깨를 꼭 눌러주고나서 저력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 5

김경준이 편집부에 들어서자 세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박호산이 별뿔 일어서며 말했다.

《부장동지, 귀연이네 음악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두번씩이나...》

음악선생이? 그것도 두번씩이나?...

경준은 의아해졌다.

첫 순간의 짐작이 어제 밤 자기의 의견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으니 빨리 결과를 알고싶어 그러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였다. 다음순간의 의문은 그게 과연 그렇게도 촉박한것일까 하는 것이였다.

아니다나를가 박호산이 말을 이었다.

《뭔가 토론해야 할 문제가 생겼답니다. 들어오시면 전화를 좀 해주었으면 한다고... 저기 일력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알겠소.》

김경준은 급히 번호를 눌렀다.

《예, 전화받습니다.》 무척 어린 녀성의 목소리였다. 용건을 말하자 《잠간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대답에 이어 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들리는듯 싶더니 인차 저벅저벅 빠른 발걸음소리가 뒤를 따랐다. 그다음에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수화구를 지렁지렁 울렸다.

《아, 귀연이 아버지이시군요. 바쁘실텐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잠시 동안이 뜬 후에 별로 석싹해진 음악교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경솔했던것 같습니

다. 선생님이 잘못 보았다던 귀연이의 말이 옳습니다. 담임선생이랑 학과목담임들이랑 다 만나보고 결심을 했어야 하는건데... 어제 귀연이의 립장이 하도 강경하기에 저로써도 생각되는바가 없지 않아 오늘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았는데 확실히 귀연이는 수물학계통에 훨씬 더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있더군요. 차연화선생이 (물리과목담임선생입니다.)기울인 노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구요. 차선생의 노력은 노력이고 어쨌든 귀연이는 그 방면에서 더 눈부신 성과를 거둘것이 확고합니다. 말하자면 귀연이의 소망대로 떠밀어주는것이 더욱 유익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경준은 형언할수 없이 착잡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기스스로도 그 의도를 딱히 알수 없는 질문을 했다.

《선생님, 아쉽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음악교원은 분명 손을 내젓기까지 하였으리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나라일을 앞에 놓고 그다음에 매 개인의 일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귀연이 아버지의 립장은...》

아까보다 좀더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종당에 경준은 확신성있는 어조로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전화를 끝낸 다음에도 경준은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지금 일력의 푸른빛수자 하나만을 조용히 내려다보고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바야흐로 용암과도 같은것이 끓어오르고있었다.

나라일을 앞에 놓고... 매 개인의 일...

가슴을 찌르르 울리며 음악교원의 반백이 눈앞에 되새겨진다. 지난밤보다 더욱 짙은 존경심을 자아내는 음악교원의 모습이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그는 리끝만 한 아쉬움도 없이 흔연히 귀연이를 그 애의 희망대로 떠밀어보냈더라란 말인가. 한 학생의 명명백백한 소질, 정확히는 그 애의 올바른 전도때문에?...

아니, 그도 인간이기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인간이기 전에 조국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의 감정을 안고있기에 스스로 기꺼운 결심을 내렸을것이다.

어찌 음악교원뿐이겠는가. 그것은 이 시대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지고있을 참된 자세이고 량심이며 또한 망각할수도 없는 의무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경준은 문득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자기로서는 가장 존경하는 스승의 유교앞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고 명실공히 의리도 지켰노라고 자부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 한명원교수나 귀연이네 선생님들과 같은 이 나라 모든 스승들의 참된 량심앞에 자신을 세워보았을 때… 그 만에야 경준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그것이 과연 어떤 원칙, 어떤 의리였던가. 단지 자기라는 일개인과 자기의 스승이라는 일개인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무의미한 원칙, 값싼 인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

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으로 생각해보자, 비록 우리모두에게 한생을 다하여 존경해야 할 스승이나 돌도 없는 벼, 귀중한 가정과 부모처자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목숨보다 귀중하고 목숨같은 의리로써 지키고 빛내여야 할 고마운 어머니조국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까지도 스승과 나, 벼와 나, 나와 우리 가정이라는 자그마한 상아탑속에서 한낱 세속의 의리만을 운운하고있었던 말인가, 조국이 있어 내가 있고 나의 스승과 나의 벼, 우리 가정이 있거늘 어이 순간이나마 그 진리를 망각할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숭고한 진리속에 이 나라의 공민으로 당당히 살수 있는 권리가, 위대한 내 조국의 긍지로운 아들로 살수 있는 한생의 권리가 깃들여있다, 바로 그렇게 살기를 바랐기에 선생님은 눈먼 인정만이 아닌, 진정한 교육자의 참다운 사랑과 그지없이 엄격한 요구로 제자들을 키워온 것이 아니겠는가, 귀연이네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도…

마침내 경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바로 생각했소. 나에겐 바로 자네같은 제자들이 귀중해. 암, 그렇구말구.)

크게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짓는 한명원교수의 얼굴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진다.

경준은 만사름을 가셔버린 마음거뜰함을 느끼며 기억기를 책상서랍속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경준은 한순간에 본래의 자기 자세로 돌아와 송수화기를 들어올렸다.

《여보시오?》  
그것은 출판사당위원회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예, 접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왜서인지 떨리는 부장의 목소리에 세 편집원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닙니다. 발표할수 없는 원고입니다. 우연하게 반복집필되었는데… 예, 이미 그런 주제의 논문이 출판회부되었습시다. … 예?》

문득 창밖의 무쾌도전차소리가 아스라하게 멀어져갔다가 천천히 가까와졌다.

《그게… 그게 사실입니까?》  
반신반의와 놀라움이 력력한 경준의 목소리였다. …

이윽고 경준은 전화를 끊었는데 무척 가벼운 전화기를 무척 무겁게 천천히 내려놓았다.

다시 침묵, 그러나 짧은 침묵…  
경준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천천히 힘주어 문다졌다.

두손을 떼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담담한 그리고 무한히 환희로운 감정이 질게 어려있었다.

《평수동무, 수경동무, 중공업대학에서, 바로 나의 모교에서 방금전 우리 출판사로 전화가 왔소. 한명원교수의 원고를 철회시켜줄것을 우리 출판사당위원회에 정식 요청해왔소. 대학에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그렇게 해주도록 제기한 사람이 있었기때문이요.》

뜻밖에 벌어진 일에 대한 놀라움… 그보다도 부장이 지금 저토록 힘겹게 말하고있는 그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세 편집원의 얼굴에 똑같이 실려있었다.

김경준은 두손을 힘껏 각지끼며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명원교수의, 우리 선생님의… 부인이요.》

김수경이 벌써 일어서는가싶더니 다시금 스프르주저앉는다. 리평수는 갑자기 주먹을 입가에 대고 목갈린 기침소리를 냈다.

《그렇소. 내가,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착오를 했지. 선생님은 그 원고 역시 강좌내 교원들의 교수안작성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서, 바로 그래서 마지막집필에 자기의 심신을 깡그리 쏟아부었던것인데 우리는 아니, 나는…》

경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다.

출판사앞 공원속에 아직도 조각상처럼 굳어져 앉아있는 윤원성의 모습이 아프게 안겨들었다.

(원성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선생님을 너무도 모르고있었어. 교단에서 못다하게 될 강의를 바로 그 책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자고, 그래서 참으로 무거운 펜을 들었던 선생님의 마음에 너무도 아픈 상처를 입힐번 하지 않았는가.)

지켜선 교단과 제자들에게 바쳐온 모든 사랑을 오로지 어머니조국에 대한 숭고한 의리로 충만시켜온 선생님의 그 고결한 마음을 우리는 왜 아직 모르는것인가.

《부장동지!》  
리평수의 목갈린 부름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

여났다. 붉게 상기된 얼굴에 눈빛을 번쩍이며 리 평수가 말을 이었다.

《아까 저희들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이 문제를 출판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도록 제기하자고 말입니다. 원고는 발표할수 없게 되었지만 그와 같은 인간들의 참된 삶은 온 나라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다 알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장동지, 한명원교수에 대한 소개 기사를 크게 내도록 제기합시다.》

김수경이 정열적으로 부르짖는 말이였다.

바로 그것이 방금전 김경준이 생각했던 그 선택이였다. 그러나 구태여 말하고싶지는 않았다.

감동에 겨운 그의 눈빛속에 세 편집원의 모습이 미더웁게 안겨들었다.

《고맙소. 동무들, 정말 고맙소.》

×

김경준과 윤원성은 고즈넉한 강반을 점도록 걷고있었다.

길지는 않으나 하많은 사연이 담긴 말마디들이 두사람사이에 오고갔다. 오고간 그 이야기들은 지금 서로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되어있었다.

두 심장의 눈길속에 안겨오는 풍만한 강물이며, 바람결에 스적이는 나무숲의 설레임속에 그리고 발밑에 펼쳐진 포근한 금잔디우에도 가슴저릿한 유정함이 질으나질게 어려있었다.

아까 윤원성과 마주앉았던 그 자리에 되돌아온 경준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도 떨어져내린 그 자리에서 미풍에 하느적 거리는 작은 락엽들...

불현듯 가슴이 찢릿해지고 눈곱이 뜨겁게 달아 오른다.

심장의 더운 피를 서서히, 뜨겁게 끓이며 올려 오는 못 잇을 노래... 노래...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경준은 눈을 꼭 감았다. 해빛으로 붉어진 망막 속에 딸애의 얼굴이 뚜렷이 그려진다. 조용히, 천천히 다가오는 귀연이...

아버지는 딸애의 어깨를 꼭 잡았다.

(귀연아, 네가 커서 무엇을 하든 하는 일 그자체가 중요한것은 결코 아니다. 노래를 부르는 위성을 쏘아올리든 자신의 명예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너를 배워주고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우리의 장군님을 위하여 하거라. 그것이 진정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의리이거늘...)

경준은 락엽들을 소중히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봄날의 향취와 푸르름은 사라져버렸으나 만물이 다시 소생할 새봄의 환희가 가슴빠근하게 마쳐온다.

아, 좋은 가을, 좋은 계절이여!...

윤원성이 뜨거운 두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사람은 조용히 나무밑으로 다가갔다.

나무는 소리없이 설레이고있었다.

## 경구, 격언

### 운동

- 운동의 성과여부는 심장을 얼마나 운동시키는가에 달려있다
- 운동으로 피순환이 잘되고 심장발작의 위험이 적어진다
- 운동은 체중을 보다 쉽게 조절할수 있다
- 골송소증을 완전히 예방할수 있다
- 우울증이나 두려움, 불안감 같은것을 쉽게 털어버릴수 있다
- 보다 락천적으로, 정열적으로 살게 된다

- 고혈압, 저혈압을 예방치료할수 있다
- 창작적정열이 솟구치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 모든 일에 자신심이 생긴다
- 잠이 잘 온다
- 창조적능력을 키워준다
- 생활은 운동이고 운동은 생활이다
- 운동으로 덕을 보는 몸의 능력은 나이에 관계없다



## 애국심이 떠올린 진실한 서정의 세계

—장시 《아, 내 조국!》을 읽고—

신 경 애

장시 《아, 내 조국!》(김은숙 작)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어가 있다. 《대오의 맨 마감자리》!

...

조국의 수고많은 병사들이여 인민들이여  
대오의 맨 마감자리에라도  
부디 나를 세워다오  
조국의 팔로 살게 해다오

...

대오의 맨 마감자리에라도 부디 세워달라고 한 서정적주인공의 소박한 토로가 가슴에 마쳐온다.

맨 마감자리! 서정적주인공은 정말 대오의 맨 마감자리에 서있는것인가, 아니다.

우리 장군님을 따르고 그리워하는데서도 조국에 바치는 헌신에서도 그가 서있는 곳은 마감자리가 아니다.

### 진실한 체험과 느낌이 낳은 시적발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시의 서정은 무엇보다도 진실한 체험과 느낌에 기초한 새로운것의 발견, 철학적발견에 있다. 다시말하여 시의 발견은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얼굴과 자기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울리는 새로운 철학적종자의 발견으로 된다.

장시 《아, 내 조국!》에는 이 나라 공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을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철학이 있다. 그 기초에 바로 시의 발견이라 할수 있는 애국의 철학이 놓여있다.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조국은 아버지수령님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라는 생활의 철리는 확고부동하다. 이 시에서는 누구에게나 확고부동

한 이 철리를 철학적기초로 하면서 조국에 대한 철학적탐구의 세계를 한결음 더 넓혀나갔다. 시는 조국에 사는 사람이든 해외에 사는 사람이든 일시 조국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든 공민에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사색과 형상의 초점을 박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품안아주는 조국에 무엇을 바칠것인가. 주체101(2012)년의 내 조국에 강성대국문패를 달고저 투쟁하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것은, 조국이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국심이다.

멀고 가깝고 그가 있는 위치가 중요하겠는가. 그 어디에 있는 조국을 받드는 애국심을 안고 사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에 관통되어 흐르는 사회적문제이다. 물론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왜서 이 시가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비약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다시금 울리며 새롭게 안겨지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느낌, 새롭고 뜨겁고 절절한 느낌속에 터뜨린 호소, 선군시대 애국자로 살겠다는 심장의 호소가 있기때문이다.

정든 곳 떠나보아야 정든 곳 안다는 말이 있듯이 조국에 있을 땐 미처 다 몰랐던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대함을 이국땅에서 생활의 매 순간순간 가슴뿌듯이 새로이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는 얼마나 진실하고 열정적인가.

...

### 김정일동지!

그이의 존함이 부강조국의 문패로 빛나고  
그이의 미소가 집집의 창가에  
밝은 해빛으로 피어나는 나의 조국  
그이 숨결을 받아 내 숨쉬며  
그이 넋으로 고동치는 내 심장  
정녕 그 품 떠나  
이 땅 이 하늘아래 내 살 곳 없는  
아, 내 운명의 집이여

...

천리만리로 아득한 넓으나넓은 태평양우에 라침  
판이 가리키는 항로가 많아도 오직 어머니를 찾는  
아이처럼 아버지장군님 품으로 마음을 달려가는  
서정적주인공, 대혁신, 대비약으로 줄달음치는 조  
국으로 하루에도 열백번 마음 버리며 주먹쥐고 달  
려가는 서정적주인공.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다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가 아니었던가. 서정적주인공은 참전자이다.

이국에서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를 가슴뿌듯  
이 체험할수록, 날마다 전해지는 아버지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 변이 나는 조국의 소식을 접할수록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속엔 장군님 가꾸가시는 선군  
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저 비약하는 천만  
군민의 정신력을 고무추동하는 심장의 노래를 엮  
어갈 애국의 맹세가 가득차넘치는것이다.

조국이 별리는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시인으  
로서 뚜렷한 창조의 몫을 남길 때만이 조국을 땀  
땀이 부를수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였기에 조  
국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조국에 없어서  
는 아니될 꼭 필요한 량심의 인간— 시인이 되겠  
다는 주인공의 호소가 그토록 진실한 울림으로 감  
동깊고 여운을 남기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은 그 맹세마저도 대오의 맨 마감  
자리라고 하는 매우 소박한 자리에서 송구해마지  
않으며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존엄높은 내 조국에 필요한것, 바  
쳐야 할것이 바로 애국임을 저력있게 터치고있다.

오늘도 《다시한번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  
하여!》라는 당의 부름앞에 매 각자는 어떤 자세  
와 립장으로 대답해나서야 하며 조국의 아들딸로  
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매 사람들의 심장의  
문을 두드려주며 깨우친 여기에 이 시의 참된 본  
도가 있는것 아닌가.

강성대국대문을 지척에 바라보며 번개쳐 내달리  
는 조국앞에 그 어떤 공훈도 없이 들어서는 손님  
이 아니라 주인으로 한몫 하는 선군시대 애국자가  
되는것, 이것은 시대정신이 구현된 시적발견이  
고 천만군민의 심장에 참된 애국의 불을 달아준  
발견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교이기 전에 진정에서의, 애  
국으로 불타는 사색과 탐구의 결과이다.

그렇다.

진정—조국에 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파  
라 시가창작의 종군길을 걷던 자세 그대로 조국땅  
멀리에서도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마음속 종군길을 계속 다우쳐온 한 녀성시인의 뜨  
거운 진정이 시의 발견을 낳은것이다.

## 진실한 서정을 떠올린 시적세부

장시 《아, 내 조국!》을 읽으면 마치 한편의 사  
진첩을 번지는듯 한 느낌이 든다. 그 까닭은 무엇  
일가.

매 행이, 매 련이 하나의 화폭을 방불히 떠올린다.

시에서의 화폭창조, 그것은 세부, 구체적인 생  
활세부와 일화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 단락의 정서적마루로 이루어진 이 장시가 하  
나의 사상주체적해명으로 치달아오를수 있게 계기  
적인 조건을 지어준것이 바로 다양한 생활세부의  
효과적인 설정과 탐구에 있다.

참신하고 진실한 생활세부의 편속이 낳은 형상  
효과이다. 새로운 화폭으로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  
하고있다. 하여 독자들이 긴 시를 읽어나가면서도  
진정에 이끌려 서정적주인공의 웨침에 공감하고  
끌려들어가게 된다.

장시에서는 조국에 대한 개성적인 느낌이 화폭  
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온다. 조국주체의 시가들  
이 이미 많이 씌여진 조건에서 자칫 잘못하면 도  
식과 류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으며 선언적이거  
나 추상적인데로 떨어질수 있다.

허나 이 작품에서는 선행시들의 좋은 창작경험  
에 토대하면서도 자기식의 특색을 잘 살리고있다.

대사관지붕우에 날리는 공화국기발, 산설고 물  
설은 하늘가를 날으는 기러기때, 타향의 바다가에  
내리는 찬비, 소리없이 그리움의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는 밤의 구체적인 생활세부, 수령님초상휘장  
모신 치마저고리 입고 거리를 활보할 때 부러워  
보내는 눈길과 내흔드는 엄지손가락세부, 그리  
움의 배길, 철길과 페루세부...

생활세부와 일화들의 화폭적인 제시는 순수 생  
활세부들의 털거나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다. 하나  
하나가 다 매개 장들에서 자기의 뚜렷한 형상적몫  
을 안고 시전반형상속에 용해되고 승화되기도 하  
고 강한 대조속에 전개되어 어느것이 세부이고 어  
느것이 주정토로인지 미처 가려보기 힘들다. 그러  
면서도 조국에 있을 때보다 더 절절히 받아안게  
되는 류다른 긍지의 감정이 뜨겁고 이국에서 받아  
안는 조국의 소식, 들끓는 전투장들이 새롭게 안  
겨진다. 그속에서 울리는 조국에 대한 서정적주인  
공의 주정토로가 전진적이고 발전적이다.

이국땅에서 보고듣는 그 모든 생활세부들의 대  
조적인 교차속에 감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진실한  
체험, 시에서는 인류리상의 상상봉과 절정에 올라  
거대한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조선민족의 긍지가  
조국이 있다고 누구나 다 누릴수 있는 행복과 영

광이 아님을 두번째 정서적마루에서 가슴뜨거운 생활세부와 일화들로 해명하고있다.

세계앞에 내 조국이 끝없는 영광으로 빛을 뿌리는 오늘에도 병사들을 찾아, 인민을 찾아 씩씩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내 조국이 더욱 부강번영해지고 그 존엄 더욱 위대하기엔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장군님품으로만 달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가 그토록 절절하고 열정적이고 꾸밈을 모르고 진실하다.

장시에서는 감정정서의 세번째 마루를 조성하여 우리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운명의 집》, 목숨같은 내 조국을 위해 공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박고 주인공의 체험이 어린 구체적인 생활세부들로 화폭을 펼쳐가고있다.

잠을 깨고나면 대륙과 대양넘어 기다린듯 날아드는 조국의 소식에 밤하늘의 이 세상 모든 별들이 《광명성2》호처럼만 여겨진다는 생활세부, 태평양상공에 피어나는 노을도 대오앞에 휘날리는 붉은기로, 야자수잎 휘감아 장단치는 쟁반달도 진군의 북처럼 안겨온다는 생활세부.

이런 세부들이 어제날 흙마대를 어깨에 메고 진한 땀 흘리던 청년영웅도로건설장, 원호물자 안고 가던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들에 대한 추억의 세부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통성하는 부강조국에 하나의 성돌로 사는데 자기 한생이 모자란다면 자기 아들의 한생도 기꺼이 바치려는 서정적주인공의 맹세, 대오의 맨마감자리에라도 세워달라는 그 진정에 끌려드는것이다.

하늘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바다로 철갑상어가 나가는 조국의 희한한 전변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들을 비롯하여 그것들을 꼽자면 무수하다. 마치 세부들과 일화들로 엮어진것처럼...

그러나 이런 세부들이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느낌, 새로운 체험세계와 결부되어있어 울리는 주정토로도 강렬하고 진실한것이다.

이런 생활세부들은 다 우리가 조국에서 실지로 겪은 대상들이다. 하지만 서정적주인공에게만은 또 새롭게 느껴진다. 단순히 해외에서 느끼는 감정때문만이 아니다. 시인으로서 바치는 심장의 노래—창조의 뚜렷한 뜻이 없이는 조국이라 부를수 없고 애국의 헌신이 없이는 강성대국대문에 들어설수 없다는것을 자기자신에게 호되게 꾸짖는 공민적자각, 깨끗한 감정세계의 분출이다.

애국심에 떠받들리워 폭발된 서정이어서 우리는 이 시를 값높이 음미해보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해주고 다같이 오늘의 선군조국을 노래해야 할 시인의 사명을 깨우친 여기에 시의 참된 본도가 있는것이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누가 시킨이 없었어도 자기를 품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앞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앞에 자기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민족적공지를 한껏 터칠 붓대를 스스로 무게있게 들줄 안 이 시인의 창작적자세와 애국적량심이 《아, 내 조국!》이라는 절절한 부름속에 다 안겨온다.

시는 글로 쓰는것이 아니라 심장의 언어로 읊어야 한다.

## 세계유모아

#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고

문화국장이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어느 한 작가의 새로운 소설을 한번 읽어보라고 서기에게 주었다.

며칠후 서기가 소설을 국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읽어보았는데 팬찮은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말은 일정한 의미에서 팬찮다는것입니다.》

서기가 인차 말하였다.

국장이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일정한 의미》라고 한것은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녀두에 둔것입니다.》 서기가 인

차 말을 돌렸다.

국장이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학감상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 팬찮을수 있다는것입니다. 방금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총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시원치 않은 소설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더 세차게 저었다.

《물론 소설을 완전히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문화국장은 또 한번 고개를 가로저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

《이 와이샤쓰짓이 그냥 목을 간지럽히거던.》

# 의의있는 세부묘사가 안겨주는 형상적여운

— 단편소설 《섬이 보인다》를 두고 —

손 성 철

하나의 작고 평범한 세부라 해도 그것이 담고있는 심오한 뜻을 파고들어 두드러지게 그려냄으로써 그 하나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전형화하는것은 소설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작은 용적속에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간문제를 집약화하여 형상하여야 하는 단편소설일수록 의의있는 생활세부의 탐구는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단편소설 《섬이 보인다》 [한영호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9(2010)년 12호]는 비록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는 작은 섬이라 해도 없어서는 안될, 잃어서는 안될 조국의 한 부분이며 그 섬을 지키는 길에 우리 시대 공민으로서의 조국을 위한 진정한 삶이 있다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소설이 독자들에게 정서적공감을 주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것은 《조가비》라는 세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세계를 개방하며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하고있기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섬에서 태어났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섬들을 무릉도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애쓰는 아버지를 따라 섬에서 섬으로 옮겨가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는 자그마한 섬, 그 섬도 조국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유년시절의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며 없어서는 안될 섬, 귀중한 조국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외진 섬으로 자진하여 간다. 소설은 주인공 나의 소학교, 중학교, 대학시절의 생활을 조가비세부에 집중시키고 반복형상하면서 그의 심리세계,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조가비세부에 대하여 처음 이렇게 형상하고있다.

《동무들이 기념으로 준 조가비들을 꺼내어들었다. 그러자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 그 령묘한 줄

무늬우에 떨어졌다. 것처럼 환희와 기쁨, 희망과 기대속에 흘러온 려행길이 꿈속에서 지나간 일인듯싶었다.

나는 그 조가비들을 하나씩하나씩 힘없이 배전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하였다. 침병... 침병... 하나... 둘... 조가비들이 나의 부서진 희망과 기대와 함께 푸르른 바다물속에 잠겨버렸다. 아, 나는 섬에서 섬으로 왔구나!...》

이것이 소학교시절의 인생관적측면이 미숙한 나의 동심세계를 보여준 세부이다. 섬의 아름다움이 비낀 조가비, 섬마을동무들의 사심없는 마음이 스며여있는 조가비, 조국의 모습이 깃든 조가비에 대하여 소학교시절의 주인공의 작은 가슴으로는 다 받아안기 어려웠으며 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한다.

소설은 이러한 의미들을 작가의 정서적표현으로 라렬하지 않고 《조가비》라는 세부를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철없던 그 시절 너무도 쉽게 바다속에 던져버렸던 조가비들이 주인공의 가슴속에 다시 스며들게 되는 과정을 또다시 조가비세부의 반복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인상깊게 형상하고있다.

바다가기슭 모래터에서 《모래에 쓸리고 바다물에 씻겨 꽃파자갈》은 조가비를 왜 가져오지 않았는가고 묻는 영애에게 나는 무엇이랴 이야기할수 없었다.

다시 섬으로 가는 배길우에서 버렸던 조가비...

주인공은 이 순간에 그때의 자그마한 조가비들, 섬마을동무들의 순진한 마음들이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던 그 조가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깊이 들어앉는것을 느끼며 아쉬움과 가책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다시 섬마을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때의 서글픔은 가실수가 없었다. 아직은 주인공의 시야에 것처럼 소중한 섬이 비끼지 않는다.

이렇듯 소설은 주인공의 가슴속에 조가비의 의미를 새겨볼수 있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그의 중학교시기의 사상감정세계를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파헤치고있다.

소설은 사건의 절정부문에서 조가비세부를 다시금 반복형상하면서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는 작은 섬을 무릉도원으로 꾸리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토록 싫게만 여겨지던 섬에 대하여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는 주인공, 없어서는 안될 섬을 보았으며 점차 귀중한 조국에 대하여 알게 된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배전을 스치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내 눈가에는 어린시절의 옛 추억이 떠올랐다. 바로 여기였다. 발동선에 실렸던 이사짐, 그사이에 앉았던 나, 자그마한 려행용배낭에서 꺼내들었던 조가비들!... 아, 그 조가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다 밑 어느 산호초속에 외로이 묻혀 잠들고있으리. 이름모를 물고기들만이 무심히 그 주위를 노닐고있으리...

이제라도 그 조가비들을 이 두손에 다시 모아담을 수 있다면, 그 조가비들을 다시 찾을수 있다면!... 조가비들은 버렸지만 섬은 더 강렬히 내 마음속

에 깃들어있었다. 그것은 새롭게 찾은 아버지, 어머니모습이기도 했다. 갈미섬으로 이사온 날 저녁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바로 이 섬도 조국의 한 부분이기에 이 섬을 지켜 군복입은 아버지도 있는거란다. ...》

자그마한 조가비로부터 섬의 귀중함으로, 조국의 귀중함으로 승화시킨데 조가비세부의 형상의 뒀이 있다.

조가비세부를 반복하여 형상하면서 섬과 이어지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진실한 감정의 축적과 폭발과정으로 굴곡있게 형상한것은 작가의 창작적기교에 대하여 엿볼수 있게 한다. 어찌 보면 작가의 사색이 깃든 조가비세부가 있음으로 하여 소설이 일정하게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세부형상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탐구하고 자기의 작품에 특색있는 생활세부들을 형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 상 식

# 세계핵에너지산업의 전망

핵에너지산업은 21세기에 가장 전도유망한 에너지산업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하나는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에너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것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전세계적규모에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여야 한다는것이다.

2050년경에 이르러 세계의 에너지수요는 최소한 현재의 2배이상(전력수요만 보는 경우 3배)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는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핵에너지는 그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

현재의 핵에너지산업의 규모를 3배정도로 확대시킬 때 2050년에 가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연간 10억~20억t이상 줄일수 있다고 한다.

핵에너지산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핵전파방지에 유리한 핵반응로와 핵연료순환체계를 개발하는 것, 보다 안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물처리방법을 찾아내는것, 깨끗하고 영원한 에너지체계인 핵융합에너지체계를 연구개발 및 도입하는것 등이다.

당면하여 2050년까지 핵에너지산업의 규모를 지금의 3배로 확대하는 경우 매해 200만kW이상씩의 능력을 더 조성해야 하며 여기에 드는 자금총액이 2조US\$이상으로 예견된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일관하게 핵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세워오던 나라들에서는 물론 핵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거나 지어 핵폐기를 주장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던 나라들에서도 핵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하고 핵에너지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며 핵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선포하여 핵에너지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한편 새로운 핵폐기물처리장건설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국제적규모에서 핵전파와 관련하여 여러 저러한 방안들이 검토중에 있다.

현재 거의나 전력생산에만 치우치고있는 핵에너지산업을 열생산 및 공급분야에로 확대시키며 전망적으로 미래의 수소경제를 위하여 핵에너지를 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연구개발도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 농촌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김복원의 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시인 김복원(1911-1984)은 주체시대의 력사와 더불어 변모되는 농촌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시들을 창작하여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김복원(본명 김치식)은 망국의 비운이 짙어가던 1911년 7월 11일 함경남도 흥원군의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나라잃은 민족적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던 작가는 가난한 생활속에서도 둘째형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뜻을 품게 되었다. 한문을 배우면서 문학을 시작한 그는 사립학교를 졸업한 후부터는 농촌에서 일하면서 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자신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편의 동시들을 창작하였다. 농촌무산아동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 그러하다.

해방전부터 작가는 농촌현실을 아담하게 펼쳐보이면서 아동들의 동심세계를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소년잡지 《별나라》에 발표된 동시 《개똥망태》〔주체21(1932)년〕, 《겨울밤》〔주체22(1933)년〕, 《굴뚝》〔주체23(1934)년〕, 《눈바람부는 속에》〔주체23(1934)년〕 등의 작품들은 날로 양양되는 대중투쟁에 적극 고무되어 계급적으로 성장해가는 무산아동들의 투쟁세계를 현실과의 결부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동시 《굴뚝》은 농촌생활을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계급적으로 차이나는 두 생활의 진면모를 굴뚝에 비겨 노래한 실감있는 작품으로 된다.

굴뚝 굴뚝  
굴뚝에도 높은 굴뚝은  
박참봉네 양희굴뚝  
바람부나 눈오나  
풍년드나 흥년지나  
언제든지 한모양  
검은 연기 뭉게뭉게  
쌀밥연기 뭉게뭉게

굴뚝 굴뚝  
굴뚝에도 낮은 굴뚝은  
마을의 토두굴뚝  
논갈구 밭갈구  
농사지어두  
쌀밥이 다 뭐냐  
죽도 못 끓여  
넘어가는 석양에  
선하품만 하나냐

보는바와 같이 시는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굴뚝을 시적대상으로 삼고 쌀밥연기, 선하품, 풍년드나, 흥년지나, 논갈구 밭갈구와 같은 아동들의 심리에 맞는 표현을 써가면서 1930년대 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웅당한 높이에서 형상하였다. 대조의 수법을 리용하여 지주와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동심에 맞게 그린 작품은 소년들속에 착취계급에 대한 반항의식이 높아가던 1930년대의 시대적감정이 짙은것으로 하여 당시 소년들속에서 널리 읊어지었다.

이밖에도 동시 《눈바람부는 속에》서는 눈내리는 겨울 그 집(감옥)에서 추위에 고통을 겪을 아저씨들에게 나무를 팔아 내복을 마련해주는 소년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투쟁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이렇듯 시인은 시단에 등장한 때로부터 다양한 농촌생활을 시대적감정에 맞게 진실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창작의 첫걸음을 인상깊게 뒀수 있었다.

해방후 시인은 함경북도인민위원회 문화과장으로 사업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대표작으로 《다수확농민》〔주체42(1953)년〕을 창작하여 농민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때부터 작가의 가슴속에는 해방의 기쁨과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작품마다에 노래하고싶은 비상한 열정이 끓게 되었다.

시인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사업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생활터전인 농촌으로 내려가곤 하였으며 거기에서 협동화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전 땅이 없어 허덕이던 농민들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눈물

을 먹으로 삼고 펜을 달려야만 했던 시인에게 있어서 1950년대 조직한 농업협동화는 그대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었고 역사적변혁이었다.

서정시 《분배의 날》〔주체43(1954)년〕, 《그는 이렇게 회답을 쓴다》〔주체44(1955)년〕, 《열두삼천리별의 노래》〔주체44(1955)년〕, 서정서사시 《이백집 새집들이》〔주체51(1962)년〕 등의 작품들에서는 전변의 새 력사가 시작된 당시의 격동적인 현실을 이채롭게 보여주었다. 작가는 날로 변모되는 농촌현실을 작품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이한 시적대상을 잡고 거기에 시대정신을 부여하였다.

시 《대지는 불리》에서는 선진과학을 도입하기 위하여 농촌에 자진하여 나온 농산기수를 노래하였고 시 《분배의 날》에서는 조합에 들어간 덕분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게 더 살기 좋아진 한 로인의 감격을 구수한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할줄 아는 작가의 적극적인 창작자세를 보여주는 한가지 일화가 있다.

작가가 우리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을 들끓는 현실속에서 단련하기 위하여 황해남도 벽성군의 어느 한 농장으로 자진하여 내려갔을 때였다.

당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대되어 자진하여온 제대군인들이 있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창작의 붓을 달리던 어느날 뜻밖에 우리 수령님께서 이 농장에 찾아오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제대군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그들이 살수 있는 많은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하여 제대군인들이 한낱한시에 새집들이를 하게 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시인은 창작적흥분을 누를길 없어 그 자리에서 제대군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반영한 서정서사시를 창작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직접 창작한 시가 실린 신문이 들어있는 우편통신문가방을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제대군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화폭이 펼쳐진 서정서사시에서는 잘 꾸려진 마을에서 살게 될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을 《량친부모 모서다가/천년만년 살고지고》라는 달노래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싶은 농민들모두의 감정이였다. 시인으로서의 김복원의 창작활동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1970년대였다. 당시 시인들앞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높이 받들고 만풍년의 고지를 점령해가는 농민들의 격동적인 생활을 시작품에 담아야 할 시대적과업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던 김복원은 남먼저 농촌의 여러곳에 달려나가 농민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만풍년의 노래를 시적화폭에 담아 펼쳐보였다. 이 시기 창작된 작품들에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이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시인의 이러한 시대적감정은 풍년든 벌에서, 기계화의 동음이 울려퍼지는 농장의 곳곳마다에서 그대로 분출되었는바 시 《풍년씩》〔주체62(1973)년〕, 《풍년별》〔주체62(1973)년〕, 《새포전의 탄생》〔주체64(1975)년〕, 《농촌의 새 이름—운전공》〔주체64(1975)년〕, 《설레이라 주체과원이여!》〔주체67(1978)년〕 등의 작품들은 다 새로운 전변의 시대, 만풍년의 시대를 노래한 이 시인의 농촌주체작품의 대표작으로 된다.

시 《설레이라 주체과원이여!》에서 구체적으로 엿볼수 있다.

...

아 가다가 해저무는 과수의 밀림  
흐르다가 달이 지는 과일의 바다  
주체과원 이 땅에 펼쳐주신  
다함없는 그 사랑, 그 은덕의 한끝은  
가도가도 한생에 따를수 없어라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버지수령님의 사랑, 그 은덕은 세월이 가도 따를수 없다는것이 시가 보여주는 주도적감정이다.

이렇듯 김복원은 각이한 시대의 농촌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시인이였다.

시작품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가 창작한 시들은 농촌생활을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농민들의 감정을 서정화하고있으며 열정이 뜨겁고 진실한것이 특징이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시인이 창작한 우수한 농촌주체작품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고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김 철 룡

## 가스켈과 장편소설 《매어리 바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이룩된 진보적인것 가운데서 우리의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구체적인 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엘리자베스 가스켈(1810—1865)은 자기의 작품들에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고 그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묘사한것으로 하여 19세기 영국비관적사실주의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녀류소설가이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목사와 결혼한 작가는 오래 동안 대공업도시 만체스터에서 살았다. 이것은 작가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녀류소설가의 앞날의 창작에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작가는 1848년에 첫 소설 《매어리 바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후 작가는 디킨즈가 경영하는 잡지들인 《올디 이어 라운드》와 《하우스홀드 워드즈》에 여러편의 소설작품들을 편이어 발표하였다. 그가운데는 작가의 청춘시절과 지방도시생활의 회상에 기초한 《루스》(1853)와 《북쪽과 남쪽》(1845—1855), 《크랜포드》(1853) 등이 있다.

여기서 작가는 디킨즈식의 유모아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지식한 생활과 소박한 극, 흥미있는 사건들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였다. 특히 작품들은 로자간의 모순과 대립이 직접 묘사되고 사회적불평등의 희생물로 고통받는 하층인물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작가의 진보적인 경향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여 이 작품들은 인기소설들로 간주되게 되었으며 당대의 평론가들로부터 평가도 많이 받았다. 가스켈은 그후 생애의 마감까지 일련의 소설들을 계속 창작하는 한편 동시대작가의 생애와 창작을 반영한 《샬로티 브론티의 생활》이라는 전기작품도 내놓았다.

장편소설 《매어리 바톤》은 19세기 30—40년대 영국자본주의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

여 만체스터에서 사는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생활과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그들이 벌리는 투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작품의 형상중심에는 노동자인 존 바톤과 그의 딸인 매어리가 서있다. 그때 만체스터의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적극적인 차티스트였던 존도 여기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청원은 의회에서 기각되었고 올분을 안고 고향에 돌아온 존에게는 차티스트운동지도자들을 해고시킨다는 련속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그 결과로 존과 그의 딸은 커다란 정신적, 생활적고통을 겪어야 하였다.

소설에서는 존과 그의 딸 매어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이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수많은 만체스터노동자들의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현상이라는것을 명확히 지적하고있다. 때문에 고통으로 인한 이러한 생활처지는 만체스터로동자들을 파업으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항거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동적공세는 더욱 악랄해졌다. 놈들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값죽은 노동력을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군중을 위협해나섰다. 그리하여 결국 옳바른 지도적력량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던 파업은 류산되고말았던것이다. 이때에 자본가놈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파탄시키기 위해 갖은 위협과 음모책동을 다하였으며 지어 비인간적모독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헨리 카슨이라는자는 극도의 빈궁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불품없는 물골로 묘사한 만화로써 차티스트들을 모독하였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카슨을 죽여버릴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파업을 존 바톤이 수행하였다.

한편 이전에 카슨은 재봉소에서 일하는 매어리 바톤에게 매혹되어 처녀를 한껏 추어올리면서 그



녀자에게서 결혼약속까지 받아내었었다. 매어리는 처음에 카슨의 계교에 넘어가 이전의 애인인 젊은 기사 월슨을 거절하였었으나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카슨과 인연을 끊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카슨이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자연 그 혐의가 매어리 바톤을 가운데 놓고 카슨과 대치되었던 월슨에게로 가게 되었다.

물론 이때 매어리는 카슨의 살인자가 자기 아버지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매어리는 카슨살인혐의로 기소된 월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밀고하지 않으면서도 애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여 성공하였다.

엘리자베스 가스켈은 이 소설에서 존 바톤과 같은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여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는 차티스트들이 정직하고 사욕이 없으며 청원과 파업을 일으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차티스트들이 폭동군중의 천박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비인간적인자》들이라고 비

난하던 부르조아평론가들의 비난을 론박하는데서 크게 성공하였다.

장편소설 《매어리 바톤》은 출판되자마자 부르조아비평가들에게서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매우 인기있는 대중소설로 되었으며 디킨즈와 같은 영향력있는 작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것은 이 작품이 심각한 사회적불평등에 항거하여 투쟁에 일떠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차티스트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시기의 시대적분위기를 잘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하여 가스켈의 창작활동과 그의 장편소설 《매어리 바톤》은 비록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본질적제한성을 가지고있기는 하지만 영국문학사에서 비교적 의의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리 룡 국

##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5호 (루제 제763호)

### 편집위원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0(2011)년	5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5월	5일		

7-16157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